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申 東 旻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柳 孝 澈

柳孝澈의

文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2003年 12月 日

建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1. 서 론	1
1.1. 문제 제기	1
1.2. 연구사 검토	2
1.3. 연구방법	5
2. 서천꽃밭의 자료 고찰	8
2.1. <이공본풀이>	8
2.2. <삼승할망본풀이>	10
2.3. 기타 자료	13
3. 서천꽃밭의 형상	23
3.1. 서천꽃밭의 창조	23
3.2.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	41
3.2.1. 원강아미의 노정	42
3.2.2. 한락궁이의 노정	55
4. 서천꽃밭의 의미	69
4.1. <이공본풀이>의 呪花	69
4.2. ‘꽃 피우기 내기’의 주화	82
4.3. <안락국전>의 주화	86
4.4. 꽃밭과 주화의 의미	89
5. 결 론	92
참 고 문 헌	94
부 록	97
ABSTRACT	116

1. 서론

1.1. 문제 제기

‘굿’은 인간사의 모든 일을 각각의 신들이 창조했고, 또한 관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관장신들을 불러 대접하고 그들에게 목적하는 바의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¹⁾.

제주도의 큰 굿은 여러 제차로 이루어져 있다. 큰 굿이란 일종의 의식이며, 의식이란 어떤 체계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²⁾. 큰 굿의 제차들 속에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 무조신들의 기원에 대한 신화, 인간의 산육(産育)을 담당하는 신에 관한 신화, 농경을 기원을 담당하는 신에 관한 신화 등등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이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에는 모두 ‘서천꽃밭’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종종 꽃이 등장한다. 가까운 예로는 창세신화의 “꽃 피우기 내기”가 있다³⁾. 그리고, 수로부인을 위한 노래인 <헌화가>에서도 꽃이 등장하며, 여러 꽃의 기원에 대한 전설⁴⁾들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한편, 큰 굿에서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꽃이 등장한다. 이 꽃들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에게 생명을 내리거나, 혹은 반대로 거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인간을 환생시킬 수도 있으며, 인간의 감정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신이한 능력들을 갖춘 꽃들을 키우고 있는 서천꽃밭이 존재한다.

서천꽃밭은, 여러 제의 중에 등장하고 있는데, 굿을 하는 목적으로 보아 사람들의 여러가지 바람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서 위치를 보인다. 제주도의 큰 굿 안에서 볼 때, 그곳은 갖가지 신이한 꽃들의 능력을 빌어 여러 신들의

1) 이수자,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이화여대, 1989.

2) 이수자,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이화여대, 1989. 15쪽.

3) 이러한 “꽃 피우기 내기”는 창세신화 뿐만이 아니라 삼승할망본풀이 같은 무속신화에도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4) 백일홍, 할미꽃 전설 등.

권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공간이며, 한편으로는 인간들도 주화의 힘을 빌어 기복(祈福)을 하는 제의(祭儀)로서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서천꽃밭이라는 존재는 실로 묘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큰 굴 및 하위 제차들을 연구해 오면서, 서천꽃밭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천꽃밭의 형상이나 더불어 그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서천꽃밭의 공간적 형상과 의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1.2. 연구사 검토

서천꽃밭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공본풀이>나 <삼승할망본풀이>, <안락국태자경> 등과 같은 자료 연구에 삽입되어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서천꽃밭에 관한 연구는 큰 굴을 다루면서 그의 한 제차로서의 <이공본풀이>에 대한 연구의 연장(延長)이거나, <안락국태자경>을 연구하는 연장(延長)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나 <삼승할망본풀이>의 연구사를 짚은 것으로 대신하되, 그 가운데 서천꽃밭 연구 부분을 부각시켜 살펴보겠다.

<이공본풀이>는, 서대석, 조홍윤 이수자, 장주근, 현용준, 강정식, 정진희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대석은, <이공본풀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본토(육지)에서는 기림사의 연기설화로, <안락국태자경>으로, <안락국전>으로, 무가로 평북 및 김해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똑같은 이야기가 장르만을 달리 하여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연구로서, 이공본풀이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하였다⁵⁾.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오고 있다.

이수자는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⁶⁾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큰 굴

5) 서대석, 「서사무가의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8.

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을 다루면서 큰 굿의 구조 및 각 본풀이의 제의적 성격을 다루면서 <이공본풀이> 및 “서천꽃밭”의 꽃에 관한 연구도 일부 아울러다. ‘꽃’이라는 화소를 포함한 큰 굿 제차 중에 다섯 제차⁷⁾를 뽑아, 서천꽃밭의 신화적 의미 및 꽃밭 형상화의 인식적인 기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⁸⁾. 그러면서 식물과 인간 생명과의 비유체계를 논하였다 그러나, “서천꽃밭”을 다루면서 주화들에 관한 언급만을 주로 하였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에서는 <생불할망본풀이>를 연구하면서 『조선무속의 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서천꽃밭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불도맞이제의 순서 및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공본풀이가 불도맞이제에서 불리우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불도맞이제를 삼신신앙의 기능과 일치시키고 있다.

조홍윤은 그의 책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⁹⁾에서 <안락국태자전>의 “서천꽃밭”과 주화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안락국태자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원앙부인’으로 보고 민영규가 이 신화의 제목을 ‘원앙부인극락왕생연(駕鵞夫人極樂往生緣)’이라 한 것을 ‘원앙부인본풀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또한 그는 이 책에서 지형도를 그려내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지옥연구 - 巫의 저승』¹¹⁾에서 꽃밭의 상상계에 대한 본향(本郷)의 의미를 다룬 바를 상기하였다¹²⁾. 또한, “기림사연기설화”를 언급하였으며, ‘사라수탱화’를 소개하면서 그에 나타난 <안락국전>류(類) 작품의 전체적 공간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홍윤은 <안락국전>류(類)의 작품에서 서천꽃밭을 살핌에 있어, 제주 무가인 <이공본풀이>를 참고적인 부분으로만 인용한 부분이 아쉽다.

강정식은, <이공본풀이>가 빈부의 갈등 문제와 수난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층민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를

7)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8) 이는 본고의 목적에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9)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출판부, 2000.

10) 조홍윤, 위의 책, 15쪽.

11) 조홍윤, 『한국지옥 연구-巫의 저승』,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창간호, 문덕사, 1999.

12) 조홍윤, 앞의 책, 34쪽.

펼쳤다¹³⁾. 그는 <이공본풀이>를 구비서사시적 측면에서 보았으며, 이는 조동일의 연구¹⁴⁾에 이어진다. 여기에서 조동일은, <이공본풀이>가 한락궁이의 본을 푸는 무가라는 점에서 신앙서사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미친한 인물’인 주인공이 갖가지 고난을 견디어 내고 부모와의 천륜을 이었다는 점에서 효행서사시라고 할 만한 생활서사시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동일의 연구에서 <이공본풀이>를 신에 관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범인(凡人)에 관한 이야기로 평가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따르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한락궁이는 기사(祈子)로 태어난 부모를 두었으며, 그의 아버가 꽃감관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신(神)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강정식의 논의 또한 하층민의 생활의 적극적인 반영이라는 주장에 반하여 신화적 테두리 안에서의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위의 두 논의는 서사적 내용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겠다.

정진희는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¹⁵⁾에서 수레멜망악심꽃을 이용한 한락궁이의 징벌을 살폈다. 즉, 한락궁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은 제거하는 활동하는 신으로서의 면모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의 꽃밭과 <이공본풀이>의 꽃밭을 ‘생불꽃’과 ‘수레멜망악심꽃’으로 성격을 구분¹⁶⁾하여, <이공본풀이>는 변화한 역사적 조건에 맞추어 <할망본풀이>의 신화적 관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⁷⁾. 그러나, 이는 한락궁이의 징치에 대한 능력을 중심으로 보아 <이공본풀이>의 꽃밭을 오직 ‘수레멜망악심꽃’의 성격으로만 보았다는 점은 비록 그가 큰굿 제차 중의 악심꽃을 꺾는 제차인 “악심꽃꺾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을 지라도 조금 성급한 결론인 듯 싶어 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13)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14)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101~102쪽.

15)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2002. 181~197쪽.

16) 정진희, 앞의 책, 193쪽.

17) 정진희, 앞의 책, 196쪽.

1.3.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서천꽃발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천꽃발은 제주도의 큰 곳 속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범위는 제주 서사무가로 한정하기로 하되, 주 텍스트는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이다¹⁸⁾.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는, 그 내용들로 보아, “서천꽃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무가이며, 특히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서천꽃발의 창조에 관련지어지기 때문이다¹⁹⁾.

한편, 다른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主 텍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안락국태자경>은 그 서사가 <이공본풀이>와 유사하여 상호 비교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안락국태자경>이 제주 서사무가가 아니며, 내용에서도 주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꽃발의 일부 묘사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전개상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될 것이다. 한편,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경>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고전 소설이다. 그러나, 말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공본풀이>와 더 닮아 있다. 그러나, 역시 제주서사무가라는 본고의 범주 외의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제외하였으나 논의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대단하므로 보충자료로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월인석보(月印釋譜)」 8권 220~250 및, <상절부>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는 비록 제주 서사무가이기는 하나, 그의 내용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천꽃발에 방문하여 환생을 목적으로 한 주화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서천꽃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보조적 자료로서만 활용할 것이다.

<악양국왕자노래>는 무가 자료로 전하지만, <이공본풀이>와 비슷한 서사 맥락을 보인다 할 지라도 <이공본풀이>보다는 <안락국태자경>의 모습이 강하고, 본토(육지)의 자료이며, 구연자는 무녀가 아니고 기억하고 있던 무가를

18)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서천꽃발”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된 “제주서사무가”의 자료로 한정한다. 한편, 보충자료는 그 외의 범위도 인정한다.

19) 「조선 무속의 연구」에 채록된 자료가 유일하다.

일반인이 구연하고 있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여러 자료들 중, <이공본풀이> 및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되, 그 외의 여러 필요한 자료들을 중간 중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제일 처음에는 서천꽃밭에 관련한 자료들을 고찰할 것이다. 우선, 서천꽃밭의 꽃감관에 대한 제차인 <이공본풀이>에 대한 자료들을 다룰 것이다. 이는 본고의 주 텍스트 중의 하나인 <이공본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천꽃밭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본고의 주 목적에 대한 단서를 잡는 데에 이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안락국태자경>, <안락국전>,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악양국왕자노래>의 이해를 돕는 장치도 마련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천꽃밭의 형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각각 여러 구연본을 모두 취합하여 볼 것이다. 녹취된 각 구연본은 여러 편이 있다. 각 구연본은 대개 동일한 서사를 보이고 있으나, 서술 방식은 각 구연자의 특성에 따르므로, 본고에서는 가능한 모든 구연본들을 살펴 볼 것이다. 한편, 중간에 필요한 두 판본 외의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로써 자료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천꽃밭의 창조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삼승할망본풀이>를 통해 살펴 볼 것이며,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을 <이공본풀이>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천꽃밭을 둘러 싸고 있는 주위의 모습과 그 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구연본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에 관한 연구도 뒤에 이어질 것이다²⁰⁾. 왜냐하면, 서천꽃밭으로 가는 과정을 몸소 겪거나 꽃밭을 창조하면서, 모든 주변 상황들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꽃들을 사용하는 상

20) 각 주요 인물들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통일하기로 한다.

<이공본>의 사라도령은, ‘사라도령’으로, 원강아미는 ‘원강아미’로, 신산만산할락궁이는 ‘한락궁이’로, 삼승(삼신)할망은 ‘삼승할망’으로, 구할망(저승할망)은 ‘구할망’으로, 재인장재(천년장재, 만년장재)는 ‘재인장재’, 혹은 ‘장자’이다.

황이라든지, 방법 등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고, 가꾸고,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신격 존재로서 서천꽃밭과 주화들의 의미를 찾는 데에 요긴한 정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서천꽃밭의 공간적 위치를 찾아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서천꽃밭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기 위해, 우선 여러 주화들을 살펴 보겠다. 꽃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꽃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로, 신이한 주술적 능력이 부여된 꽃이 자라나는 공간인 서천꽃밭에 대한 의미 또한 도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서천꽃밭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겠다. 서천꽃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탐색을 통하여, 서천꽃밭이 큰 곳의 여러 제차 속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공간이 인식되는 바를 알아볼 수 있겠으며, 그 공간을 활용한 여러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변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서천꽃밭의 자료 고찰

2.1. <이공본풀이>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 무가이다. 큰 곳 때에 초공맞이 다음의 제차에서 구연되고, 불도맞이 때에도 불린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환생꽃, 재난과 멸망의 근원이 되는 멸망악심꽃 등의 주술적인 힘을 지닌 꽃이 등장한다. 그리고, 서천서역 땅에 주화(呪花)를 가꾸는 서천꽃밭이 있으며, 이 꽃밭을 꽃감관이 관장한다.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무당굿의 하나인 주화관장신(呪花管掌神)의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차이다. 여기서 꽃감관을 이공이라 한다. 장주근은 그의 책에서 이공신은 근원적인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관장하는 직분을 가진 신이며, <이공본풀이>에서 드러나는 서천꽃밭과 그 곳에 피어나는 꽃들은 <이공본풀이>에만 나타나지 않고 기타 여러 본풀이와 제차들에도 관련되어 큰 곳 전체의 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²¹⁾고 하였다.

본고에서 참고한 <이공본풀이>의 각 구연본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자 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사항
1-1	이공본풀이	현금순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논문)의 부록 (강정식, 1987)
1-2	이공본풀이	안사인	한국고전문학전집 29 /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불도맞이 中 삽입 자료]
1-3	이공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큰 곳 자료 (1994) / 제주도 큰 곳 자료, [삼승할망본풀이 中 삽입 자료]
1-4	이공본	조홀대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1-5	이공본	고산용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1-6	이공본푸리		조선 무속의 연구
1-7	이공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1-8	이공본		풍속무음
1-9	이공맞이	안사인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21)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110쪽

<이공본풀이>는 이공신의 본을 푸는 무가인 동시에,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동시에 등장시킴으로써 그 곳에 자라고 있는 주화(呪花)들의 힘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위의 자료 목록에서 각 구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적인 서사 줄거리를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진국과 원진국(임진국)은 친구 사이로, 김진국은 가난하였으며, 원진국(임진국)은 천하거부였다.
- ② 그러나, 이들은 자식이 없어 절에 공양하여 祈子하였다.
- ③ 김진국은 아들을 낳았으며, 원진국(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 ④ 후일 자식들이 자랐으므로, 김진국의 아들(사라도령)과 원진국의 딸(원강아미)이 결혼하여 살았다.
- ⑤ 그러던 중, 옥황상제의 사자(편지)가 와서 사라도령을 꽃감관의 직책을 맡기고 부르므로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던 부부는 함께 서천꽃밭으로 출발하였다.
- ⑥ 길을 떠나던 도중에 임신중이던 원강아미가 발병이 났으므로 부인은 사라도령에게 자신을 재인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아두고 떠나라고 애원한다.
- ⑦ 사라도령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증표(본메)를 남긴 채 길을 재촉하여 떠나갔다.
- ⑧ 한편, 남겨진 원강아미는 재인장자의 청혼을 수 차례 거절하고 한락궁이를 낳아 길렀다.
- ⑨ 자라면서 한락궁이와 부인은 재인장자에게 갚은 시련을 당하다가 어느날, 한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도망을 치게 된다.
- ⑩ 가던 중, 몇 번의 위기를 넘긴 한락궁이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 ⑪ 한편 재인장자는 한락궁이가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벌로 한락궁이의 어머니를 죽인다.
- ⑫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그것으로 어머니를 회생시키고 수레멜망약심꽃으로 재인장자네 일족을 모두 죽인다.
- ⑬ 그리고 서천꽃밭으로 모자가 함께 돌아가 한락궁이는 꽃감관이 되고, 사라도령은 꽃밭대왕이 되고, 원강아미는 저승어명이 된다.

<이공본풀이>는 위와 같은 서사구조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꽃을 사용하여 죽은 어머니를 회생시키고, 살아있는 장자를 죽이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꽃들은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며,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여기에서, 서천꽃밭의 형상에 관계하는 내용의 번호는 ⑤, ⑥, ⑨, ⑩번이다. ⑤번에서는 사라도령 부부의 노정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⑥번은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장자의 집과 그 주변에 대한 언급이 있다. ⑨번과 ⑩번은 한락궁이가 도망을 가면서 지나치는 노정과 꽃감관인 사라도령이 한락궁이를 데리고 서천꽃밭을 돌아보면서 각종 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한편, 한락궁이가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고 장자를 징치하기 위하여 장자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부분인 ⑫번과 되살아난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오는 부분인 ⑬번은 모든 판본이 한결같이 노정에 관한 것이나 주변의 모습들에 관한 서술이 있을 법도 하나,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2.2.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는 ‘삼승(삼신)할망’의 본을 푸는 무가로서, 큰 곳의 ‘불도맞이’ 제차에 불리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삼승(삼신)할망이 좌정하게 된 연유를 노래하고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할망본풀이>의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번호	자 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사항
2-1	삼승할망본풀이	이정자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2-2	맹진국 할망본	김매옥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17과 18은 '할망본'에 나뉘어 있다]
2-3	저승 할망본	김매옥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2-4	할망본	김해옥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2-5	삼승할망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큰 굿 자료 (1994)
2-6	구할망본		풍속무음
2-8	삼승할망본		풍속무음
2-9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조선 무속의 연구
2-10	할망본	고술생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마누라본풀이] (진성기, 1991)

서천꽃밭은 제주도 서사무가 중에 나오는 신이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꽃밭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주화(呪花)들이 만발한 공간이다. 이러한 주화들은 신(神)에 의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산신(産神)인 삼신할멈은 이 꽃밭의 환생꽃을 가지고 분주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잉태를 하게 한다. 한편, <조선무속의 연구>에 비록 유일하지만, 서천꽃밭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²²⁾』에 채록되어 있는 “김매옥 本”과 “김해옥 本”의 <할망본> 서사는, ‘저승할망’²³⁾과의 인세차지 경쟁 부분과 ‘대별상 마누라’와 대결하는 두 부분으로 전-후반부가 확연히 나뉘어 있으며, “고술생 本”의 <할망본>은 전반부가 누락되어 있고, 후반부의 <마누라본풀이>만 남아 채록되어 있다²⁴⁾.

- ① 동해 용왕의 딸은 어려서부터 죄를 지어 육지로 쫓겨 났다.
- ② 동해 용왕의 부인은 쫓겨가는 딸에게 인간 세상에는 생불왕이 없으니, 생불왕을 하면서 살라고 한다.
- ③ 무쇠철갑에 갇힌 채, 물에 다다른 용왕의 딸을 임박사가 구해준다.

22)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131~146.

23) <저승할망본풀이> 혹은 <구할망본풀이>라고도 한다.

24) 그러나, 여기에서는 후반부의 <마누라본풀이>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마누라본풀이>에는 서천꽃밭에 관련한 자료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동해 용왕의 말젓뜯아기는 감사의 표시로 임박사의 부인에게 생불을 하여 주나, 해산시키는 법을 몰라 고생한다.
- ⑤ 임박사는 옥황상제에게, 해산시켜줄 할머니를 보내 달라 한다.
- ⑥ 옥황상제는 명전대왕 따님애기에게 그 일을 맡긴다.
- ⑦ 명전대왕 따님애기는 임박사의 부인을 해복시킨다.
- ⑧ 동해 용왕 말젓뜯아기는 자신이 생불한 것을 다른 이가 해복시킨 것에 대해 싸움을 걸자, 옥황상제 앞에 가서 이를 고한다.
- ⑨ 옥황상제는 동해 용왕 말젓뜯아기와 명전대왕 따님애기를 함께 불러 물을 따라 붓는 내기와 꽃 피우기 내기를 시킨다.
- ⑩ 두 내기를 모두 명전대왕 따님애기가 이기자, 옥황상제는 동해 용왕 말젓뜯아기는 구천왕구불법(저승할망/구삼승할망)²⁵⁾으로, 명전대왕 따님애기는 인간 명진국 할머니으로 들어가게 한다.
- ⑪ 저승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구삼승할망 밑으로는 강비리·물비리·홍허물·너벅지시나 경풍증세등 육아병과 관련된 악신들이 생겨났다.
- ⑫ 어느 날 삼승할망은 사계절 따뜻한 극락땅을 찾아 어지럽게 자란 풀들을 자른 후에 대(臺)를 만들어 서천꽃밭을 설치하려고 하니 꽃씨가 없었다.
- ⑬ 지부왕에게 의논하니 옥황에 있다 하여 옥황상제에게 꽃씨를 얻어 삼월 삼종일에 파종했다.
- ⑭ 오색꽃을 오방(五方)에 심으니 꽃이 자라났다.
- ⑮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에 꽃이 자라는 대로 인간에 생불을 주었다.
- ⑯ 그러나, 삼승할망이 집에 돌아가 버리면 꽃을 꺾어버리는 자가 있어서 옥황상제에게 꽃을 지킬 꽃감관을 원하였다.
- ⑰ 옥황상제는 금시상땅의 김정국 아들을 불러서 꽃감관(監官)을 시켰다.²⁶⁾

여기에서는 꽃피우기 내기를 통하여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피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⑫~⑰의 내용은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서천꽃밭을 창조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맥락이 <이공본풀이>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삼승할망본풀이>도 <이공본풀이>와 마찬가지로 각 구연본들을 종합적으로

25) 애기 데리고 가는 사자.

26) ⑫~⑰의 내용은 『朝鮮巫俗の 研究』에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다.

살핀 결과는 없으며, 특히 서천꽃밭이라는 공간만을 따로 떼어 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 큰굿자료」²⁷⁾에 소개되고 있는 <삼승할망본풀이>²⁸⁾와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²⁹⁾에 소개되어 있는 3편의 <할망본>³⁰⁾을 중심으로 그 외의 판본까지 함께 하여 살펴 보겠다.

2.3. 기타 자료

그 외의 참고한 자료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번호	자 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사항
3-1	세경본পুর이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 273~287쪽)
3-2	세경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2001.)
3-3	세경본풀이	안사인	한국고전문학전집 29
3-4	문전본পুর이		조선무속의 연구
3-5	문전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2001.),
3-6	안락국대자본생		불교설화대사전 (한정섭, 1991)
3-7	안락국전		국립중앙도서관 본(本)
3-8	악양국왕자노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9 (123-146 쪽)

<세경본풀이>는 농경 기원신과 목축신의 본을 푸는 무가로, 오곡의 종자와 메밀 씨를 가져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준 신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큰 굿의 제차 중 여덟번째로 행해지는데, 여기에서 모셔지는 신은 상세경인 문도령, 중세경인 자청비, 하세경인 정수남이다. 이 중에서는 자청비가 가장 중요하게 모셔지고 있다. 자청비야 말로 실질적인 농경신이기 때문이다³¹⁾.

27) 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클굿 자료집, 제주도, 제주전통문학연구소, 2001.

28) p. 365-388.

29) 진성기, 민속원, 1991.

30) p. 131-146. 고술생本, 김매옥本, 김해옥本.

<세경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의 큰 곳에만 남아 전한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딸로 태어난 자청비는 과거보러 길 떠나는 하늘나라 문도령을 보고 집을 나선다.
- ② 문도령과 삼 년 동안 같은 방 안에서 공부를 하지만,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자, 자청비는 집으로 돌아올 때 냇물에서 나뭇잎에 자기가 여자라고 밝히는 글을 써 아랫물에서 목욕하는 문도령에게 띄워 보낸다.
- ③ 그리고 이를 보고 쫓아온 문도령과 석 달을 같이 보낸다.
- ④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 자청비는 문도령을 핑계로 산에서 자기를 겁탈하려는 하인 정수남을 죽이게 된다.
- ⑤ 그런 자청비를 부모들은 일꾼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자청비는 절망하지 않고 남장을 하고 홀로 길을 나서 자기 앞을 헤쳐나간다.
- ⑥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엉이를 잡아 꽃을 관리하는 사라장자의 눈에 들어 그 집의 사위가 된다.
- ⑦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청비가 마지막으로 문도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산으로 기도를 올리러 갔을 때, 하늘에서 죄를 지어 밑구멍이 뚫린 바가지에 물을 길는 벌을 받는 선녀를 만나 하늘에 눈물로 애원한다.
- ⑧ 선녀들은 자청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청비를 하늘로 올려 보내 준다. 하늘에 올라가 문도령을 만났지만 시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 ⑨ 그러던 중, 자청비는 하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시부모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출전하겠다고 한다.
- ⑩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환생꽃과 수레멜망악심꽃을 사용하여 문도령을 환생시키고, 적군들을 모두 죽여 싸움을 평정한다.
- ⑪ 그 뒤, 자청비는 사라장자 딸에게 자기 대신 장가 보낸 문도령이 돌아올 때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생각하고 문도령을 떠난다.
- ⑫ 옥황상제는 이런 자청비를 보고 땅의 반과 물의 반을 갈라 준다. 그리고

31) 이수자, 위의 논문, 148쪽.

오곡 씨를 주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세경을 맡아 하는 농경신이 되라고 한다.

<세경본풀이>의 전체 서사에서 서천꽃밭은 두 군데 등장한다. ⑥번과 ⑩번의 부분이다. ⑥번 부분에서는 자신이 죽인 정수남을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몰래 훔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술적(邪術的)인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당당히 꽃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청비는 정수남을 되살려 내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낸다고 부모에게 또 다시 쫓겨나게 된다. ⑩번에서는 다시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죽은 문도령을 되살리며, 난을 평정하기 위해 다시 주화들을 얻어오게 된다. 그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⑦ 정수남이 죽은 달 좇아가니, 브레여보난 풀이 덤방허여시난 은장도칼 내여놓고 동서레레 비여 잣현 환승꽃을 노안 종낭막탱이로 삼식번을 후렸더니, 정수남이 매방석 ㄱ똥 머리 박박 긁으멍,

(중략)

자청비는 알(下)엿 녀 서천꽃밭디 들어가 따시(又) 서천꽃밭 도환생꽃을 타단 죽은 낭군 살려두고 나오더니...

(중략)

알엿 녀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꺼아전 천제국나라에 들어간 보니, 아닐쎄 세벤난이 일어나고, 알민명의 제군스(諸軍士) 삼만명의 제군스가 건삼밧디... <안사인 本-세경본풀이>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구하는 도중, 꽃감관의 딸과 혼인을 하기도 하며, 후일 문도령이 죽었을 때에도 역시 도환생꽃을 사용하여 다시 환생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전쟁이 났을 때에는 수레멜망악심꽃으로 1만명의 군사와 3만명의 군사를 모두 죽이기도 한다. 이

는 꽃감관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서천꽃밭의 주화들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해 지므로, 생사여탈에 관여하여 스스로 신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원·명대 강창문학인 양산백보권, 조선시대의 소설인 양산백전, 함경남도의 무가인 문굿, 제주도의 민담으로 전해지는 자청비 이야기등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도 나비가 탄생한 이야기 등으로 등장하고 있어, <세경본풀이>를 포함한 위의 작품들처럼 남장한 여자와 동문수학한 남자의 연애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양하고 폭넓게 전승되도 있다³²⁾. 다만, 후반부에 농신(農神)의 이야기는 <세경본풀이>에만 등장하고 있다.

<문전본풀이>는 가옥과 같은 건물의 수호신에 대한 의례이다. 여기에서는 무능한 남선비로 인하여 노일저대귀에게 죽음을 맞게 된 칠형제의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서천꽃밭이 등장하고 있다.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하여 작은 동생이 포육을 떠 가지고 객새 등을 타고 서천 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구해다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방문하고 있다.

<신라합월산 기림사사적>의 「고기(古記)」와 <별본기림사사적(別本祇林寺事蹟)>의 「사중고기(寺中古記)>에는 이 사찰의 연기(緣起)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이는 <안락국태자전>으로 알려져 있다. 국문필사본 <안락국전>들의 내용은 기림사연기문의 모습과는 약간 다르다³³⁾. <안락국전>에서는 광유성인은 석가세존님(부처님)으로 이름이 바뀐다. 부처님은 서천서역국에서 삼천 제자를 거느리고 우담바라화와 연화, 보배꽃 등을 기르고 있는데, 7년 가뭄이 들어 그 꽃들이 시들고 부처님의 얼굴도 꽃과 함께 시들어가므로 꽃밭 수리를 맡길 사람을 찾아 대원국의 사라수 대왕에게 인걸립을 요청하러 떠나는 내용이 이의 서두 부분이다.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와 눈에 띄게 서사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주인공의 태생과 장자의 징치 부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이외의 서사는 전체적으로 <이공본풀이>와 비슷하다. 주인공들 또

32)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143쪽.

33)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출판사, 2000. 10쪽.

한 이름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 성격은 비슷하다.

<안락국태자경>은 우리에게 <안락국태자전>으로 알려져 있는 불경이다. 이 설화는 그간 사재동의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연구》(1977)과 강정식의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1987)에 의해 여러 계통의 이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는 불교계 국문소설을 위주로 접근하였으며, 후자는 제주도의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하고 여러 이본의 계통을 논하였다³⁴⁾. 그 중, 강정식의 논의에서는 제주무가인 <이공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서사물로 사찰녹기문(寺刹錄起文)인 <慶州舍月山祇林寺蹟>을 비롯하여 불경 <안락국태자경>³⁵⁾, 고소설 <안락국전>, 그리고 平安北道 巫歌 <신선세턴님 청배>³⁶⁾, 경남 김해무가 <악양국왕자노래>³⁷⁾ 동해안무가 <오구대왕풀이>³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교하면서 <이공본>의 형성과정을 밝힘과 동시에 성격을 분명히 해 보고자 하였다³⁹⁾. 그래서, 비교 연구 한 결과로 <이공본>과 <안락국전>이 <안락국태자경>보다는 가까운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⁴⁰⁾.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경>과 그 제목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일 뿐더러 그 전반부의 내용은 <안락국태자경>과 거의 동일하다. 등장 인물들 이름이 그리하며, 꽃발수리의 이해로 인한 인걸립(人乞粒)이 그러하다.

<안락국태자경>은 광유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꽃발 수리의 일을 관장하는데, 7년 가뭄이 들어 인간세계에서 꽃발 수리를 담당할 사람을 걸립해 오도록 하는 이야기⁴¹⁾로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 대신 사라수대왕이 등장하여 물을 길는다. 여기의 그 꽃발의 공간은 이승이 아닌 공간⁴²⁾으로 등장하고

34)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 출판부, 2000. 4쪽.

35) 安樂國太子經, [月印釋譜] 第八

36) 손진태, 「巫覡의 신가」,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37)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경남 김해시 김해군 편.

38)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남편, 1972.

39)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0-59쪽.

40) 강정식, 위의 논문, 49쪽.

41)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출판부, 2000. 11 p.

42) 정토로 표현됨.

있다. 그러나, <안락국태자경>은 <이공본풀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꽃밭은 이승이 아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안락국전>은 후반부로 갈 수록 <이공본풀이>과 닮아 있다. 즉, <안락국태자경>에서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주화의 힘으로 환생하는 내용은 없는데 반해, <안락국전>에서는 <이공본풀이>처럼 환생꽃을 사용하여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강정식은 그의 논문⁴³⁾에서 <이공본풀이>는 <안락국전>을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공본풀이>의 형성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안락국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해결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명왕편>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일대기와도 같은 모습이다.

	동명왕 편	이공본 / 안락국태자경 / 안락국전
1	해모수와 유화가 결합한다.	사리수대왕(사라도령)과 원앙부인(원강암이)가 결혼한다.
2	유화(유씨부인)는 임신한 채 부여에 남겨진다.	원앙부인(원강암이)는 임신한 채 장자집에 팔린다.
3	유화는 주몽을 낳고(유씨 부인은 유리를 낳고) 둘은 핏박을 받는다.	원앙부인(원강암이)은 안락국(할락궁이)를 낳고 핏박을 받는다.
4	주몽은 추격하는 무리를 뿌리치고 물을 건넌다. (유리는 어머니를 졸라서 아버지의 내력을 알아내고 아버지를 찾아간다.)	안락국(할락궁이)은 어머니를 졸라서 아버지의 내력을 알아내고 추격하는 무리를 피해 물을 건너 아버지를 찾아간다.
5	(유리는 친자임을 입증하고 후계자가 된다.)	안락국은 부자 상봉 후에 아미타불이 된다.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된다.)

또한,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경>을 직접 보고 소설화 한 것이라는 서대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특히 꽃으로 어머니를 환생시키는 내용은 <안락국태자경>의 정토 사상과 배치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경>의 단순한 소설화가 아니라, 거듭 필사하면서 이루어 졌거나, <안락국태자경>이 설화화 된 것을 수용하여 이루어 졌을 가능성 등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공본풀이>는 <안락국전>을 수용하였거나, 이것이 다시 설화화 된

43) 강정식, 위의 논문, 50쪽.

것을 수용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홍윤은 그의 책,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⁴⁴⁾에서 기림사 연기 설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교의 정토신앙과 주몽 신화를 바탕으로 조선 초에 <안락국태자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간에 알려지면서 한국 무의 꽃과 재생의 신화요소가 첨가되어 <안락국전>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 <이공본풀이>가 되었다’고 한 자신의 논의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면서, 기림사 연기 설화나 안락국 이야기는 불교 설화가 아니라고 하였다. 비록 불교적 윤색 과정이 있었으나, 신화에서 고유 명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구조와 내용은 한국의 전형적인巫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무의 신화가 신가로서 명맥을 유지하여 내려오다가 기림사 연기설화를 거쳐 <안락국태자경>으로 정착되었다가 그것이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편입되고 나아가 민간에서는 소설 <안락국전>과 불교소설 등으로 전개되어 나간 것으로 보았다. 채기원은 그의 논문⁴⁵⁾에서 <안락국태자전>은 정토계의 경전과 삼위불보살(三位佛菩薩)의 본생담을 토대로 한 불경설화의 내용이 민간에 널리 구전되어 오면서 내용적 흥미와 윤색을 거쳐 익숙해진 형태로서 종합 정리된 공동제작품이므로 어느 한 작가를 규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세조대에 『석보상절』의 일부로 한역되어진 이후 『월인석보』에 이르러 세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승려 및 학자들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정착된 것이라 하였다.

<이공본풀이>는 《월인석보》 제8상절(詳節)의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 및 고대소설 <안락국태자전>의 그 내용과 같아 하나의 원천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할 여지를 남긴다. 또한, 설화 유형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이름까지 유사한데, 위의 불경이나 소설에는 사라도령이 ‘사라수대왕’으로, 원강아미가 ‘원앙부인’으로, 할락궁이가 ‘안락국’으로, 재인장자(천년장자/천년장재)가 ‘자현장자’로 되어 있다. 장주근은 확실하게 불전 설화에서 연유한 서사무가이기 때문에 무속과 불교의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데에서도 확실한 한 단서가

44) 조홍윤, 위의 책, 9쪽.

45) 채기원, 「안락국태자전 연구-월인석보 소재 원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 논문, 1990.

되어주고 있다고도 소개하였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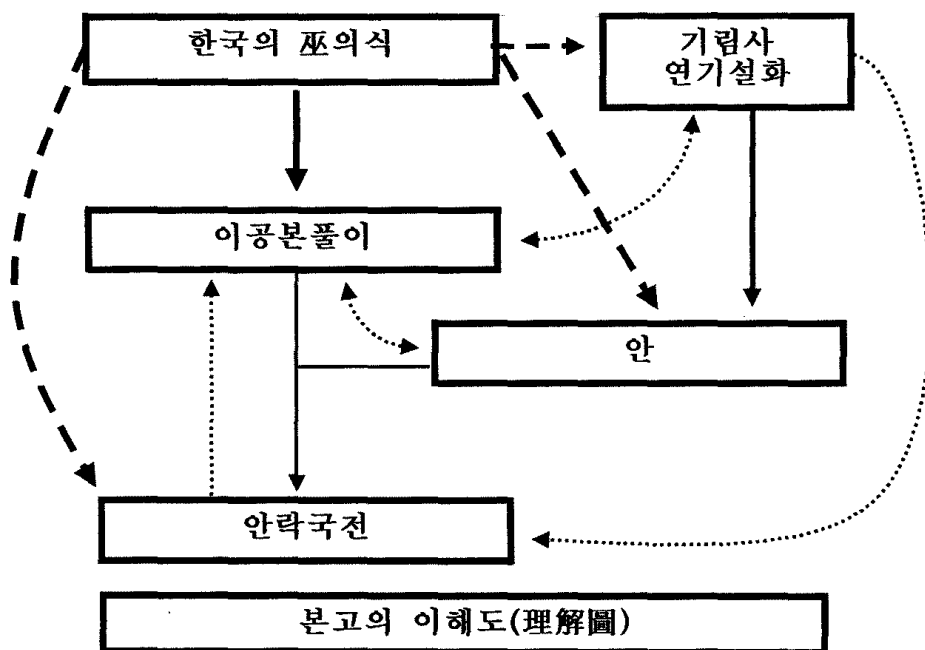
논자는, <안락국태자경>은 비록 불경이긴 하나,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상에 맞는 줄거리로 변형되어져서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불교 수입 이전의 우리 무(巫)의 모습을 말한다. 경전의 목적은 민간에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것이라면 곤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정식의 주장대로 당시 숭앙되었다고 여겨지는 동명왕 이야기와 같은 영웅담의 서사에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진 형태로 정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영웅담은 이미 비슷한 여러 이야기들로 편편히 구전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이 민간에 퍼지면서, 불교적인 정토사상은 어느정도 대중에 편치 못한 것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결국 사라지고, 결말 부분은 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어쩌면 당연한 듯한 한국의 巫的 사상이었던 <이공본풀이>의 영향으로 결말 부분이 치환된 소설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이공본풀이>는 무가로서, 혹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설화로서 <안락국태자경>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 동명왕 설화 등이 나올 수 있었던 한국 내의 보편적 사상으로 인하여 -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안락국태자경>이 들어와 『월인석보』 등에 공개되고 나서는 <이공본풀이>와 어느정도 비슷한 부분은 취합하여 <안락국전>이 탄생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은 비슷한 서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후반부에서 상당한 차이⁴⁷⁾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두 본(本)이 하나의 뿌리라고 여길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그의 선후 문제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공본>은 巫歌이므로 그의 발생 연대는 추정 가능하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안락국전>에 꽃발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공본풀이>의 영향이라 보았다. <이공본풀이>가 비록 협소한 지역인 제주도 내의 무가로 인식되어 있어서 오히려 본토에 있던 <안락국전>

46)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99쪽.

47) <이공본>의 배경은 서천꽃밭이며 죽은 어머니를 되 살리는 등의 여기에서 자라는 주화들의 능력들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안락국태자경>에서는 그러한 주화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공본풀이>가 본토(육지)의 이야기(안락국전)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내용의 서사가 전해지다가 서사가 많이 사라진 본토의 <창세가>처럼, 본토에 남아 있던 <이공본풀이>가 <안락국전>의 창작 당시 영향을 미쳤다가, 본토의 <이공본풀이>는 그 후, 변질되거나 사라졌고 제주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토의 <이공본풀이>가 사라진 것은 창세신의 본을 푸는 - 제의에서 - 대단히 중요한 <창세가>도 거의 그 흔적만을 유지하고 있는 본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못할 바도 아닐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실선은 실제적 영향관계를 나타내며, 점선은 잠재적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또한 화살표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공본풀이>를 그 가운데의 위치로 보았는데, 이는 <안락국전>의 높은 완성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공본풀이>

를 한국인의 무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작품으로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로 보았다. 한편, 활자화되어 정착된 <안락국전>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공본>으로 다시 역행(逆行)하여 끼친 영향도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였다. 이는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 있어 긴밀한 연관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선후의 문제나 선본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3. 서천꽃밭의 형상

현재, 서천꽃밭이 등장하고 있는 몇몇 본풀이들에 대한 채록작업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 하나만을 보더라도 현재 채록되어 있는 여러 판본들이 각 구연자의 특성에 따른 서술이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서천꽃밭이라는 하나의 공간만을 위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현재,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몇몇 본풀이들을 아울러 조각나 흩어져 있는 서천꽃밭의 모습들을 통합·제시하려 한다.

서천꽃밭의 창조에 관하여는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며,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이처럼 서천꽃밭을 연구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연구는 서천꽃밭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의미 있는 서천꽃밭의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3.1. 서천꽃밭의 창조

처음에 서천꽃밭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는 생불신인 삼승할망을 찬양한 무가인 <삼승할망본풀이>의 여러 자료 중, <朝鮮巫俗の 研究>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판본들에서는 유추가 가능한 서사만 등장할 뿐이어서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朝鮮巫俗の 研究>의 자료의 진위 여부는 명백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의 서천꽃밭의 창조 장면에 관한 자료만을 놓고 보면, 이는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 간의 상호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무가가 <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이 주인공의 이름이나 성격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할망본풀이>와 <이공본

풀이>가 상호 자연스럽게 내용상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아래는 <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주인공의 이름과 성격을 간략히 비교한 표이다.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주인공의 이름	맹진국할마님 맹진국애기 할마님	맹진국할마님 할마님	사라도령	김정승 황세곤간	황세곤간
주인공의 성격	자손을 내림	자손을 내림	서천꽃밭의 꽃감관	서천꽃밭에서 꽃을 키움	서천꽃밭에서 꽃을 키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 확인된 하나의 무가에 대하여 다른 무가와 의 연계성에 비추어 볼 때,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자연스럽게 연관짓고 있는 <朝鮮巫俗의 研究>의 자료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편, <할망본>에서는 ‘삼승할망’이 생불왕의 직능을 수행하기 전에는 맹진국⁴⁸⁾의 釋迦山 아래에 사는 맹진국 대감 애기씨였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석해대왕(釋迦大王)’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北海聖上’이었다⁴⁹⁾. 혹은, 그의 할아버지는 ‘天主菩薩’, 그의 할머니는 ‘지장보살’, 아버지는 ‘석해대왕(釋迦大王)’, 어머니는 ‘석해여래(釋迦如來)’⁵⁰⁾라는 것이다.

㉠ 맹진국 대감은 옥황이서 혹은 맹영이라 못홀쿠맹도 못홀고...

48) 맹진국을 “命이 긴 國”으로 <고술생 本>, <김매옥 本> 등에서 해석하여 놓았으나, 이는 모두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실려 있는 자료로 진성기가 자의적으로 하여 놓은 해석이다.

49) 김매옥 本.

50) 김해옥 本.

<김매옥 本-저승 할망본>

㉔ 옥황상제 대명왕이 임수를 제졌수다. 대명왕이 분부를 주되, “금
시상에 도느려 인간 생불을 주라.” “그영 ㅎ겠수다.”

<김해옥 本-할망본>

이 대목 외에도 불교적인 영향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나⁵¹⁾, 정리를 하여 보면 ‘석가산(釋迦山)’은 맹진국 안에 있는 지명이며, 맹진국 대감은 ‘석가대왕’이며, 그의 딸은 ‘삼승할망’인 것이다. 또한, ‘옥황상제’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딸을 ‘삼승할망’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에서 보면, ‘석가대왕’은 ‘옥황상제’의 하위의 개념으로 보인다.

삼승할망의 임무는 인간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생불을 내리는 일이다. 생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불꽃이 필요한데, 이는 서천꽃밭에서 피어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을 만들어 생불꽃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꽃씨가 필요한데, 그것은 삼승할망이 만들수 없었던 것이었다.

㉕ 꽃씨가없어서지부왕에의논하니 / 옥황에잇다하아,옥황으로꽃씨를어더서

<맹진국생불할망본푸리-朝鮮巫俗의 研究 上, 11.>

㉖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고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고장씨를 타
단

<김해옥 本-할망본>

㉗ 이제는 옥황상제님이 꽃삼월 초사을날 맹진국 애기신디 중선반에
은대양에 고장씨 은시를 내여주고

<김매옥 本 - 할망본>

51) 환생이라든지, 삼승할망이 거느린 신들의 이름을 보면 “동개남의 지장대왕, 서개남의 생불보살, 건삼절(?)로 남중보살, 곤삼적은 여중보살...” 등등이 있겠다.

자료에서 보면, 삼승할망은 생불을 주러 다니기 위해 꽃씨를 하늘에서 받아 오고 있다. 이는 꽃씨의 근원은 하늘인 옥황에 두어, 하늘의 자손이라는 在天思想을 강조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백성(인간)의 근원을 하늘에 둔 또 다른 예로, 다음의 <창세가>와 <桓因의 창세신화⁵²⁾>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 한을에祝詞하니,
한을에서벌기떠러져,
金쟁반에도다섯이오
銀쟁반에도다섯이라.

<김쌍돌이 本 - 창세가>

㉡ 태고 혼돈의 시절에 상계에는 문득 하나의 큰 신인 한인(桓因)이 무량한 지혜와 힘이 있어 여러 수많은 小神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때에 一大主神이 두 손을 마주잡고 桓雄天王을 불러 창세의 큰일을 행하도록 명을 내렸으며 명을 받은 天王은 여러 신을 독려 하여 각각 크게 신통함을 나타내게 하였다.

<桓因의 창세신화>

㉠의 인용 부분은 벌레가 하늘에서 내려 왔는데, 그 벌레 중 금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남성으로, 은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여성으로 모두 다섯쌍의 남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의 인용부분은 일대

52) 1968년 신학균이 처음으로 번역 출판한 揆園史話의 창세신화로 혼돈이라든지 大塊 같은 표현은 반고신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며, 매우 철학적으로 기록되어서 순수 신화의 맛은 덜 나지만 창세 신화로서 몇 가지 중요한 특색을 내포하고 있다. 天地人 三才사상의 모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淮南子*의 陰陽二神과는 달리 一神이 創造神이고 人格神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으며, 一神을 한인(桓因)이라는 특이한 신칭으로 표현하여 민족적 창세신화로서의 고유성을 밝혀 주었으며, 또한 드라마틱한 창조 장면에서 風雲雨雷·四神의 모습이 돋보여 후세에 결실된 風神·雨神·雲神·雷神·民藝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으며 三國遺事에 소개된 단군의 건국신화로 이어져 단군신화의 前회가 된다.

주신(一大主神)의 명을 받은 환웅천왕(桓雄天王)이 여러 하위 신들을 독려하여 창세(創世)의 위업을 달성했는데, 이 중에는 인간창조의 위업도 해당된다. 즉, 인간창조의 위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대주신(一大主神)의 명(命)에 의한 것임을 환기한다.

이러한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중 하나는 바로 인간창조신화(人間倉造神話)이다. 위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보겠다. 우선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창세신화의 ‘하늘’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를 ‘옥황’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신격에 위임하면 미륵(혹은 한인)과 삼승할망이 대비가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 및 <김쌍돌이本>에서 ‘하늘’ 혹은, ‘옥황’이라고 지칭한 신격은 ‘일대주신(一大主神)’, 즉 ‘한인(桓因)’의 위치이며 ‘미륵’은 ‘환웅(桓雄)’의 화신이라고도 미루어 볼 수가 있겠다. ‘환웅’, 즉 ‘미륵’, ‘한인(桓因)’ 그리고 ‘삼승할망’은 ‘一大主神’인 ‘하늘’과 ‘옥황’의 명을 받아 인간에 관련하여 인간의 근원을 하늘에 두게 한 것이다. 이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서천꽃밭’에서 꽃씨를 받아다 생불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인간을 중시하는 우리 무속의 인본주의적 사고의 반영으로 볼 수가 있다⁵³⁾. 그러나, 비교함에 있어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다면, 미륵은 창세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神)이지만, 삼승할망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창조된 인간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대석은, 무신(巫神)의 직능이 세분화(細分化)되면서 창세신의 직능을 조상신(祖上神)이나 생산신(生産神)이 대리(代理)하게 된 점을 지적하였다. 처음에는 창세신(創世神)의 직능은 포괄적으로 인세를 창조하고 인간을 다스렸으며 생산(生産)과 직결되는 기후를 조절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제석(帝釋)과 같은 생산신(生産神)이나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숭앙(崇仰)이 고조(高潮)됨에 따라 퇴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국가나 마을 단위로 행하던 巫儀가 家庭단위로 축소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⁴⁾. 또한, 이상일은 천체적 구조의 최고 존재는 차츰 그들의 역

53) 이지영, 《韓國神話의 神格 由來에 관한 研究》, 태학사, 2000. p. 194-195 참조

54) 서대석,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0.

할과 사명을 다른 신들에게 넘겨주고 ‘한가한 신(dei dtiosi)’이 되는데, 그 신은 숭배의 대상에서 차츰 멀어져 인간세상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의 역할은 차례로 여러 다른 신들에게 분담된다고 하였다⁵⁵⁾.

이처럼, 삼승할망 또한 퇴조한 창세신의 기능을 잇고 있는 여러 신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삼승할망은 창조된 인간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을 이어받아 서천꽃밭을 창조했다고 여겨진다.

한편,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삼승할망본풀이>의 여러 판본들 중에서도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을 창조했다는 간접적인 언급이 몇 군데에 보이고 있다.

㉠ 중선반에 은대양(은대야)에 고장(꽃)을 심었수다(심었습니다). 고장홀히(꽃뿌리)는 외불힙네다. <김매옥 本-할망본>

㉡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고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고장씨를 타단(따다가) ...(하략) <김해옥 本-할망본>

㉢ 외곽으론 토상 둘러 성안에는 별충당을 무엇구나 <안사인 本-할망본풀이 중 「덕담」>

㉣ 명전대왕 뜰님애기 심근 꽃은 보난 <이정자 本-할망본풀이>

㉤ 서천꽃밭을설시하랴하되
꽃씨가없어서지부왕에의논하니
옥황에잇다하아,옥황으로꽃씨를어더서
<朝鮮巫俗의 研究 上, 11.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김매옥 本>과 <안사인 本>, <이정자 本>에서는 꽃을 심었다는 서술이 보

55) 이상일, 『변신 이야기』, 밀알, 1994. 67쪽

인다. <김매옥 本>에서는 은대야에 꽃씨를 심었다고 나와 있으며, <이정자 本>에서는 따로 꽃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지만, 꽃을 심는 곳은 꽃밭이다. 특히 <안사인 本>에서는 “외곽에는 토성(土城)을 두르고 성 안에는 별충당(別堂 식의 건물로 이해 됨)을 만들었다.”라는 서술은 삼승할망이 주체적으로 서천꽃밭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김해옥 本>에서는 ‘옥황상제’의 명의 받아 ‘서천꽃밭’에 가서 꽃씨를 따다가 (다른 곳에) 심은 것으로, 이는 서천꽃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서술로 보이는데, 구연자의 잘못된 기억력에서 비롯된 부분이라 여겨진다.

서천꽃밭의 위치에 관한 언급들은 <삼승할망본풀이>의 각편에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이를 자료에서 찾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따시 옥황상제님은 / 은꺾새 하나에, 춤씩 석죄에
고장씨 은씨를 내여주난
맹진국애긴 / 스월초파일날로
석해산을 느려오고 / 아버지 어머님께
선신문안을 드렸수다 / 기영호연 이젠
이충경 팔계집을 짓어단에
문안엔 애기보살을 거느리고 / 문밖졌딘 업게보살을
거느렸수다 / 충경 우타는
결레보살을 거느렸수다 / 맹진국 애기가
절간 불법집을 짓어단에
할마님 절배당(寺拜堂)을 무었수다
중선반 은대양에
고장을 숲었수다

<김매옥 本-할망본>

- ㉡ 섯이 좋은 섯스월돌 / 초파일로
금시상에 금법당의 / 생불땅 석해산에
무쇠금당으로 토성을 돌르고 / 누룩으론 내성을 돌르고
열두 지옥문을 심고 /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으고 /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고장씨를 타단에 / 할망 앞에는 / 옥새창(玉色窓?)을 돌렸수다
 문안에서 오행팔팔 돌렸수다 / 문 백이는 단수육갑(單手六甲)을
 짚었수다 <할망본 - 김해옥 本>

- ㉔ 하룻날에천보살이말하기를 / 팔풍이지춘화추동따뜻한
 극락땅이있소이다말을하니 / 삼신탈망이모든보살거느리고
 아요산청룡산웅천금신산대산가운데 / 극락지를찾고보니극락지분명하야
 청모람람그는후에, 숙석으로데를닥그고 / 서천꽃밭을설시하랴하되
 꽃씨가없엇지부왕에의논하니 / 옥황에잇다하야, 옥황으로꽃씨를어더서
 삼월삼종일에오색꽃을오방에심으니
 <조선무속의 연구-명진국생불할망본푸리>

- ㉕ 외곽으론 토성 둘러 성안에는 별충당을 무엇구나
 할마님 궁안에 지국하고, 밧껏엔 구덕삼성 걸레삼성
 업게삼성을 거느려오던 할마님은 놀고잡서 [좋다]
 할마님은 해영 사천공원에 아방궁에 문지소를 마련하고
 또 혼 궁엔 포태법을 마련하여 / 북소리 당상 두에 궁에 옷을 씌와근에
 <한생소 本-삼승할망본풀이>

- ㉖ 서천꽃 질(西天花路)이 근당하여 오는구나. 서천꽃밭이 어찌도며 돌아보
 자. [樂舞. 신갈로 젓상 위의 꽃을 건드리고] 서천꽃밭 돌아아보니 군왕지
 기(君王之地) 조은 땅이 잇었고나. 이삼스월 즈지어남(진한 안개) 탕천
 (撐天)하듯 땅 속으로 짐(짐)이 풍풍 올람구나. [사설] 우리 하르방이나
 묻으카? [昌] 아명하여도 꽃 싱그는 게 조을로고나. 서천꽃밭 데다끄자(뛰
 자-만들자). [樂舞] 데다깼더니 수듬(거름) 줄 만 흐구나.
 <불도 맛이 가운데 “꽃 타러 듬” 부분-제주도무속자료사전>

위의 자료는, 삼승할망이 따뜻한 극락땅, 혹은 생불땅인 명진국에 있는 석가
 산에 옥황에게 꽃씨를 받아 심었다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서
 천꽃밭은 인간세상에 있는 석가산, 혹은 극락땅인 아요산(‘아미산?’), 청룡산,
 웅천금신산 등의 커다란 산(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안개가 피

어오르는 그 주위에는 성곽을 둘렀는데,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으로 구별되며, 내성 안에는 열 두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며, 이층 계단이 있는 팔(八)자 모양의 집을 지어 삼승할망의 일을 여러모로 보조하는 업계할망(보살), 구덕(애기)할망(보살), 절레할망(보살)등을 거느리고, 그 집을 지나면 불법을 펴는 堂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절을 하는 절집(절배당)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선반위의 은으로 된 대야에 꽃을 심어 놓고는, 삼승할망이 옥색의 창을 두르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은으로 만든 대야에 꽃을 심어 놓았다는 데에 있다. 은대야를 가지고 ‘꽃밭’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어색하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은대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서 더 찾아 볼 수 있다.

㉠ 두 할마님 앞대래, 꽃사발을 난와드려라. <풍속무음-구할망본>

㉡ 너네덜 이리 오라 은동이 놋동이 주서리 남동이에 / 이레 물을 하나씩 주커메 이 물 알들에 비와그네 / 이 물을 다시 은동으로 담양보라. 그 물을 / 알뜰에 비완 담는게 명전대왕 따님애긴 그 물을 그릇들에 오못 땅땅 부어난 / 동이용궁 돌쨏뜰애기 비온 물은 어느 동안 / 땅 알래레 숨어버련·담을 수가 없고 / 너네덜 이제랑 꽃씨 한 방울씨 주커메 이 꽃씨 심거수둑 주고 물 주어 키와보랜 허난 <고대중 本 - 삼승할망본풀이>

㉢ 삼신할망과구삼신할망을위하야 / 은대야에꽃들을심으시고 / 이꽃이번성하는대로생불하라하시니 <조선무속의 연구>

㉣ 서천꽃밭 수둑 주니 꽃씨 들일만 흐는구나. 정소남칭(丁小男들) 불러다 은동이에 꽃씨 타당 서천꽃밭 꽃씨 들이자. (중략) 궁예청(宮女들) 시네청(侍女들) 불러당 은대야에 물 떠당 서천꽃밭디 물주레 가자.

<불도 맞이 가운데 “꽃 타러 듬” 부분-제주도무속자료사전>

위의 ㉑~㉔과 같이 은사발, 또는 은대야는 구삼승할망과 삼승할망과의 ‘꽃피우기 내기’에 등장하는 신물인 것이다. 그리고, 화분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꽃에 물을 주기 위한 그릇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은(銀)으로 된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야겠다. 이는 <김쌍돌이 本>에서도 나타난다. <창세가>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가 각각 금쟁반과 은쟁반에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금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남성으로, 은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여성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때, 금쟁반과 은쟁반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쟁반’은 다른 무가에서나, 비나리의 사설에서 흔히 고귀함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오히려 현존 무속의례나 사제계승에서 중시되던 명도로 가정할 수 있다. 명도에 흔히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새기는 것으로 보아서 금쟁반과 은쟁반은 명도의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고, 금쟁반과 은쟁반이 일월의 상징체라 여겨진다. 즉, 인간의 기원이 일월에 있다고 하는 매개적 상징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되, 여성성의 발현으로 인한 달의 이미지를 본따서 은대야, 은쟁반 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은으로 된 그릇에 꽃을 피우는 일은 여성에게 자손을 내리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삼승할망이 옥황에서 꽃씨를 받아 꽃밭을 가꾸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꽃은 은대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공본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사가 보인다.

㉑ 저어- 서천꽃밭 뿔로 / 실금실짝 나 오라나 가는구나.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㉒ 사라도령은 한락동일 / 꽃벌딜 드란 간
꽃을 탕(따) 주는구나.

(중략)

한락동인 꽃밭을 나오란

<조흥대 本-이공본>

㉔ 꽃감관 사라도령은 / 아들 한락궁일 드란 간

서천꽃밭 꽃귀경을 시겨 주명

꽃을 탕 주는구나.

<고산옹 本-이공본>

㉕ 서천꽃밭이 어찌도며 돌아보자. [樂舞. 신칼로 젓상 위의 꽃을 건드리고]
서천꽃밭 돌아아보니 군왕지기(君王之地) 조은 땅이 잇었고나. 이삼스월
즈지어남(진한 안개) 텡천(撐天)하듯 땅 속으로 짐(짐)이 풍풍 올람구나.
[사설] 우리 하르방이나 묻으카? [昌] 아명하여도 꽃 싱그는 게 조을로고
나. 서천꽃밭 데다끄자(닭자-만들자). [樂舞] 데다깎더니 수둑(거름) 줄 만
하구나. <불도 맞이 가운데 “꽃 타러 듨” 부분-제주도무속자료사전>

㉖ 설운 아바님아, 꽃밭디 꽃이라도 구경시겨줍서. 디려가미 사라도령고 신산
만산 할락궁이허고 서천꽃밭에 소곡소곡 들어간다.

<이공본풀이 - 한생소 本>

㉗ 서천꽃밭의 들어가고 번승꽃과 환승꽃... (하략)

<이공본풀이 - 고대중 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밭은 ‘땅’에 있으며, 꽃밭 사이로 꽃길이 있는, 우
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꽃밭’이나 ‘뒷동산’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려
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매옥 本>등에서 언급한 은대야에 꽃을 심었두었다
는 부분은 꽃피우는 내기 장면에서 탈락된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여
겨진다. 즉, 최초 꽃피우기 내기에서 은대야에 심었던 꽃으로 생불을 내리고
다니던 중, ㉔과 같은 극락지가 있어, 그 곳에 다시 꽃밭을 조성하게 된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은대야에 심어 놓은 꽃은 사만오천육백가지가 사방으로 뻗
어 그 꽃으로 생불을 내리고 다니면서, 다른 꽃씨들을 옥황에서 얻어온 것이
다.

이쯤에서 꽃밭의 진정한 공간적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세상에 있는 석가산이나, 극락땅인 아요산(아미산), 청룡산, 웅천금신산 등의 커다란 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무난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또 있다. 즉,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꽃밭의 위치와 <이공본풀이>에서의 위치는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 나을,그집오로,대령가서,뵈아기,이백양,나몸에,백양,삼백양을,받아서, 팔고저
승오로드리갑서
(중략)
원앙부인은,치어마자,죽었다.혼으로,아덜,저승가는길을,가리쳐고나
〈풍속무음-이공본〉
- ㉡ 널랑 금시상(인간세상)에 내려가라
〈이공본풀이 - 고대중 本〉
- ㉢ 금시상으로나갓다가다시오리다하고
〈조선무속의 연구〉
- ㉣ 그영호연 사라도령은
한락둥이ㄱ라, 말을 호되,
“느가 이심에 넘어가민...”
〈조흥대 本-이공본〉
- ㉤ 어머님을 살려근 / 저승드레 이워몸으로 보내라 / (중략) / 어머님아 어
머님아 헤아 / 저승으와 유무어명으로 들어갑서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즉, 서천꽃밭은 저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금순 本>에서는 직접적으로 저승으로 가서 유모가 되라고 청유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공본풀이>에서만 저승으로 나타날 뿐,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석해산 맹진국 대감님집이 강
옥황이서 맹진국 애길
불림수댕

<김매옥 本-맹진국할망본>

즉, 맹진국은 이승에 존재하며 또한 맹진국 안에 석가산이 있다는 것이다.

㉠ 석해산 석해대왕이우다.

<김매옥 本-맹진국할망본>

㉡ 삼싱아방 석해대왕

<김해옥 本-할망본>

㉢ 삼싱아방은세계대왕

<조선무속의 연구-명진국생불할망본푸리>

㉣ 생각 끝에 명진대왕 따님애기 불러다

<이정자 本-삼승할망본풀이>

㉤ 명진대왕님, 딸하나을인간생불할망오로, 나리오소서

<풍속무음-구할망본>

㉥ 옥황서불법 할마님은 옥황상제 따님 애기롭서

<제주도 큰 굿 자료>

㉦ 할마님은 옥황상제 명진국이 따님으롭서

<한생소 本-삼승할망본풀이>

㉧ 맹진국 대감은 옥황이서 호는 맹영이라 못홀쿠댕도 못호고...

<김매옥 本-맹진국할망본>

㉨ 옥황상제 대명왕이 임수를 제겼수다. 대명왕이 분부를 주되,

“금시상에 도느려 인간 생불을 주라.”

“그영 호겠수다.”

<김해옥 本-할망본>

또한, ㉠과 ㉡에서 맹진국 대감은 ‘석가산 석가대왕’이다. 그러므로, ㉠과 ㉡의 자료에 의하면, ‘석가산’은 ‘맹진국’에 있어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그냥, ‘맹진국 대왕’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맹진국’이 옥황상제이므로 삼승할망이 옥황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맹진국 대왕(혹은 맹진국 대감)이 석가라면, 석가산이라는 지명과 맞아 떨어지므로 석가산에 꽃밭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이공본풀이>과 <삼승할망본풀이>가 동일한 공간의 서천꽃밭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승으로 돌아드는 한락궁이의 모양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석가산이 아니라 삼승할망이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를 만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석가산을 방문하고, 그 후에 저승 어딘가의 극락땅에 꽃밭을 조성하였다는 것도 사사 전개상 어색하다. 만약, 삼승할망이 옥황의 딸이라면 석가산은 자연스럽게 저승의 공간이 되겠지만, <삼승할망본풀이>의 전체 서사 줄거리에 맞추어 보면 삼승할망이 옥황의 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다음에서 인용문을 다시 한번 살펴 보자.

㉠ 고장씨 은씨를 내여주난

맹진국에긴

스월초파일날로

석해산을 느려오고

아바지 어머님께

선신문안을 드렸수다

기영호연 이젠

이충경 팔제집을 짓어단에

<김매옥 本-맹진국할망본>

㉡ 생불땅 석해산에

무쇠금당으로 토성을 돌르고

누룩으론 내성을 돌르고

열두 지옥문을 심고 /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으고 /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 ㉔ 팔푼이지춘화추동따뜻한 / 극락땅이있소이다말을하니
삼신탈망이모든보살거느리고 / 아요산청룡산웅천금신산대산가운데
극락지를찾고보니극락지분명하야
청모람람그는후에, 숙석으로테를닥그고
서천꽃밭을설시하라하되 <조선무속의 연구-명진국생불할망본푸리>

인용문에서 보면, 옥황에서 꽃씨를 타 가지고 내려와, 석가산이나 (혹은 극락땅이라 불리우는 어떠한 커다란 산), 그 산의 아래쪽 어딘가에 성을 둘러 꽃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㉕의 자료에서는 사월 초파일에 석해산에 와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그 다음 서천꽃밭을 만드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어디에’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 여러 추측을 낳게 한다. 즉, 위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삼승할망이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를 만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석가산을 방문하고, 그 후에 저승 어딘가의 극락땅에 꽃밭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석가산으로 돌아가 먼저 인사를 한 다음 그 곳에 꽃밭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㉖의 자료는 분명한 목소리로 ‘생불땅 석해산’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이 자료에서 보면, 서천꽃밭은 저승의 공간이 아닌 생불땅이 되는 것이다.

㉗은 석해산(석가산)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 ‘극락지’라는 지명이 나온다. 서천꽃밭이 ‘극락지’라 하였을 때, 이 극락지가 이승의 공간인지, 아니면 저승의 공간인지를 가늠할 근거는 없다. 이승엔 ‘극락지’가 없다는 근거를 본 연구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만큼 본고에서는 ‘극락지’라는 막연한 단서로 저승이나 이승 중 어떠한 곳에 꽃밭이 조성되었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한편,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 꽃밭을 표현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활죽을 빠아사두고 부엌새 죽은 것은 **검정승집**이 서천꽃밭데레 던졌더러니..
〈고대중 本-세경본풀이〉

㉡ 사름 살리는 꽃을 죄다 개껴들러서 **물**을 **들러타고** 환디를 내흔들르면서..
〈고대중 本-세경본풀이〉

㉢ 즈청빈 부엌새 아전 **알[下]엿** **ㅁ**을 황세곤간⁵⁶⁾ 서천꽃밭디 부엌새 데껴
두고 맹암 혼 장을 드렸더니..
〈안사인 本-세경본풀이〉

㉣ 즈청비는 **알[下]엿** **넉** 서천꽃밭[西天花田]디 들어가 따시[又] 서천꽃밭 도
환생꽃[還生花]을 타단 죽은 낭군을 살려두고 나오더니..
〈안사인 本-세경본풀이〉

㉤ 즈청비가 이 발을 들고 **알엿** **넉**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꺼아전 천
제국(天子國)나라에 등리간 보니,
〈안사인 本-세경본풀이〉

㉥ 서천꽃밭의 **들려들어** 씬 오를 꽃..
〈고대중 本-문전본풀이〉

㉦ **곽새**가나라가다가 / 천금대우,소고기포육 /
열두포육을떠서,**내등에**타안즈면 / 서천꽃밭디가서
도환생꽃을구하여올소잇다하니/ 적은동생이포육을뜨고**곽새등에**타니
하는말이,갈때여섯,올때여섯 / 내가올때마다표육하낫식입에너어드라
그리하면갓다올수잇다하야
서천꽃밭디가서도환생꽃을구하고 / 도라와서
〈朝鮮巫俗의 研究-문전본풀리〉

㉧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 올라가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타다가...

56) 서천꽃밭의 주재신(主宰神)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을 말한다.

㉔~㉕의 <안사인 本-세경본풀이> 자료에서는 서천꽃밭이 아랫마을, 아랫녘 등의 인간세상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㉗의 자료도, ‘짐정승네 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안사인 本>의 개념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㉙의 자료 역시, 이승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왕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편, ㉚의 <朝鮮巫俗의 研究> 자료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구분지을 수 있을만한 단서는 없으나,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상상의 새(괭새)가 등장하고 있다. 서천꽃밭은 <세경본풀이>의 서천꽃밭과는 달리 커다란 새를 타고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멀고 먼 거리임을 표시한다. ㉛의 자료인 <안사인 本-문전본풀이>에서는 일곱 형제 모두 서천꽃밭에 올라갔다는 축약된 서사가 보인다.

한편, <안락국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치적 언급이 나온다.

㉑ 과거적의석가세존이삼천제조를거느리시고상주설법호옵시는데량의우담바
라화와연화를속속이심어두시고즐기시더니... <안락국전-국립도서관소장
본>

㉒ 슬프도다서역국꽃밭슈레호을인시쥬결납화쥬바라문의나히십오세라
<안락국전-국립도서관소장본>

<안락국전>에서는 서역국의 도량에서 우담바라화(花)와 연화(蓮花)를 석가세존이 키우고 있다. 서역국의 도량은 바로 꽃밭이며, 서천꽃밭을 말한다. 한편, <기림사연기문>과 『월인석보』 제8의 자료에서는 범마라국을 동쪽에 비정하여 그곳에 기림사의 전신인 임정사가 있고 광유성인이 그곳에서 교화를 하며, 꽃밭과 우물이 그곳에 있다고 서술된다. 여기에서 사라수대왕이 다스리

고 있던 서천국은 인도를 말하는데⁵⁷⁾, 여기에서 꽃밭은 서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마라국에 있는 것이다. 조흥윤은 기림사가 창건된 당시 신라 선덕여왕 때 사람들은 신라를 범천으로 믿어왔었던 것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안락국전>에서는 원래 신라 경주에 설정되어 있던 꽃밭 상상계가 거꾸로 서역국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공본풀이>와 꽃밭 상상계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⁵⁸⁾. 그러나, <안락국전>에서는 <안락국태자경>에는 없던 신화소인 주인공이 죽은 어머니를 다시 되살려내는 서사가 등장하는 만큼, 오히려 그러한 주술력이 깃든 꽃이 존재하는 지역은 이승의 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승이 아닌 신비의 공간이 적합하므로 그러한 위치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수자는 하늘에서 얻어 온 꽃씨를 석해산에 심고 서천꽃밭을 만들었다고 하였다⁵⁹⁾. 이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이승’의 공간이라는 뜻과 통한다. 그렇다면,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수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저승의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희는 <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꽃을 나누어 의미를 살폈는데, <삼승할망본풀이>의 생불꽃과 <이공본풀이>의 (수레멜망)악심꽃으로 나누어 전자는 순수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지모신적 능력으로 피워낼 수 있는 꽃으로 보고, 여기서 꽃밭은 자연적인 인간 생명력의 기원이라 하였다. 한편, <이공본풀이>의 (수레멜망)악심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징벌의 꽃이므로 이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무가의 병존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⁶⁰⁾. 그리고, 두 신화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후, 두 신화간의 유사성은 <이공본풀이>가 변화한 역사적 조건에 맞추어 <할망본풀이>의 신화적 관념을 계승한 데 기인하였다고 하였다⁶¹⁾.

57) 조흥윤, 앞의 책, 22쪽.

58) 조흥윤, 앞의 책, 23~25쪽

59) 이수자, 「삼신 신앙의 기원과 성격」, 『민요·무가·탈춤 연구』, 태학사, 1998년, 362쪽.

60) 정진희, 위의 논문, 193쪽.

위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서천꽃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낙원과 같은 이미지로 드러난다. 그곳이 이승 혹은 저승의 공간인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의 공간이건, 저승의 공간이건 간에 서천꽃밭은 우리의 상상체계 안에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삼승할망의 서천꽃밭을 창조과정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삼승할망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하여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고 다니는 위치를 획득한다.

㉡ 생불꽃으로 생불을 내리고 다니기 위하여 서천꽃밭을 만들려 하나, 꽃씨가 없자 옥황에서 꽃씨를 얻어온다.

㉢ 얻어온 꽃씨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고 먼 낙원에 심는다. 그리고, 그곳에 범접하기는 쉽지 않다.

㉣ 그 꽃밭을 중심으로 둘레에는 성을 쌓고 안쪽에는당을 만들어 두었다.

㉤ 그곳에 피어나는 꽃으로 생불을 내리고 다닌다.

3.2.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

<이공본풀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천꽃밭을 감독하는 꽃감관을 찬양

61) 정진희, 위의 논문, 196쪽.

하는 무가이다. <이공본풀이>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생불꽃 類의 꽃들 외에 본격적으로 꽃감관의 본을 푸는 무가인 만큼 서천꽃밭에 피어나는 갖가지 주술적 능력을 부여받은 꽃⁶²⁾들이 등장하며, 그것들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 사용하고 난 이후의 효과 등등이 잘 드러난다. 또한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위임되면서 부인인 원강아미와 함께 떠나는 중간의 노정과 한락궁이의 탄생 후, 계속되는 고난과 갈등 같은 많은 서사들 속에서 서천꽃밭의 거리공간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장에서는 <이공본풀이>의 각 구연자 별(口演者 別) 자료⁶³⁾들에 나타난 노정에 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3.2.1. 원강아미의 노정

제일 처음에, 살펴 볼 부분은, <이공본풀이>에서 서천꽃감관으로 가는 사라도령의 모습이다. 부부가 되어 같이 살다가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임명되는 장면에서부터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 저심선 서천꽃밭 꽃감관질로 오랜 흐연 가게 되는데...
<조홀대 本-이공본>
- ㉡ 서천 꽃밭디선 “짐정국 아들 사라국 사라도령이 서천꽃밭딜로 오랑
 꽃을 직하라.” 연통이 오랏구나. 연통이 초번 오라, 이번 오라, 제삼
 번을 오라도 가질 안흐연 앗안 신디...
<고산옹 本-이공본>
- ㉢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살레 가게 돼여간다. 원강암이 원강도령이 서천
 꽃밭으로 올라갈 때...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 ㉣ 옥황에서편지가왔는데

62) 주화(呪花)로 약칭 한다.

63) 이하 “각편(各編)”이라 부른다.

김진국생원은꽃감관을하라하니

김생원이서천꽃밭으로꽃감관으로갈때에...

<朝鮮巫俗의 研究>

- ㉔ 사라도령을 꽃강관 꽃생인 살려오랜 옥황이서 전갈이 느립대다. 사라도령이 꽃강관 살레가저...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 ㉕ 우리는 서천서약국에서사래도령을잡아오라하면오아습내다...(중략)...

그리인사를하고나가자하니...

<풍속무음>

- ㉖ 저 서천꽃밭 꽃감상 살래 소곡소곡 올라간다.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 ㉗ 원강아미가 유태(有胎)를 가져 아기는 태독 2찌 벤 때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살레가게 돼여간다.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위의 인용문은 본고에서 참고한 <이공본풀이>의 각편(各編)들에서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부분들이다. 사라도령은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느닷없이 저승, 옥황, 또는 서천꽃밭에서 통보를 받는다.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는, ㉔의 자료처럼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㉑·㉒·㉓의 자료처럼 전갈을 보내거나, ㉕의 자료처럼 차사가 직접 마중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㉖·㉗·㉘의 자료처럼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그냥 꽃감관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서사도 있다. 스스로 험난한 길을 떠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편지나 전갈, 혹은 직접 차사가 데리러 오는 경우의 서사가 생략되어진 자료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보다 풍부한 서사를 보여주는 <안락국전>에서는 석가 세존의 명을 받은 승열바라문이 사라수대왕에게 인결림을 오는 대목⁶⁴⁾도 있다.

64) 쇼승을귀국의드려보니여인결림하야다가...(하략)<國立圖書館本 안락국전>

한편, ㉔·㉕·㉖·㉗의 자료(<현금순 本>, <고대중 本>, <안사인 本>, <朝鮮巫俗의 研究>)에서는 편지 혹은 전갈(傳囑)을 보냈는데, 이를 접한 사라도령은 아무런 갈등도 없이 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朝鮮巫俗의 研究>에서 사라도령은 오히려 이별의 갈등 따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막새도부부가잇고,짐생도부부가잇는지라
나만홀로두고엇찌혼자감니까하니
그러면동행하자하야

<朝鮮巫俗의 研究>

이별의 갈등은 사라도령이 아닌 원강아미의 몫이다. <풍속무음>이나 <조홀대 本>, <고산옹 本>에서는 차사가 직접 찾아오는 서사가 살아 있고, 이에 원강아미의 갈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통보가 오자,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을 보내기 싫은 듯한 행태를 보인다. 즉, 원강아미가 물을 길기 위해 우물가에 갔다가 저승에서 사라도령을 데리러 온 삼차사(세명의 차사)가 사라도령이 사는 고을로 가는 길을 묻자 다른 길을 알려주어 따돌리는 것이다⁶⁵⁾. 이는 세 판본 모두 같다.

㉙ 저 쪽⁶⁶⁾ 질로 돌앙가명 보민 좇아집네다. <조홀대 本-이공본>

㉚ 애이구, 그 딴⁶⁷⁾ 가쟁흐민⁶⁸⁾ 머우다. 그 딴 가쟁흐민 저영⁶⁹⁾ 가사
홉네다⁷⁰⁾. <고산옹 本-이공본>

65) 여기서는 이공본풀이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속임수”가 첫번째로 등장한다고 본다.
이 속임수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 보이겠다.

66) 쪽

67) 그 곳은

68) 가자고 하면

69) 저리

70) 가셔야 합니다.

㉔ 그사람사는마을아님내다. 요재넘고저재넘어가보십서 <풍속무음>

원강아미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사를 따돌렸다고 남편에게 고백하자 사라도령은 (차사를) 데려오지 그랬냐고 하면서 아무려면 잘 길이 아니냐고 나무란다.

㉕ 부인 그개 외한말이요. 나 갓튼 거 다리래 멀고 먼 곳에서 온 사자를 소
기다하니. / 지음 매던 호미를 던져두고 하는 말이, 부인 집에 가서 주안
상을 차리고 기다리시요. <풍속무음>

㉖ 체스님이 오는데 아니갈 수가 심네깁? <고산옹 本-이공본>

㉗ 아맹호민 아니갈 질이우파? <조홀대 本-이공본>

<풍속무음>, <고산옹 本>, <조홀대 本> 모두 한 순간에 체념한 듯,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고산옹 本>에서는 세 번이나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었으나, 차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애가 타는 부인과는 상반하여 담담하게 따라갈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사라도령에게 있어 이별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아닌 듯 하다. 이는 각편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자, 원강아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㉘ 애이구, 이게 미신 말이우파. 체사님이 오민 밥이라도 해여 놓아사
호쟁 호민 쏘이라도 꾸어와사 흘 게 아니우파. <조홀대 本-이공본>

㉙ 애이구, 도령님아! 오민 징심식스나 호영 놓아사 흘 거 아니웃광?
징심쑤이나 빗질 시간 벌젠 다른 디레 보내엿쑤다.

- ㉔ 사례국에서당신을다려가자고삼채사가내려오았습니다. 어디도망을가
나. 녹두남아래한맷틀수무나하소서 <풍속무음>

즉, 차사를 대접할 쌀을 빌어 올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는 대답인 것이다. 이 대답은 남편을 잡으러 오는 차사를 다른 곳에 보낸 이유로는 합당치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원강아미의 진의는 차사를 속여 그냥 돌려 보내기 위함이었으며, 사라도령의 의외의 대꾸에는 대접을 위해 그렇게 하였다고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입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이별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들을 감당하여야 하는 신격(神格)의 입장이지만, 그에 반하여 아무런 부름도 받지 못한 원강아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은 신(神)의 자격(資格)이 있는 존재만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원강아미는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나, 문도령, <문전본풀이>의 아들들 또한 서천꽃밭에 연관되어 신격을 획득한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서천꽃밭에 들어가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방문을 하고 있고 주화의 힘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보아, 잠재적인 신격으로서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원강아미는 후일 죽음을 맞기 전까지는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신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두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되, 사라도령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즉 신격(神格)이 신성(神性)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당위적 이유로 너무도 쉽게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한편, 부부가 길을 함께 떠나게 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 몸은 가지마는 나 마음은 당신 것에 항상 이슬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시요./
그리 인사를 하고 나가자 하니 원앙부인이 다리를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면
서 하는 말이 / 당신 업는 새상을 저 혼채 살 수 업썸내다. 저도 갖지 대
리고 갑서. / 천 번을 부탁하곡 만 번을 부탁하여도 나 혼채마는 못살겠
수다. / 아모리하여도 가겠수다. / 그리하건 짐을 청기시요. <풍속무음>

㉡ 가막새도부부가잇고, 짐생도부부가잇는지라
나만홀로두고엇찌혼자감니까하니
그러면동행하자하야 <朝鮮巫俗의 研究>

㉢ 원강암이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올라갈 때...<안사인 本-이공본풀이>

㉣ 월광아미 말을 흐되 「나도 곶이 가오리다」
「걸라근 그리하라」 하시고
내외간이 출려아전 나구갈때에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 체스광 혼디 서천꽃밭덜 가는디,
체스님은 앞이 나산 가분다.
사라도령은 부인광 둘이 / 가는디, <고산옹 本-이공본>

㉥ “게민 불쌍하구나 곶이 글라”⁷¹⁾
사라도령광 원강암이 부배간은
곶이 나산 가는디 <조홀대 本-이공본>

이처럼, 각 판본들에서 꽃밭으로의 동행길은 두 가지로 나뉜다. ㉠, ㉡(<풍속무음>, <朝鮮巫俗의 研究>)에서처럼 사라도령은 부인을 놔두고 혼자 길을 떠나려 하나, 부인이 같이 가자고 애원하여 결국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

71) 그러면 불쌍하구나. 같이 걸어라.

모습과, 나머지 ㉔, ㉕, ㉖, ㉗의 자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행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월인석보 제8 <상절부>⁷²⁾와 국립중앙박물관본 <안락국전>⁷³⁾에서의 관련 상황을 살펴 보겠다. 왜냐하면, 다음의 자료에서는 길을 떠남에 앞서 주인공들의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절부> 및 <안락국전>은 원문 자료이다⁷⁴⁾.

- ㉔ 그러나 혼디 혼녀고로 헤여 혼던 내 四百夫人이 前生因緣으로 나를 조차 살
어든 오느론 버리고 가릴 씨므스 물슬허우노이다 駕鵞夫人이든 좁고 比
丘씩녕로더 내 몸도 좇즈바 𠵿 짜힌가 𠵿 짜힌가 比丘 1 닐오더 아래가
신 八姝女도 니거시니 므스기 찢보리잇고 夫人이 닐오더 그러커든나도
大王되스바 比丘 좇자바가리이다 王이 夫人스 말드르시고 깃거느소
사나라 홀아스 맞디시고 부인과 혼샤⁷⁵⁾... <상절부>

- ㉕ 텍일 혼야길 흘쳐나니 부인을 불러 닐어샤더 부인은 몸도 비지안코 만니타
국의 길도 험악 혼죽 못갈거시니 예서 켜등이나 직히 여겨시면 서로 만날 때
잇스오리다 혼신더 부인이 통곡 혼샤니 욕도록 말숨을 못 혼시다가 다시 여
즈오더 대왕님아 만니타 국의가 신후늘을 바라며 놀노의탁 혼고 살나 혼시
느니 잇가 혼시고 혼가지로 가스이다 간청 혼온더 대왕도 흘일 업시스 부인
과 화주를 드리시고 썩나시니 만묘빅관과 빅성이 통곡 혼고 팔아들오다가
하딕 혼고...⁷⁶⁾ <안락국전>

72) 이하, <상절부>

73) 이하 <안락국전>

74)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출판부, 2000. 81~87쪽, 121~132쪽

75) 그러나 한편 생각컨대 내 사백 부인이 전생인연으로 나를 좇아 사는데 오늘 버리고
가려 하니 마음이 슬퍼 읍니다. 원앙부인이 듣고 비구에게 이르대, 내 몸도 좇아갈 땅
입니까, 못갈 땅입니까 비구가 이르대 전에 간 팔채녀도 가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
까 부인이 이르대 그렇거든 나도 대왕을 모시고 비구 좇아 가겠습니다. 왕이 부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더불어... (논자의 역주임)

76) 텍일을 하여 길을 떠나니 부인을 불러 말씀하시되, 부인은 몸도 비지 않고 만리타국
의 길도 험악한 죽 못갈 것이니, 여기서 대궐이나 지키고 계시면 서로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신대, 부인이 통곡하여 이욕도록 말숨을 못하시다가 다시 여쭙되, 대왕님
아 만리타국에 가신 후 누구를 바라며 누구에 의탁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시

서대석의 연구⁷⁷⁾에서 <이공본풀이>의 모체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는 <안락국전>은, 소설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문자로 정착되어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여 기존의 줄거리보다 위와 같이 풍부한 서사를 갖추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어 왔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위의 자료에서는 남편에게 함께 길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인의 모습이 <이공본풀이>보다는 비교적 잘 묘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무가는 그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상호간 차이를 보이므로 <안락국전>과 여러 판본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다른 판본들은 - 비록 많은 부분이 생략된 모습이기도 하나, <풍속무음>과 <朝鮮巫俗の研究>의 서사 부분이 누락된 채 전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서사 전체적 짜임새로 보아도 원강아미가 이별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절박한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인이 따라나서는 것을 만류하는 사라도령의 대화에서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 부인님아 부인님아 내가 저성 꽃감관으로 강 살게 되민 청홀 거니
살암십서.. 사라도령, <조홀대 本-이공본>

㉡ 가지 못홉네다, 가지 못흐매 살암시민 나만 갈쿠다.
사라도령, <조홀대 本-이공본>

㉢ 가질 못홉네다, 살암십서. 사라도령, <고산옹 本-이공본>

㉣ 에이구, 이거 미신 말이우짱, 나도 곶이 갈쿠다. 나만 시민 살이집네

고 한가지로 가십시다 간청한데, 대왕도 어쩔 수 없어 부인과 화주를 데리고 떠나시니, 만조 백관과 백성이 통곡하고 따라들 오다가 하직하고 이별하니 (논자의 역주임)
77) 서대석, 위의 논문.

까?

원강아미, <고산옹 本-이공본>

㉔ 이거 미신 말이? 살아도 같이 살꼭 죽어도 같이 죽을 거난 난 같이 갈कु다.
원강아미, <조홀대 本-이공본>

㉕ 아니우다. 난 죽으나 사나 같이 갈कु다.

원강아미, <고산옹 本-이공본>

㉑~㉕에서는 저승으로 꽃감관을 살려 가되, 원강아미는 가질 못하니 혼자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강아미는 죽으나 사나 같이 가겠다는 오직 하나의 이유로 사라도령을 따라가려는 것이다.

㉑에서 보면, 서천꽃밭은 ‘저승’이라는 단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는 가야하는 곳인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저승, 다시 말하면, 원강아미가 살고 있는 이승과는 단절된 이미지의 지역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이공본풀이>에서 추가적으로 서천꽃밭은 이승이 아닌 저승의 공간이라는 단서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㉑ 그 애기들 중에서도 인간이서 낫사발에 밥먹단 애긴 죽영 와도 낫사발로...
<고산옹 本-이공본>

㉒ 나을그집오로대령가서뻔아기이백양, 나몸에백양, 삼백양을받아서팔고 저승오로드러갑서.
<풍속무음>

㉓ 저승길을어서가소서작별하자하니추승갓은눈물이... <풍속무음>

㉔ 금시상으로나갓다가다시오리다하고 <조선무속의 연구>

㉕ 널랑 금시상에 내려가라. <고대중 本-이공본>

㉠ 짐을청기면무엇에쏟내가.빈손에잡시다.

<풍속무음>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서천꽃밭이 저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승길은 생인(生人)으로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꽃감관이 되려면은 이승과는 교통할 수 없는 공간인 저승에 가야하며, 저승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사랑하신 나 부인아, 어서 나 몸은 가지마는 나 마음은 당신 곁에 항상 이슬 터이니 그리알고 계시요. 그리 인사를 하고 나가자하니, 원앙부인이 다리를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 업는 새상을 저 혼채 살 수 업썅내다. 저도 갖지 대리고 갑서. 천번을 부탁하곡 만번을 부탁하여도 나 혼채마는 못살갓수다. 아모리 하여도 가갓수다. 그리하건 짐을 청기시요. 짐을 청기면 무엇에 썅내가. **빈 손에 잡시다.** 걸랑 그리하소서. 이밤저밤 새여 두 사람이 나고간다. **저승길이 어딴고..** <풍속무음>

㉢ 쇠몽둥이로 웃둑짓팡을 내후리난, 사라도령은 그만 **죤미치고**, 부인 원강암인, “애이구! 체스님아 살려줍서.” <조홀대 本-이공본>

㉣ 죤을 자쟁흔는디, 밤중 야삼경은 되여가난 사라도령은 **무정눈에 죤이 들고** 원강암인 혼자 앓아... <조홀대本-이공본>

㉤ 체스님은 쇠몽둥이로 사라도령 웃둑지팡을 몰록 내부찌난 사라도령은 **뽏기 앙몰아지여, 아망지망 죤미쳐불고**, 부인, 원강암인 “애이구 삼체스님아 살려줍서” <고산옹 本-이공본>

㉡의 경우, 사라도령은 부인에게 사랑하고 있음을 유언(遺言)처럼 고백한다. 그러자, 원강아미는 곡(哭)을 하며, 빈 손으로 저승길을 같이 가라고 한다. ㉢과 ㉣의 경우, 차사가 점심식사를 대접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사라도령을 쇠몽둥이로 어깨죽지를 때리는데, 사라도령은 기절을 하게 된다. 이때, 원강아미는 차사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 ㉔은, 사라도령과 함께 길을 떠나 억새를 묶어 유숙(留宿)을 하는 상황인데, 원강아미가 마치 죽은 사라도령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아닌 신(神)의 위치로의 상승을 말한다. 사라도령을 데려가기 위해 연통을 보내는 방법 중에, 편지를 보내던 차사를 시켜 말을 전하고 직접 데리고 가는 경우를 위에서 보였는데, 차사가 사라도령을 데리러 왔다는 것은 사라도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살아있는 원강아미는 죽은 자(鬼神)와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이별은 더욱 더 애절하되, 사라도령과의 동행 길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저승의 공간인 서천꽃밭이며, 그 곳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신격(神格)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자료들의 어디에도 죽어서 갔다는 말은 실려 있지 않지만, 원강아미가 사라도령을 임신한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라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승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꽃감관이 되기 위해 한번 그곳에 가게 되면 사라도령은 원강아미가 살고 있는 이승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원강아미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된다.

㉑ 질을 가단 가단 버천, 중간 꽃가운디서 즈낙 굶은 진밤을 담어염이서
어웁푸기 흐나를 어지흐연 줌을 자게... <조홀대 本-이공본>

㉒ 가는데, 가단 해가 떨어전, 밤이 되난 질해에 어웁폭이 혼폭이가 시
난 그 어웁폭일 어질 삼안 밤을 새는디,
(중략)
그리저리 어웁폭이 앓안어지 삼안 앓아시난... <고산옹 本-이공본>

㉓ 내외간이 출려아전 나구갈때에
가다가 월광아미가 발에는 발병이 나고
질에는 질병이 나서 갈 수가 없어지니 해는 일락서산이

다 지어가니 인간체도 못둥기고 할수없이
미여지 뺑뒤에 어욱폐기 하나이 있어져
소독을 줄라매고
내외간이 들어가고 그날 저녁 밤을 썰 때에... <고대중 本-이공본>

- ㉔ 갈때에길이멀고멀어서, 가다바도또남으니
김생원부인이발병이나고, 촌보를움기지못하니
산중에서류숙하고가기로하야
산중에자다가날이밝아가니... <朝鮮巫俗의 研究>

- ㉕ 밤도 이밤 저밤 야삼경이 되어지고
가다보난 어욱폐기 하나 앓았고낭야. 어욱폐기 이시나네...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 ㉖ 이밤저밤새여두사람이나고간다. 저승길이어디인고. 원앙이내. 내외간
이서경넙은들에서도라다나다보니춤고배고푸고... (중략) ... 그리하와
어욱떨기 하나 봉간 어욱 의지하여 노고 밤을 새여가니,,,
<풍속무음>

생인(生人)인 원강아미가 신격(神格) 존재인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가는 것은 이승의 길이 끝나는 곳까지이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천체현상(天體現想)은 이승의 모습이다. 또한 숲이나 억새포기들이 자라고 있는 곳 또한 이승의 모습이다. 원강아미는 죽은 사라도령을 송별하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가는 길은, 밤새 걸어가도 끝이 나지 않을 만큼 멀고도 고단한 거리이다. 넓은 들이나 혹은 산중에서 유숙(留宿)을 해야 하는 처지도 그 길이 힘든 길임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원강아미와 함께 걸어갔던 이승 공간의 노정은 자료에서는 어욱푸기(억새포기)가 있는 숲, 들판, 혹은 길가의 모습이 전부이다. 이는 당시의 시골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분명, 가는 중간에는 논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우물가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날이 밝자 사라도령과의 동행은 끝나게 된다. 더 이상은 사라도령을 따

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이다.

㉠ 발에 발병이 나고 질에 질병이 나서 갈 수가 없읍내다.

<고대중 本-이공본>

㉡ 나 발을 바라여 봄서. 이갓지 앞서서 따라갈 수 업썸내다.

발을 들어보니 발은 콩구슬갓지 부어노코 피가 이어나는고나 <풍속무음>

㉢ 암만이라도 난 질이 버천, 발이 붕물고 갈 수가 엇썸다.

<조홀대 本-이공본>

㉣ 아맹호여도 난 이젠 발이 붕물고 건질 못호쿠다.

<고산옹 本-이공본>

자료에는 임신한 몸으로 너무 힘이 들고 발이 부어 더 이상 길을 떠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차마 배넷 태아(胎兒) 때문에 라도 따라 죽지 못하고 사별의 슬픔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를 천년장제네 집에 팔아 두고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그 중에서 <고산옹 本>에서는 부인을 두고 떠나가는 사라도령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딜로 가는게

혼자국은 앞테레 내클민

두자국은 뒤테레 물러스명

서천꽃밭 들어간다.

<고산옹 本-이공본>

한편, 혼자 길을 떠나는 사라도령의 노정은 각편들에는 모두 나타나 있지 않는다. 위의 <고산옹 本>만 보더라도 그냥 서천꽃밭에 들어간다는 약식 서술만이 등장하고 있다. 사라도령은, <이공본풀이>의 이공신(二供神)인 서천꽃밭의 꽃감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강아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도령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공본풀이>에서의 주인공은 차후 등장할 한락궁이이며, 원강아미는 한락궁이의 모체가기 때문이다. 또한, 신격(神格)인 사라도령에게는 후일 길을 나설 한락궁이 처럼 거리상의 장애나 혹은 방해자가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원강아미의 노정은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을 향하던 중, 재인장자네 집까지 가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그 다음에는 원강아미의 아들인 한락궁이가 못간 길을 대신하여 떠나게 된다.

3.2.2. 한락궁이의 노정

이 장에서는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의 모습을 한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락궁이는 아버지가 없으므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적을 물어본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려주지 않다가 한락궁이의 꾀에 속아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그 이후로 한락궁이는 장자의 집에서 도망갈 틈을 엿보아 결국 일이 없는 한가한 날을 골라 아버지를 찾아 도망을 치게 된다. 여기서부터 한락궁이의 노정이 시작이 된다. 재인장자는 한락궁이가 도망간 것을 알고 ‘천리통’과 ‘만리통’이라 불리우는 충견(忠犬)을 불러 그 뒤를 쫓아가 물어오게 한다.

- ㉠ 천리통아, 신산만산 한락궁일 물영오라 죽여볼게 이제 간들 천리 더 가시냐? (중략) 아! 그놈으즈속 천릴 더 갔구나. 이번이랑 만리통아, 만리 더 가시라 <고산옹 本-이공본>

- ㉠ 천리통은 한락동이 조름에 조차가단, (중략)
그 새엔 또 만리를 넘어가고 <조홀대 本-이공본>
- ㉡ 범벅이나 한덩이씩 먹어라. 먹었던니 예가 밋삭 말아서 천리동이
만리동이는 죽어불고 한낙공은 서천꽃밭 아바지 차지래 향하여다.
<풍속무음>
- ㉢ 물먹으래 가본이간에는 천리만이 만리만이 가진다.
<고대중 本-이공본>
- ㉣ 본메본천 느 아정(不明) 천리땅도 넘어간다. 다 내돌앙 돌아가난야
아던 - 저이야 (중략) 천리땅도 넘어간다./ 만리땅도 넘어간다.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 ㉤ 푯다리에들러싸고, 천릿길을 가니 (중략) 그틈에할락궁이억만리길
을가니 <조선무속의 연구>
- ㉥ 모뭇핍벅 혼 뎡이 먹는 틈에 천릿질(千里路)을 뛰고 간다. 또 혼
뎡이 잡아데껴 먹는 틈에 만릿질(萬里路)을 뛰고 간다. 또 혼 뎡이
잡아데껴 먹는 틈에 수만리(數萬里)를 지나가고,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이렇듯, 한락궁이는 특별히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 만든 떡(혹은 범벅)을
주고 그 개들이 물을 먹으러 간 사이에 “그곳”을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천리통(천리동이)과 만리통(만리동이)는 본고에서 참고한 모든 자료들에 모
두 등장하고 있다. 이름에 ‘천리’, ‘만리’ 라는 거리를 이르는 단위명사가 나
오는데, 이는 처음에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상당한 거리를 걸어 온 재인장
자네 집에서 서천꽃밭은 멀고도 먼 거리임을 뜻한다. 그러나 한락궁이는
원강아미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천리동이, 만리

등이의 추격을 짚 범벅을 먹이는 기지를 보여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이다.

재인장자의 충견(忠犬)들의 추격을 벗어난 한락궁이는 이승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승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한락궁이의 앞에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 그디 점쟁이가 앓안 “느 어디레 감디? 한락등이가 아니냐?”

“예, 기우다. 부친님을 찾으레 가는 중이우다.” <조홀대 本-이공본>

㉡ 원앙부인은 치어 마자 죽었다. 혼오로 아덜 저승가는 길을 가리쳐고나.

<풍속무음>

㉢ 가단 보난야 큰 대맹이⁷⁸⁾가 누엇구낭 실금실금 이어가난다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 그때헌집고치는데잇스니 (중략)

가마귀일곱머리울엄거늘 (중략)

삼신녀가울고있으니

<朝鮮巫俗의 研究>

㉤ (재인장자의 충견들이) 물먹으레 가는 순간에 신산만산 할락궁인 서천

꽃밭에 들어가는구나~

<한생소 本-이공본풀이>

가는 중간에 만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보답으로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받는다. 다만 ㉤의 <한생소 本>에서는 재인장자의 충견들이 물을 먹으러 가는 순간에 서천꽃밭에 들어간다고만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최운영은 ‘구복여행’의 자료를 통해 그 서사단락을 분류하였는데⁷⁹⁾, 그의 분류 중, 주인공이 타계에 도착하여 계시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78) ‘이무기’

79) 최운영, 「<구복여행> 설화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교육적 의미」, 건국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02. 12~31쪽.

서 <이공본풀이>는 ‘구복여행’의 서사를 닮아 있다. 한락궁이가 타계인 저승 및 서천꽃밭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점장이를 만나거나(조홀대 本), 이무기와, 집 짓는 사람들과, 새를 만나고, 선녀를 만나(조선무속의 연구) 도움을 준 대가로 서천꽃밭까지 가는 길을 물어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목적지인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만나는 것으로 한락궁이의 첫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제인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려 내고, 세 번째 문제인 사악한 재인장자를 징치(懲治)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됨으로써, 신성(神性)을 지닌 인물로 안착(安着)하여 세 식구가 상봉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락궁이는 사라도령을 찾아 서천꽃밭으로 가는 중간 중간에 발등까지 차는 물, 등에 차는 물, 목에 차는 물을 건너게 된다.

㉠ 이젠 그딜 넘어가는 게, 물이 애개기에 떤,
물 가운데 보단 배낭기 시연, 이젠 그 배낭 우티 올라왔안...
〈고산옹 本-이공본〉

㉡ 가당 봐라, 독ㄹ립에 물이 뜨리라. 돌아상 브래지말앙 가라. 또 가당 보민 즈금태기에 물이 뜨리라. 또 가당 보민 준둥이에 물이 뜨리라.”
〈조홀대 本-이공본〉

㉢ 가다보니 발등친 물이 있어진다
가다보니 준둥친 물이 있어진다
가다보니 야개친 물이 있어진다.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 가단 보난예 -
발등 뜰물 있구나 예-
발등 뜰물 넘고 간다.
가단 보나네

으허어 존동 뜰물 넘어나 가는구나
가단 보나네
모가지 뜰물 있구나 헤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 ㉔ 가당보면발똥뜰물이잇고
적음턱이뜰물이있으니넘어가라하니

<朝鮮巫俗의 研究>

- ㉕ 가단보난 독막립 친 물이 잇어져 그 물 넘어가고, 가단보난 존동
친 물이 션 그 물 넘어가고 가단보난 목 친 물이 잇어전 그 물 넘
어가난 서천꽃밭이 근당(近當) 혼다.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물은 인간의 심리적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낳는다. 그리고, 물은 모든 대상을 한 곳에 집합시키고 조화 있게 결합시켜, 다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작용을 갖는다. 물은 부상(浮上)과 수몰(水沒)을 통해 모든 것의 존재 가능성을 부여하는 원천(fons et origo)이다⁸⁰⁾. 그러므로 물은 원천으로서의 기원이며 모든 존재 가능성의 모태이다⁸¹⁾. 한락궁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구분하는 원천강이나 통천 앞바다와 같은 이미지의 원강아미의 다짐받던 눈물로 이루어진 물을 건너는 순간, 한락궁이는 인간세상에서의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락궁이가 신격(神格)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밭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한락궁이는 인간이 아닌 신격(神格)이 주어진 후이다.

부자상봉이 이어진 직후, 꽃감관이 한락궁이에게 오다가 만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

- ㉖ 너가 저승대래 오는 도중에 발등 찬 물 업던냐.
에 이습대다.

80) 이상일, 「변신 이야기」, 밀알, 1994. 60~61쪽.

81) 이상현, 「裴裨蔣傳의 根源說話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그거시 만년장재 식구덜안테 너의 모친초대 다짐바든 낭패물이다. 너가
올 적에 별경한 잔동 띄운 물 업더나. 그거시 너의 모친 다짐 바든 물
이다. 아흔아홉삼거리까지 매방석 모양오로 머리 헛혀진 녀인이 너의
앞에 거러가는 거를 못보더나.

한낙공이가 말을 하대 얼굴은 못보아도 나의 앞에 사서 거러가는 모습
이 아주 서창하여서 눈으로 참아 볼 수 업서도 그 사람 뒤를 밟작 뒤
따라서 아흔아홉 삼거리를 드러서니 눈뜨고 감는 새에 인간새계 쪽다래
향하여습내다.

그녀인이 너의 저승길을 가리쳐 두고 인간대래 향한 사람이 너의 모친
대는니라.

한낙공이는 이러사 발발 떨면서...

<풍속무음>

한락궁이의 아버지인 꽃감관 사라도령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꽃감관은 부인의 죽음을 두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꽃감관에게 있어 생사에 관련된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꽃감관은
원강아미와 재인장자가 살고 있는 인간세상의 인간들을 죽이거나 되살릴 수
있는 천부적(天賦的) 권능의 신(神)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꽃감관에게 어머니를 되살리고
장자 일족(一族)을 징치(懲治)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화를 받아들고 재인
장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 보겠다.

㉠ 주인 장자집에도라오고본즉...

<朝鮮巫俗의 研究>

㉡ ...장제칩일 오라시난...

<안사인 本—이공본>

㉢ (창) 아바님에 이별하고 소곡소곡 내려간다.

(사설) 신산만산 할락궁인 만연들어 만년장제 집에
재인들어 재인장제 집드레(집으로) 소곡소곡 들어간다.

<한생소 本-이공본풀이>

㉔ ... 실금실짝 집으로 돌아 오란에-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㉕ 한락궁인 꽃밭을 나오란

마귀할망칩이 들어간

“아이구 애야! 느 무사 오란디 천년장제칩이선 늘 죽이젠 오죽 햄시냐?”

“에 게건 그 집이 말줄뜰애길 이레 불러줍서.”

(중략)

“경합주마는 천년 만년 장제님을 혼변 대혀영 말이나 혀영 갈쿠다.” 혀명, 집안으로 들어간다.

<조홀대 本-이공본>

㉖ 할락궁인 아방 궂는냥 혀연, 청태국 마귀할망칩일 들어간,

아닐카,

“느 무사 오란디? 천년장제칩이선 늘 좇앙 죽이젠 혀염저, 혼저 돌아나불라.”

“경합주마는 천년장제칩 말궂뜰야길 이레 불러줍서.”

(중략)

할락궁인 말궂뜰이영 집으로 들어간...

<고산옹 本-이공본>

㉗ ... 금시상 내려오니 제인장제 집이 들어오니...

<고대중 本-이공본>

㉘ 한낙공이는 그 꽃을 가지고 만년장제 사는 동내에 내려오니...

<풍속무음-이공본>

이렇듯, 이승으로 넘어오는 길은 서사적으로 너무 간단한 일로 드러난다. 어머니를 살릴 꽃과 장자 일족을 죽일 꽃을 가진 한락궁이는 이미 신격의 존재가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앞서 거의 유일한 장애였던 먼 거리는 해소되어 버린 것이다. 한락궁이는 잠재적 신격(神格)을 벗어나 서천꽃밭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꽃을 사용할 수 있는 신(神)의 자격이 주어졌으며, 꽃감관의

대리인(代理人)의 자격으로 주화들 소유하고 있는 신격(神格)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처음에 사라도령이 원강아미를 재인장자네 집에 팔고 나서의 행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편, <상절부>와 <안락국전>에서의 노정을 살펴 보겠다.

- ㉠ 安樂國이 어마넛과 다시 숲고사긴느 촌란쁘리고逃亡호야梵摩羅國으로가
더니竹林國과梵摩羅國과두나랏스시예큰ㄴㄹ미이쇼더비업거술조차
바니다가忽然히싱각하야답동세무슬어더씩로어울워미야프레씩오고
그우회올아안자호늙고비삽오디내眞實入ㅁㅁㅁ로아바님보습고져호
거든ㅁㅁ미부러더ㄴ새건내쇼서호고슴掌호야 往生揭를외온대自然히
ㅁㅁ미부러몹ㄴ새건내부치니고梵摩羅國짜히러라그답도으란ㄴ세지
혀미오 林淨寺로가는ㅁㅁ디에대수히이쇼디⁸²⁾... <상절부>

- ㉡ ① 대왕님과 화궐부인과 하디호고왕생계를 외오면서 서역국을 여러 날 가
다가 통천바다가의 ㄴ다르니 스공이 배를 등대하엿거늘 그 배의 오르니
만경창파를 순식간의 건너가니라⁸³⁾.
- ② 가만이다라나 통천바다가의 다닷거늘 급히 건너고즈호나비가 업는디
라 할 일 업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호디 하늘은 안락국이 부왕을 만나 부조
상면호게호여주소서호고 셧터니 문득 옥더소리 들니 거늘 하도 반가와
...(중략)... 문득 옥더소리 들니며 바다 흘러나오는 듯히 가는 지라 잇새장
지 안락국을 츠즈넛도도망호고 업거늘 목동을 불너 안락국 간 곳 줄 츠즈
살펴보라호니 목동이는 천니를 보니 뵈지 아니호느니라 브동이 다려보

82) 인용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석문을 덧붙인다.

「뒤에 안락국이 어마넛에게 다시 여쭙고 새긴 얼굴은 싸고 도망하여 범마라국으로 가더니, 죽림국과 범마라국 두 나라 사이에 큰 강이 있는데 배가 없기에 물가를 따라 오락가락하다가, 홀연히 생각하고 짚동 세 묶음을 얻어 띠로 어울려 매어 물에 띄우고 그 의에 올라앉아 하늘에 비는데, “내 진실한 마음으로 아바님 뵈고자 하거든 바람이 불어 저 가에 건네주소서”하고 함장하여 왕생계를 외우자 바람이 불어 물가에 건네붙이니 그곳이 범마라국 땅이더라. 그 짚동 일알 가에 의지하여 매어놓고 임정사로 가는 경계에 대숲이 있는데...」

83) 대왕님과 화궐부가 부인에게 하직하고 왕생계를 외우면서 서역국을 여러 날 가다가 통천바닷가에 다다르니, 사공이 배를 등대하엿거늘, 그 배에 오르니 만경창파를 순식간에 건너가니라.

라흐니저괴가느니다흐고쫓츠가기는흐나비는선인의도력으로가는
바살닷듯흐는디라엇디지하부동의힘으로잡으리오⁸⁴⁾...

<안락국전>

<안락국전>이나, <상절부>의 자료에서는 <이공본>의 세 번의 물⁸⁵⁾ 대신, 통천강(통천바다)이라는 커다란 물이 그 경계가 되어 나타난다. 그 강은 배를 타고 건너야만 하는데, 배가 없자 짚을 묶어 만든 짚등을 타고 왕생계의 힘을 빌어 바람을 타고 그 강을 건너게 된다. 도강(渡江)에 있어 짚등을 타고 바람을 붙게 하는 안락국(安樂國)은 일반인이 아닌 신격(神格)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락국전>에서는 사공이 모는 배가 등장하는데, 안락국(安樂國)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배는 만경창파를 순식간에 건너간다는 것이다. 이 역시, 범인(凡人)의 배로 여겨지기에는 어려우며, 이런 안락국 역시 이미 신격(神格)을 가진 인물이라 하겠다.

다음은 서천꽃밭에 다다라서 보이는 풍경들을 살펴 보겠다.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근처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자상봉의 열쇠를 찾게 된다.

㉠ 어떠한 이 꽃밭디 물을 주어봐도 꽃이 울엄시니? <조홀대 本-이공본>

㉡ 느, 여봐라, 꽃에 물을 주어봐도 어땡흐난 꽃이 한길 탄으 울꽃이 되염시니?
<고산옹 本-이공본>

84) 가만히 달아나 통천 바닷가에 다다랐거늘, 급히 건너고자 하나 배가 없는지라, 어쩔 수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대 “하늘은 안락국이 부왕을 만나 부자 상면하게 해주소서”하고섰더니, 문득 옥저소리 들리거늘 (중략) 이때 장자가 안락국을 찾으니 또 도망하고 없거늘, 목등을 불러 안락국 간 곳을 찾아 살펴보라 하니 목동이는 천리를 보니 보이지 아니하니라. 부동이더러 보라 하니, “저기 갑니다.” 하고 쫓아가기는 하나 배는 선인의 도력으로 가는바 살 달리듯 하는지라 어찌 지하(地下) 부동의 힘으로 잡으리오.

85) 발목 차는 물, 등에 차는 물, 목에 차는 물

갑자기 꽃밭의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이다. 꽃감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꽃들이 싱싱하게 피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그런데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는 한락궁이가 꽃밭에 뿌려 줄 물을 걷는 곳에 당도하여 자신의 피를 물에 섞고 있었기 때문이다.

㉕ 수양버들가지를 꺾어서 한낙궁이는 손가락을 찢으로 자지피를 내와서
그물에래 방울방울 떠리지우니 (중략) 그물을 떠다가 솟에 주니 솟은
유은솟이 되여고나. <풍속무음>

㉖ 즈지피(紫朱血)를 삼식방울 연못데레 털어지우난 부정이 만히여 연못
이 좇아진다.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㉗ 하늘옥황 삼천궁에 애기씨들이 물 이으랭 오라
물을 잉어가니 쉬영청버들남에 올라듬서로
상손가락에 피를 짜고 물동이래레 떨어지와부니
삼천궁예들이 말을 흐되 「어떤 무드릭 총각놈이
쉬영청보들남 우이 안장듬서로
상손가락 피를 짜놓와부니
검유을꽃이 땀네다.」

<고대중 本-이공본>

한락궁이는 물가에 서 있는 청버드나무(조홀대 本) 혹은 배나무(고산옹 本) 위에 올라가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물 위에 방울방울 떨어트린 것이다. 한락궁이의 피로 인하여, 꽃에 줄 물은 부정한 물이 된다. 이러한 물을 뿌려준 꽃들은 모두 시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맑고 순수한 물이라야만 꽃밭의 꽃들

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천꽃밭의 꽃들 또한 한 점의 부정함이 없이 순수한 꽃들로 인식이 된다.

또한, 그 꽃들에 물을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순수한 인물로 등장을 한다. 꽃감관의 감독 아래에서 꽃에 물을 길는 시동(侍童)들이 있는 것이다.

㉠ 광청못가에 안자 놀명 살펴보니 서천꽃밭으로 적은 아동드리 아오아 광청못물을 쓰고 가다가 사발이 떨어져서 우는 아해가 이스니 <풍속무음>

㉡ 가단 보난 야 요거 보라야 부젓집 애기덜은

놋사발에 밥주던 애기들은 야

물로 강 서천꽃밭에 물을 주며 헤~엔

반들반들 좋아지곡야

거난헌 애기덜은

사기발에 밥주던 애기들은 야-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한락궁이가 피를 내어 부정하게 한 그 물은 애기들이 각자의 살아 생전에 밥을 담아 먹던 그릇으로 물을 퍼다가 꽃밭에 주는 물이었다. 즉, 물을 주는 애기들은 15세 이전에 죽은 나이 어린 혼령이다.

꽃밭에 물을 주는 사람은 나이 어린 애기들이다. 즉, 꽃에 주는 물도 물이거니와 그 물을 길는 사람도 물과 똑같이 순수한 인물이라야 한다. 그 애기들은 생전에 밥 먹던 그릇으로 물을 퍼서 꽃밭에 물을 주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꽃들을 관리하는 꽃감관은 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인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꽃감관인 사라도령이 처음에 꽃감관으로 뽑히게 되는 이유를 살펴 보겠다.

꽃이번성할대로, 인간의 생불을주시다가
 집에도라가부리면,꽃을꺼거버리는자잇서서
 옥황께꽃감관을원하니,지부왕을불러서
 적당한인간이잇느냐무르시니
 금시상땅의김정국아들
 동과남상주절수록드려나온인간이잇사온대
 세상나온후에죽몽도췌지은일이없어서
 행실이암전하오니,적당한인물이웨다

<풍속무음>

위의 자료는 <풍속무음>에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자료에서 보면, 삼승할망은 꽃씨를 하늘에서 받아다가 꽃밭을 만들고, 꽃이 피어 오르자, 그 꽃으로 인간에게 생불을 점지하고 다녔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쉬고 있을 때면 꽃밭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꽃을 해하는 지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꽃밭을 지키는 사람으로 김정국의 아들 - 사라도령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사라도령은 동과남상주 절(寺)에 수록불공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이후, 조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행실이 암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일을 옥황은 맡겼던 것이다.

이처럼, 주화(呪花)들은 그의 생육에 있어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가 퍼다 주는 순수하고 깨끗한 정수(淨水)로써 자라나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개입되면 안되는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인 것이다. 이는 각 주화들에 대한 신성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부정의 종류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잠시, <세경본풀이>를 보면,

㉠ 주인이 대경하야,객을청하야

자기집에근간밤중에,요망시러새가울면

후원에화초가다-시드러가니

<세경본풀이 - 조선무속의 연구>

- 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의 이 밤 저 밤 뉘민 부엌새가 뭇
 팥돌에 앓앙 들어가민 우리 집안 송엄 주고 서천꽃밭 뉘망을 주옵네다.
 그 부엌새 맞혀 주민 우리 집의 사위를 삼으리다.

<세경본풀이 - 안사인 本⁸⁶⁾>

- ㉕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집이는 올래에 탕저나무 우에
 부엌새가 나서 혼번을 부엌새민 열두송엄을 드리고
 열두부슬 드리고 이러는 부엌새가 하나 있습니다.
 맞쳐주옵소서. 말갓똥애기 자원 사위를 들와들이이다.

<세경본풀이 - 고대중 本>

<세경본풀이>에서는 부엌새가 날아들어 울기에 꽃들이 시들어가므로 꽃감
 관인 황세곤간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부엌새가 날아들어 우는
 것은 한락궁이가 물에 피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부정이다. 그럼으로 부정
 을 없애주는 자를 사위로까지 맞을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
 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자료상의 모든 부분과
 함께 <이공본풀이>의 등장인물에 대한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이 중, 원강아
 미와 한락궁이가 이승부터 서천꽃밭으로 가는 노정을 따라 자료상에 나타난
 그 공간적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㉑ <이공본풀이>의 서천 꽃밭은 이승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저승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 ㉒ 인간 세상(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살던 곳)에서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먼 길이다.

86) 한국고전문학전집 196-259쪽, 제주도무속지(Ⅰ) 315-364쪽

- ㉔ 가는 길 중간에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다. 이는 옛날 농촌과 산촌의 모습들로 여겨진다.
- ㉕ 그 곳을 지나 가다가 보면 들판(혹은 산) 옆에 재인장자네 집이 있다.
- ㉖ 재인 장자의 집을 지나서도 만리 이상의 먼 길을 가야 한다.
- ㉗ 가는 중간에는 물⁸⁷⁾(강, 바다)이 있으며, 이를 건너야 한다.
- ㉘ 중간 중간에 점장이나, 이무기, 집짓는 사람, 빨래하는 여인, 까마귀, 선녀 등을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은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 ㉙ 아흔아홉 삼거리, 혹은 서천서역국에 다다르면 나무(靑버드나무, 배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다.

87) 발목까지 차는 물, 등까지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

4. 서천꽃밭의 의미

여기서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의 가장 중요한 화소인 각종 주화를 통한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서천꽃밭은 각종 주술력이 깃든 꽃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화들을 살펴 보는 것은 서천꽃밭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주화들이 그 기능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공본풀이>와 생불꽃이 중심인 <삼승할망본풀이>의 ‘꽃피우기 내기’ 화소, 그리고 <안락국전>의 주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4.1. <이공본풀이>의 呪花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다다른 후,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인 서천꽃감관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주며 서천꽃밭에 한락궁이를 데리고 들어가 어머니를 부활시킬 주화와 장자 일족을 벌줄 주화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때,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을 둘러 보게 되나, 서천꽃밭의 모습에 대한 묘사나 서술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의 초점이 되는 주화들의 능력들에만 집중이 된다. 한편, 서천꽃밭을 돌아보는 데에서 한락궁이는 꽃감관 몰래 어머니를 살릴 꽃과 장자의 일족을 징치할 꽃을 채집해 가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 반대로 꽃감관이 한락궁이에게 먼저 꽃을 주어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락궁이가 꽃감관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어머니 환생꽃을 내여주소서.

<풍속무음>

㉡ 오독뚝기 꺼꺼나간, 꺼꺼가난

꽃생인 곁는 말이

오독뚝기 꺼꺼가난에

아바님에 이별하고 소곡소곡 내려간다.

<한생소 本-이공본풀이>

㉔ 꽃감관이 ㄱ리치는냥 / 할락궁인 그 고장을 댄 타난 / 말자인 종냥회추릴
 흥나 / 흥연 주멍... <고산옹 本-이공본>

㉕ 꽃밭딜 드란 간 / 꽃을 탕 주는구나 <조홀대 本-이공본>

㉖ 꺾여들고 땀망악심 수록꽃을 꺾여들고 허야...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㉗ 모두 아장 야 영허고 웃는꽃야 씹는꽃 죽는꽃
 다 혀여줍서
 어서결랑 기영허라 내여주난에-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㉘ 나을 인간세계래 보내여 주소서. 어머니을 초흔 이흔 삼흔씨여서 저승대
 래 살여 모사오개습내다. 그리하고 만년 장재 일가족은 원수를 갇하두고
 오개습내다. 어머니 환생꽃을 내여주소서. (중략) 꽃을 내여줍내다....
 <풍속무음>

<고산옹 本>과 <조홀대 本>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에서는 한락궁이가 스스로 먼저 복수와 어머니의 환생을 위하여 꽃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락궁이는 여러 주화들을 보는 순간 이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듯 적극적이다. 꽃을 사용하여 어머니를 살리고, 장자 일족을 징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환생과 징치의 신(神)으로서의 등극을 원하고 있는 듯 하다. 사라도령의 경우, 환생과 징치의 이미지 보다는 꽃을 가꾸는 화신(花神)의 모습이 강한 반면, 한락궁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행동을 앞세운 신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 정진희도 한락궁이에게 신적 능력을 부여한 사라도령은 천상 세계에 몰려서 있는 ‘숨은 신’적 면모를, 한락궁이는 그 신을 계승하여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하는 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⁸⁾.

88) 정진희, 앞의 논문, 189쪽

한편, 서천꽃밭에 피어나는 주화들은 여러 종류이다. 한락궁이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꽃은 물론이고, 장자 일족을 징치할 때 사용하는 꽃들은 오히려 환생의 꽃보다 더 신비롭게 느껴진다.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꽃이 그것이다. 서천꽃밭의 꽃으로, 화를 내거나, 웃거나, 싸우는 등의 인간의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상상력 때문이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신화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이 웃거나, 울거나, 여러 감정이 들 때, 지금 자신의 옆에 서천꽃밭의 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믿음은 서천꽃밭이 민중에 있어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다가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다음의 인용문을 통하여 서천꽃밭에 피어나는 꽃들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 보겠다.

㉠ 도환생꽃,웃음웃는꽃,싸움하는꽃

악심하야떨망하는꽃일일이꺼거노코

<중략>

생불꽃, 환생꽃, 유을꽃차지하며...

<조선무속의 연구>

㉡ ㉢ ㉠ 「꽃 타래 듭」⁸⁹⁾

<서천꽃밭에 물주기>

(사설) 이 꽃은 무신 꽃이우파? 이거는 피 올를 꽃이여.

이 꽃은 무신 꽃이우파? 허난 술 올를 꽃이여.

이 꽃은 무신 꽃이펜 해난에 빼 올를 꽃이엔 허난에

(중략)

이거 무신 꽃이우파? 수레떨망꽃이엔 허난 <한생소本-이공본풀이>

㉢ “요건 팡오를 꽃이여, / 요건 솔오를 꽃이여,

89) 제주도 큰 굿 자료 :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강클굿 자료집,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불도맞이 삼입 자료로, <삼승할망본풀이>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자료임.

요건 오장육부 / 간담 거릴 꽃이여,
 요건 웃임웃일 꽃이여, / 요건 말ᄃ를 꽃이여,
 요건 금유울 꽃이여, / 요건 생불꽃이여,
 요건 불불을 꽃이여, / 요건 땀망꽃이여,
 요건 악심꽃이여.” / 꽃감관이 ᄃ리치는냥
 할락궁인 그 고장을 댈 타난
 말자인 종냥회추릴 하나 / 현 주명... <고산옹 本-이공본>

㉔ 췌우를 꽃, 솔오를 꽃. / 오장육부 기릴 꽃
 불불을 꽃, 땀망꽃, 부제될 꽃, / 하근 꽃을을 댈 탕주명
 죽냥 회추리도 하나 / 현 주는구나... <조홀대 本-이공본>

㉕ ... 서천꽃밭의 들어가고 번승꽃과 환승꽃,
 오장육부 생길 꽃, 말 굴을 꽃, 웃음웃을 꽃
 꺾여들고 땀망악심 수록꽃을 꺾여들고 허야...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㉖ 어머니아 피오르는 꽃 솔오르는 꽃 야 말굴는 꽃야 오독뚝허게 꺾어놓나
 헤아
 (중략)
 모두 아장 야 영허고 웃는꽃야 씹는꽃 죽는꽃
 다 허여줍서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㉗ 어머니 환생꽃을 내여주소서. 사래도령이 열가지 꽃을 내여주면서 일곱가
 지꽃은 너의 어머니 살일꽃이요 새가지꽃은 만년장재내 원수 갑홀 꽃인
 대, <풍속무음>

<이공본풀이>에는 이렇듯 여러 가지의 능력을 지닌 꽃들에 대한 기능과 이
 름이 등장하고 있다. 주화의 이름은 곧 그 꽃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주화들을 가지고 한락궁이는 결국 장자의 일족을 모두 죽이고 어머니를 다시
 살려 내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락궁이가 이 꽃들을 사용하

여 장자 일족을 징치하는 모습을 살펴 보겠다. 꽃의 사용방법과 사용한 후의 반응, 그리고, 앞에서 빠진 또 다른 꽃 이름이 등장하는 등의 여러 모습들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 ㉠ 일가친척모인후에, 웃음꽃을 내여노으니
 사름마다웃음을참지못할때에
 싸움꽃을내여노니,서로서로쌈다가쌈고
 악심살인하는꽃을내여노으니,모다죽은후에<朝鮮巫俗의 研究-이공본푸리>

- ㉡ 경해난 수레멜망 악심꽃해연
 혼번을 뵈왔닥 지난 발딱허게 지난 수리멜망돼여간다.
 두 번을 혼들으난 니머리 나머지 허운대기 튼으멍들
 가웃아웃 지여간다.
 세 번을 혼드난 이제 수레멜망 해여간다. <한생소 本-이공본풀이>

- ㉢ 웃음웃을 꽃을 노았더니 환친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노았더니 싸움으로 벌어진다. 멜망꽃을 노았더니 삼당 웨당이 다 죽어간다.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 ㉣ 신산만산한락궁이가 챗자는 움음웃을꽃을 내여놓니
 제인장제 덩덜이 웃음을 웃어진다
 멜망악심수룩꽃을 놓니
 제인장제 덩덜이 모도 씨 멜망하는구나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 ㉤ 한락공이는 누린색꽃을 내여노니 만민이 배꼽이 끈어질 정도로 크게 우섯 내다. 재차 푸린색꽃을 내보이니, 용심이 나서 저절로 싸움을 하여감내다. 한락공이는 불근꽃, 푸린꽃을 외오일곱나다. 일곱 마조치며 혼들느니 칠하절명이 되엿다.
 <풍속무음-이공본>

- ㉥ 그 앞서서 한락등인 / 웃음꽃을 내여놓난
 다른 해삭해삭 웃어가난 / 멜망꽃을 내여놓난

몬딱 땔망흐연 죽어불었구나 / 그영흐연 한락등인
 천년장제치 큰땔애긴 / 가난홀꽃을 주고,
 셋땔애긴 땔망꽃을 주고, / 청태국 마귀할망은
 부제될 꽃 주고,

<조홀대 本-이공본>

㉡ 한락궁인 웃음웃일 꽃을 / 내여놓난

삼죽일룬이 몬 해삭해삭 / 배설이 그차지도록⁹⁰⁾ 웃어가난
 이젠 땔망꽃을 내여 놓난 / 몬 땔썰어지듯
 삼죽일룬이 몬 죽어가는구나.

(중략)

큰땔애기영 셋땔애긴 아오라가난 / 불불는 꽃을 내여놓난
 매딱 불불언 죽고...

<고산옹 本-이공본>

위의 인용문은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꽃의 이름과 사용하는 모습과 그의 반응들이다.

한락궁이는 장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선적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장자를 속여 그의 일족(一族)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된다. 그 다음에 서천꽃밭에서 가져간 꽃들을 사용하여 그 일족들을 모두 죽인다. 그 과정은 위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 ㉠, ㉡, ㉢, ㉣, ㉤, ㉥의 자료에서는 제일 처음에 웃음꽃을 ‘내여노으니’, ‘노았더니’, ‘내여놓니’, ‘내여노니’, ‘내여놓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게 된다. 이 웃음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배꼽이 끊어지거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심한 고통의 웃음이다. 한편, ㉣의 자료는 꽃의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 꽃의 색깔이 등장하는데,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꽃을 사용하며, 그 꽃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 ㉦, ㉧, ㉨, ㉩, ㉪의 자료에서는 싸움꽃을 놓게 된다. 그러자, 웃고 있던 사람들이 제각기 ‘용심’이 나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 ㉦의 <한생소本>에는 ‘수레땔망악심꽃’ 하나만을 사용하는데, 그 꽃을 한번 흔들고, 두번

90) 창자가 끊어지도록

흔들고, 세번 흔드는 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반응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꽃을 두 번째 흔들었을 때, 사람들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싸움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수레멜망악심꽃’이 등장한다. 이 꽃을 놓으면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

이후, ㉠과 ㉡의 자료에서는 따로 장자의 딸을 징치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의 자료에서는 첫째 딸에게는 가난하게 사는 꽃을 주고, 둘째 딸에게는 멸망꽃을 주고, 한락궁이를 도와 준 청태국 마귀할망에게는 부자가 될 꽃을 주는 것이다. ㉡의 자료에서는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불 붙는 꽃을 준다. 화형(火刑)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락궁이의 징벌은 가히 잔인하다 할 정도로 엄중하다. 조동일은 이를 “효행”의 관점에서 보았다⁹¹⁾. 어머니에 대한 효행을 다 하기 위하여 장자와 그의 일족을 죽였다는 것이다. 정진희는 단순히 죽은 어머니를 위한 효행의 관점에서라면 구태여 장자 일족을 몰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 살해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한락궁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대 집단의 대립구도로 보고 한락궁이가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나 위력을 조정하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⁹²⁾.

그러나, 한락궁이는 자신이 얻게 된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대한 잔인하게 장자 일족을 죽이는 것은 한락궁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꽃감관에게 받은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다. <풍속무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사래도령이 열가지 꽃을 내여주면서 일곱가지꽃은 너의 어머니 살일꽃이요 새가지꽃은 만년장재내 원수 갑홀 꽃인데, 말젓팔아기 하나란 엇던 일이 이서도 살여서 대러오너라고 단호단 꽃을 내여줌내다. <풍속무음-이공본>

9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101~102쪽.

92) 정진희, 위의 논문, 189쪽.

여기에서 사라도령은 만년장재(재인장자)네 원수를 갚되, 막내딸은 살려 오라고 당부를 하면서 장자를 벌 줄 꽃들을 건네는 것이다. 즉, 막내딸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말이다. 다른 판본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락궁이가 몰래 꽃을 훔쳤다 한들, 꽃감관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한락궁이가 꽃을 사용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허락했다는 것은 암묵적인 명령인 것이다. 한락궁이는 꽃감관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개인적인 자격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락궁이의 개인적인 효행이나 능력과시 등의 의도였다는 시각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겠다.

다음으로는 한락궁이가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는 장면을 보겠다.

㉠ 뻘오를꽃을너으니,뻘가서로연접하고
고기오를꽃을너으니,살피여을으고
피을으는꽃,오장육부생기는꽃너코
옥황께기도한후,물종남훼초리로세번치니 〈조선무속의 연구〉

㉡ 피오를 꽃이영, 솔오를 꽃,도환생꽃, 솔불일 뻘도질 꽃
(사설) 모아그네들 삼동냥 막댕이로들
(중략)
어머님 도환성 시겨줍센 해연 삼세번을 뉘다치난애...
〈한생소 本-이공본풀이〉

㉢ 어머님 뻘을 도리도리 몰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안사인 本-이공본풀이〉

㉣ 씬 오를 꽃 놓니 씬이 올라지고, 살 오를 꽃을 놓지 살 올라지니
오장육부 생길꽃, 샘백육십 저스혈 생길 꽃을 놓니,
말굴을 꽃 놓고, 웃음웃을 꽃을 놓니 병삭병삭 웃으며
아니 일어나는고. 송냥 막댕이를 짓거들러...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㉔ 살과 머리를 다 주서 모아노코 일곱가지 꽃을 모친 눈 자리에 노아서 어
머니을 살여노코... <풍속무음-이공본>

㉕ 팥우를 꽃, 솔오를꽃 / 오장육부 그릴 꽃
맨딱 죽어놓완 / 죽냥회추리로 삼시번을 / 했 후리난...
<조흔대 本-이공본>

㉖ 솔오를 꽃, 팥오를 꽃, 말ᄇ를 꽃, 숨설 꽃
오장육부 그릴 꽃을
든 죽어놓완,
죽냥회추리로 삼시번을
썰뜨리난... <고산옹 本-이공본>

이제 한락궁이가 사용하는 꽃은 죽음의 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
려낼 수 있는 생명의 꽃이다. 환생을 시키는 방법은, 우선 뼈를 맞추고, 살
이 오르게 하고, 오장육부가 생기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숨을 쉬게 한 다
음에 회초리로 때려 깜짝 놀라 깨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㉕의 <안사인 本>에
서는 도환생꽃을 놓는데, 도환생꽃이란, 위의 모든 꽃들의 통칭이 아닌가 한
다.

다음에서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모든 꽃들의 명칭과 능력에 관련한 분류를
정리해 보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생불에 관계	생불꽃
환생에 관계	(도)환생 꽃, 힘오를 꽃, 뼈 오를 꽃, 살(고기) 오를 꽃, 피 오를 꽃, 오장육부 오를 꽃, 말 가를 꽃, 숨설 꽃, 죽냥 회초리
징치에 관계	수레멜망악심꽃(죽는 꽃), 불 불을 꽃, (금)유을 꽃, 웃음웃을 꽃, 싸움할 꽃, 가난할 꽃
상급에 관계	부자될 꽃, 번승(번성할) 꽃

서천꽃밭에 자라는 꽃들은 <이공본풀이> 각 구연본의 자료에 의거하면, 모두 18종류이며, 각 주화들은 위의 표처럼 그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특히 생불꽃이나 부자될 꽃, 번승 꽃은 한락궁이가 장자를 징치하거나 어머니를 환생시키는데에 소용이 없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이공본풀이>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용도에 필요한 주화 외에도 무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꽃의 종류들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의 의식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과 화재가 나는 것, 그리고 밭의 곡식들이 시드는 것, 그리고 가난한 것이 제일 두려운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으며, 반면, 부자가 되거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조홀대 本>에서 장자의 막내 딸을 불러다 준 청태국 마귀할망에게 그 보답으로 부자될 꽃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웃음꽃을 징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한편, ‘(도)환생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힘오를 꽃, 뼈 오를 꽃, 살(고기) 오를 꽃, 피 오를 꽃, 오장육부 오를 꽃, 말 가를 꽃, 숨쉴 꽃, 족낭 회초리를 한번에 이르는 말인 듯 싶다.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살려 낸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는 다수의 판본에서는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풍속무음」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한락궁이는 오히려 최악의 길을 가게 된다. 우선, 「풍속무음」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서 한락궁이가 대를 이어 꽃감관이 되는 모습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다.

- ㉠ 원강암이가 저심 어명으로 / 들어산 그늘루고,
또 사라도령은 저심 아방이 / 되연, 살림을 하고
한락궁인 아방물림 흥연 / 꽃감관이 되난

그 법으로 금시상에 / 할으방이 살단 딴 아방이 살고
아방이 살단 딴 아들이 삼네다.

<조홀대 本-이공본>

- ㉠ 할락궁인 아방 앓아난 방석에 앓안, 꽃감관을 하고
사라국 사라대왕은 / 저싱 아방이 되고,
원강암인 저싱 어멍이 되옵네다.
그 법으로 금시상이 / 할아방 살단디 아방이 살고,
아방이 살단디 아들이 물리멍 / 츠츠 전대전손 홉네다.

<고산옹 本-이공본>

- ㉡ 나는사라서서천꽃밭대왕이되고 / 너는꽃감관이되라헤야
생불꽃,환생꽃,유을꽃차지하며 / 십오세전에죽은혼은
이꽃밭으로올라가게합니다 <朝鮮巫俗의 研究 上-이공본푸리>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에서 어린 아기들에게 밥과 물을 주는 ‘저승 어멍’이 되며, 한락궁이는 아버지가 앓아 있던 방석에 앓아서 꽃감관을 하고, 사라국 사라대왕은 ‘저승 아방’ 혹은 ‘서천꽃밭대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살던 데에는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데에는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유래담으로 끝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또 다른 판본에서는 사라도령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락궁이가 부모와 함께 서천꽃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 ㉢ 사라도령은 꽃감관 살고 신산만산한락궁이는
어머님을 살리고 모조간이 영광시럽게 삼디다. <고대중 本-이공본풀이>

- ㉣ “어머님아 어머님아 헤아
저승으와 유무어멍으로 들어갑서.”

“어서 절랑 기영허라 해야-”

<현금순 本-이공본풀이>

㉔ 어머니가 살아온다.

그 자리에 장제칫 죽은 딸아기 죽여두고 어멍국(母)을 인도허면 서천꽃
밭(西天花田)으로 들어가 그 때에 어머니 죽연 청대왓디 흑대왓(黑竹田)
디 청새삿디 데껴난 법으로 청대(靑竹)ㄴ든 청스룩 흑대 ㄴ든 흑스룩 열
두 풍문(十二風雲) 주는 법이외다.

<안사인 本-이공본>

저승 아방과 저승 어망은 말 자체로도 그 뜻이 깊다고 하겠다. 꽃에 물을
주는 애기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원강아미가 저승 어망이라 함과 사라도
령이 저승 아방이라는 위치는, 새로 꽃감관이 된 한락궁이의 - 친부모이므로
- 꽃감관 이상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공본풀이>는 Happy
Ending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풍속무음」에서 보이는 기
술은 다음과 같다.

구할망을 불러노코 당신도 늘근 몸에 자식 하나 필요하요. 나 자식 한
낙궁이를 당신의게 줄 거이니, 아미도령 채사로 대리고 다니면서 재민
공연 받으시요. 한낙궁아, 나영 삼승할망과 갓지살면서 할머니 부름씨을
잘 들고, 재민공연 받을때에는, 너의 성조성팬 외조 외팬 상을 갓지 받도
록 하여라. 신신부탁 하여두고, 사례대왕은 언제나 서천꽃밭감관으로
살고 계심내다. 난산국시여, 올임내다.

<풍속무음, 211쪽>

즉, 한락궁이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구삼승할망을 쫓아다니며 재민공
연(諸民功連)을 받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자의 일족을 정
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 것이다.

㉕ 말젓말아기 하나란 엇던 일이 이서도 살여서 대리 오너라 고단꽃을 내

여쭙내다...(중략)... 그 사이에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만년 장재 말젓
 딸도 죽여버리쿠다. 원앙부인 하는 말이, 설운 아기야, 말라. 그 말을 안
 듯고 말젓딸아기를 때려죽여 두고 어머니 읍서, 저승가게. 만년장재 말젓
 딸아기 차자 오라. 죽여부려습내다. 이거야 어던말이나. 줄일 필요가 있
 너냐. 그 아이는 항상 나를 보호하연는데 이미 죽여논 거 할수 업고
 나...(중략)... 사래대왕하는 말이...(중략)... 한낙공아, 너 이 놈 붙여
 막심한놈아. 부모말을 거역하고 만년장재 말젓딸아기를 살이고 오라 하
 였더니 나말을 거역한놈, 너는 나 젓에 살 수 업느니라.

<풍속무음, 207~210쪽>

장자의 막내 딸을 죽였다는 이유로 한락궁이는 버림을 받는 것인데 즉, 부
 여한 권한 이상의 힘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한락궁이는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꽃들을 사용하여 인간 세상에서 막강한 실력행사(實力行使)를 벌이
 면서도 그 권한을 남용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 권한을 준 상위의 지배자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막내 딸을 죽여버리는 것은 <안사인 本>에서도 벌어지는 사건
 이다. 그러나, <안사인 本>에서는 바로 뒤에 유래담이 붙어 한락궁이가 꽃감
 관으로 좌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은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판본들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풍속무음>의 자료
 는 흥미를 끈다.

「풍속무음⁹³⁾」은, 제주도 전승무가 일반본풀이와 교술무가, 당본풀이를 망
 라하여 정리해 놓은 필사본으로, 만들어진 시기와 체제를 보건대, 학문적 관
 심에서 이루어진 구전자료의 채록이 아니라, 무당의 학습서로 꾸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무가의 고태를 충실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모든 자료
 는 중복되지 않게 되어 있고, 그 순서도 정연하게 되어 있다. 무당은 기억에
 의존하는 학습방법을 택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처럼 글로 쓰인 학습서를 활
 용하는 방법이 제주도에서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풍속무음>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영인 간행한 바 있다. 이 때 현

93) 文彰憲, <風俗巫音>, 필사본, 1928(?)

용준이 이 책의 내력을 자세히 조사하여 해제를 쓴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자료가 실제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고, 수집자에 의하여 오랜 자료처럼 꾸며진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⁹⁴⁾.

<풍속무음>을 제외한 다른 판본들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데에 비해, <풍속무음>은 내용상의 차이를 약간씩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한락궁이의 장래 등에 관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용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정은 어렵다. 다른 판본에는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고로, 적어도 다른 판본들 보다 이른 시점에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면, 그 중간에 유실되었을 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2. ‘꽃 피우기 내기’의 주화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은 인간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꽃피우기 내기를 옥황의 제안으로 벌이게 된다.

- ㉠ 두 할마님 앞대래 꽃사발을 난와드려라. 난와드린 후에 눈도 감썩말고 직혀보개라. 수보살이 꽃사발을 난와드리니 옥황상재님이 말을 하대 인간을 태운 자는 꽃이 충도 안먹고 싱싱하여 열매가 열고 꽃이 에썩개 판다. 그래서 수보살을 정하고 살피더니 구할망 앞에 꽃이 아주 에썩개 피여고나. 명진대왕 딸임 꽃사발은 싹이 안나는고나. 구할망은 춤을 추면서 내가 인간차지할거로고나. 춤을 덜삭덜삭 명진대왕 딸님 사발꽃은 구할망 춤추는 사이에 연하개 나고 차차 이차 무성하여가는고나. 구할 앞에 꽃은 어느 사이에 충이 만히 이러 먹는고나.

<풍속무음-할망본>

94) 제주학 전자 도서관, (<http://chejuhak.new21.net/cyberlib/cont.php3?no=1065>)

㉔ 삼신할망과구삼신할망을위하여

은대야에꽃들을심으시고

이꽃이번성하는대로생불하라하시니

구삼신할망차지는처음에는꽃이성하다가

다음에유을고,삼신할망차지는

처음엔 약하다가다음에성하여

사만오천육백가지가변성하니

<조선무속의 연구-명진국할망본풀리>

꽃 피우기 내기에서 옥황에게 받은 꽃씨가 자라, 뿌리는 외뿌리에 사만 오천 육백가지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꽃이 피었는데, 각 방향에 따라 같은 나무에서 핀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달라진다. 그 꽃은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에 머리를 두는 방향을 잘 살펴 ‘장수/단명/부유/가난’ 하게 사는 꽃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에 난 여러 꽃은 환생꽃, 번성꽃, 창백꽃(병을 들게 하는 꽃) 등과, 북쪽 가지에 난 꽃은 단명(短命)하게 하기도 하여 구할망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주화도 피어 나는 등의 여러 종류의 기능들이 있는 것이다.

한편, 꽃 피우기 내기는, “창세신화”에서도 등장하는 화소이다. 내기의 승패는 꽃씨를 심어 꽃이 먼저 핀 쪽이나, 예쁘게 잘 핀 쪽이 승리를 거두어 인간 세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

㉕ 너와나와한房에서누어서,

모란꼬치모랑모랑피여서,

내무렵혜올나오면내歲月이오, 너무렵혜올라오면너歲月이라.

釋迦는盜賊心事를먹고반잠자고, 미력님은찬잠을자다.

미력님무렵우에, 무란꼬치피여올랏소아,

釋迦가中等사리로씩거다가,저무렵혜꼬졌다.

<김쌍돌이 本-創世歌>

㉔ 잠자기 내기쌍을 하여보자

미력님이 잠을 자니 미력님이 잠을 들면 눈을 뜨고 잠니다
 서가여래 잠을 자는데 피잠을 드러
 것눈은 감고 속눈을 뜨고 미력님이 자는것 보니
 미력님의 무르페야 청년화 백년화 오색년화 피어나서
 오면 가지 슬어지고 어떤 가지 활작 피고
 어떤 가지 봉오리를 매자낫네
 서가여래 무르페는 서리화⁹⁵⁾ 한 대 피엿구나

<전명수 本-創世歌>

이는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인데, 「인세차지경쟁」이라는 말은, 創世神과 創世以後의 人世를 차지하기 위해 創世神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神格의 대결양상을 지칭하는 造語이다. 이지영은 그의 책⁹⁶⁾에서 이를 지칭하기를 ‘諸神間의 치소차지 경쟁’이라 하였고, 서대석은 ‘주도권의 경쟁’이라고 하여 이것은 창세기조신화의 核心部位라고 하였다⁹⁷⁾. 또한 장주근은 이를 일러 ‘인세차지경쟁’이라고 하였으며⁹⁸⁾, 김현선 역시 ‘인세차지경쟁’이라 하여 이에 상당히 비중있는 의미를 부여하였다⁹⁹⁾.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신격이 다툼을 벌이는 것이 이 신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김현선은 이 신화소는 우리 민족의 신화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민족의 신화에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므로 비교신화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특히 류큐국의 신화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하는 방법까지도 재론할 필요를 말

95) 서리를 맞은 꽃이나 혹은 서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으로 본다면, 서리화라 함은, 미륵의 청년화나 백년화에 비하여 정 반대적으로 차별되는 하찮고 오히려 안좋은 꽃의 표현으로 본다.

96)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2000. p. 194. 참조

97) 서대석, 《구비문학》, <創世始祖神話의 意味와 變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98)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p. 69-71

99)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 68-73, 169-174. 참조

하고 있다¹⁰⁰⁾.

다음은,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내재되어 있는 자료 중, <삼승할망본풀이>를 제외한 중요 자료의 개황을 개괄한 도표이다.

구분	번호	자 료 명	구 연 자	전승지	채 록 자	자 료 출 처	발 표 일
무속 신화	1	창세가	김쌍돌이	함 흥	손 진 태	조선신가유편	1930
	2	창세가	전 명 수	강 계	손 진 태	신가정	1936.4
	3	생굿	강 춘 옥	함 흥	임석재 외	관북지방무가(추가편)	1966
	4	삼태자 풀이	정 운 학	평 양	임석재 외	관서지방무가	1966
	5	당고마기 노래	박 용 녀	강 룡	김 선 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1977
	6	당금아기①	최 음 전	영 해	최정여 외	동해안 무가	1976
	7	순산축원	권 순 녀	울 진	김 효 신	교육학논총	1977
	8	천지왕본		제주도	문 창 현	풍속무음	1929-45
	9	천지왕본풀이	박 봉 춘	서귀포	秋葉隆 외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10	천지왕본풀이	정 주 병	조 천	현 용 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구전 신화	11	유도와 불도	최 유 봉	남양주	조 회 응	구비문학대계 1-4	1981
	12	세 보살의 시합	박 동 준	월 성	조동일 외	구비문학대계 7-2	1980
	13	미륵보살과 석가모니불	박 상 근	군 위	최정여 외	구비문학대계 7-11	1983
	14	석가모니가 득도한 사연	이 일 창	밀 양	정상박 외	구비문학대계 8-8	1982
문헌 신화	15	주몽 신화				삼국유사	
신화	16	석탈해 신화				삼국유사	

(자료출처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위의 표에서 보면, 북부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의 신화소는 미륵과 석가간의 대결담으로 불교 신격의 명칭이 차용되어 있다. 반면에 제주도 지역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되어 있어 두 지역의 신격 명칭은 다르다. 또한, 실제 대결을 벌이는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대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꽃피우기’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표에서 나눈 세 구분 모두가 ‘꽃피우기’ 경쟁의 내용이 주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위의 자료의 내용은 「자료11(유도와 불도)」을 제외하면 미륵과 석가가 이 세상의 법을 차지하기 위하여 꽃피우기 경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11」 역시 다툼의 주체가

10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 135.

유도와 불도라고 되어 있을 따름이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헌선은 위 표의 문헌신화는 비록 꽃피우기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두 주체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이나 다툼에 개입되어 있는 속임수, 속임수의 결과로 얻은 패권은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보여주므로 그 신화적 변형과 의미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아주 요긴한 자료라고¹⁰¹⁾ 하였으며, 장주근도 역사적으로도 고주몽이나 석탈해 등 우리 문헌신화에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¹⁰²⁾ 김헌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즉, 애초의 창조자이며 보다 유능한 주역이 한결같이 보다 못한 者의 속임수를 알면서도 졌다고 물러난 것과, 석탈해가 몰래 호공의 집터에 솥과 솥돌들을 묻고 시비를 걸어서 그 집을 사취한 것 때문에 남해왕이 탈해의 슬기를 알고 만공주를 시집보냈다는 것, 주몽이 비류왕 송양에게 가서 거기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에, 활쏘기 내기와 비류의 鼓角 흠쳐오기, 썩은 나무 기둥으로 궁실 짓기, 주술로 홍수 내기 등으로 그 땅을 사취하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꽃피우기 내기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창세가>에서는 다만,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사술(邪術)로써 승자(勝者)와 패자(敗者)가 뒤바뀔데 반하여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그 가운데에 시합을 주관하는 상위의 신격이 끼어들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난 꽃은 승패만을 결정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꽃으로 삼승할망이 생불을 내리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즉, 내기에서 피어난 꽃으로 생불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4.3. <안락국전>의 주화

한편, <안락국전>과 <이공본풀이>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그러하며, 각 대비되는 등장인물이 하는 일도 일치한다. 즉, 사라수 대왕과 사라도령은 꽃밭 수리의 일을 하며 그 꽃

101)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 139. 참조.

102)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神話》, 집문당, 1998. p. 70-71 참조.

밭은 - <안락국전>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꽃만이 등장하지만 - 특별한 기능의 꽃들, 즉 생사여탈의 권능이 있는 꽃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원앙부인과 원강암이는 한락궁이와 안락국을 출산하고 살해를 당했다가 그 아들이 가져 온 꽃으로 인하여 환생한다. 또한 자현장자(재인장자)와 천년장자는 종으로 모자를 데리고 있다가 결국 그 어미를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며, 한락궁이와 안락국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 고생을 하다가 물을 건너 아버지와 상봉하고 그 어미를 다시 살려내어 아버지의 직능을 물려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관되는 상당 부분의 서사가 닮아 있으므로 <안락국전>의 꽃밭은 <이공본풀이>의 꽃밭과도 많이 닮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별본기림사사적>의 「사중고기」에는 안락국이 아버지를 만나고 성인을 알현할 때, 성인은 안락국에게 오세응화(五世應花)를 꺼내준다. 이어 각기 색(色)이 다른 그 꽃의 이름을 일러준다. 혈기(血氣), 골절(骨節), 피육(皮肉), 명전(命全), 능언(能言)이 그것인데, 죽은 사람의 뼈 위에 순서대로 그 꽃을 놓으면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각각 <이공본풀이>의 ‘피 오를 꽃’, ‘뼈 오를 꽃’, ‘살(고기) 오를 꽃’, ‘숨쉴 꽃’, ‘말 가를 꽃’과 대비된다. 또한 다른 꽃 이름도 등장한다.

- ㉠ 안락국이장즈의게척당흐시든전후스연을낫낫치다알외오니대왕이더욱슬프를
이기지못흐시며안락국을다리시고겨시던숙소처의드러가서수삼일후꽃세송
이를주시며네어마님을장지죽여실거시니죽인곳줄쳐져가서뼈를모화노코빅
년화로뼈스면뼈가제좌의니올거시오그제야벽년화로뼈스면살이될거시오그
제야홍년화로뼈스면숨을내쉴거시니완인이될거시니되시고오라¹⁰³⁾

(중략)

그제야맛초아노코빅년화로뼈스니뼈가네로운듯흐고또적년화로뼈스니살이

103) 안락국이 장자에게 책(責)을 다하시던 전후 사연을 낱낱이 다 아뢰니, 대왕이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며, 안락국을 데리고 계시던 숙소처에 들어가서 수삼 일 후 꽃 세 송이를 주시며 “네 어마님을 장자가 죽였을 것이니, 죽인 곳 찾아것 뼈를 모아 놓고 백련화(白蓮花)로 씻으면 뼈가 제자리에 이어질 것이고, 그제야 벽련화(碧蓮花)로 씻으면 살이 될 것이고, 그제야 홍련화(紅蓮花)로 씻으면 숨을 내쉴 것이니, 완인(完人)이 될 것이니 모시고 오라.”

위의 인용문은 <국립도서관 本-안락국전>이다. 자료에서는 어머니를 되살릴 세 송이의 꽃이 등장한다. 백년화, 벽련화, 홍련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차이가 날 뿐, 그 기능들은 각각 동일하다.

이러한 꽃들이 피어있는 꽃밭의 모습을 [부록3]의 자료를 참고하여 다시 살펴 보겠다. [부록3]은 기림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사라수탱화”이다. 이 탕화는 기림사 창건의 연기설화를 보여주는 특이한 불화이다. 경북 경주 군 양북면 호암리 숨月山 기슭에 있는 기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다. 643년(선덕여왕12) 천축국(天竺國)의 승려 광유(光有)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뒤에 원효가 중창 하여 머물면서 기림사(祇林寺)라 개칭하였다. 기림사란 부처님 생존 때에 세워 졌던 인도의 기원정사(祇園精舍)를 뜻한다고 한다. 즉, 석가모니가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승원 중에서 첫손에 꼽히는 것이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라고 한다. 특히 기원정사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20년 넘게 머무른 곳이라고 전한다. 이와 더불어 불자들의 수행도 점차 유량위주에서 정착 위주로 바뀌었고 정사도 점차 수를 늘리게 되었고, 그러한 기원정사의 숲을 기림(祇林)이라고 하니 함월산의 기림사는 그러한 연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¹⁰⁵⁾.

여기에서, 기림사의 전 이름이 임정사라고 하는데, 이는 <이공본풀이>의 임정국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름이다. 주지하다시피 임정국은 천하 거부로 원강아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임정사의 “임정나라”와 기림사의 “짐정나라”라는 말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정사의 창건자인 광유스님과 <안락국태자전>의 광유성인과의 연결도 함께 해석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04) 그제야 맞추어 놓고 백련화로 씻으니 빠가 예로운 듯하고, 또 적련화로 씻으니 살이 안연하고, 또 청련화로 씻으니 숨을 내쉬고 정신이 들어 일어나 앉거늘

105) 조홍윤, 위의 책, 44~49쪽

참고적으로 조홍윤은 그의 책¹⁰⁶⁾에서 사라수탱에 대한 설명 상세히 하여 두었는데, 이를 전체 인용하여 부록에 첨가하여 두기로 한다. [부록3]은 <안락국전>이나 <안락국태자경> 등의 전체 지도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꽃밭의 모습은 밑동은 탑의 기단부 대석(臺石)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나무에는 이름 모를 아홉 송이 커다란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며 붉고 푸른 여러 보석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이다. 그 나무 한 그루가 서천꽃밭의 전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는 <기림사연기설화>나 <안락국태자경>의 공간적 배치를 확인하여 두는데에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4.4. 꽃밭과 주화의 의미

서천꽃밭은,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닌 꽃들이 만발한 우리의 신화적 공간이다. 서천꽃밭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주화들은 인간에게 생명을 내릴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또한, 인간들의 감정에도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꽃들이 자라나는 서천꽃밭은 인간에게 있어 낙원과도 같은 이상향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수자는, 인간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물길로 구분되는 것을 성역(聖域)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곳은 이승이나 저승, 또는 천상계와도 구분되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것이라 하였다¹⁰⁷⁾.

큰 굿집단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식물체계에 비유하고 있다. 꽃은 피어났다가 시들어가지만, 그 속에는 다시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생’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신화가 생성될 당시의 고대인들에 있어서는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¹⁰⁸⁾. 꽃이 개화하고 시드는 전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비교하여 보면, 더더욱 인간의 삶은 식물체계와 닮아 있다. 또한 생

106) 조홍윤, 앞의 책, 17~20쪽

107) 이수자, 위의 논문, 190쪽.

108) 이수자, 위의 논문, 198쪽.

불꽃은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이 자신의 씨앗을 꽃처럼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체제로 인하여 인간들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꽃이 피어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둘 필요가 생겼다. 위에서도 살폈듯, 꽃피우기 내기 신화소가 이러한 사상체제의 기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꽃을 피우는 것은 인간을 키워내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신들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하여 인간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시험하고자 승패를 나누었던 것이다. 꽃피우기 내기에서 삼승할망의 꽃은 외뿌리에 사만오천육백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꽃나무를 키워내게 된다. 이 꽃은 각각 가지가 뻗은 방향으로 생불을 내릴 적에 아기의 일생이 운명지어진다. 한편, 이 꽃을 심은 은대야야 말로 서천꽃밭의 최초의 모습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좋은 땅에 이 꽃을 옮겨 심게 되면서 드디어 꽃밭이 탄생하게 되었다.

삼승할망이 한 장소를 잡아 생불꽃을 기워내고 있던 중, 순수하고 깨끗해야만 할 그 공간에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꽃들이 시들자, 삼승할망은 이러한 부정을 축출하고자, 자연스럽게 이공신을 청하게 된다. 이로써 <이공본풀이>가 성립되었고, 여기에서는 그 사이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다양한 꽃들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환생꽃과 수레멜망악심꽃이 그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기원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또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거나 죽을 지경에 처하였을 때, 이를 무속적으로 퇴치하여 병을 구원하고자 수레멜망악심꽃을 만들어 이 꽃을 꺾어 버리자는 의식도 생기게 되었다. 반면, 수레멜망악심꽃을 사용하여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던져 주어 버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난리를 진압하기 위하여 그러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공본풀이>에서도 장자 일족을 징치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외에 부자를 동경하여, 부자가 될 꽃이 생기고 상반(相反)하는 가난할 꽃도 생겨났다. 또한 자손이 번성하여 농경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번승꽃이 생겨났으며, 금유울 꽃을 만들어 이를 멀리 함으로 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즉, 이러한 각종 주화들의 위력을 통하여 인간들은 화를 멀리하거나 소원성취의 방편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꽃을 주관하는 신들은 주화의 능

력으로 더욱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서천꽃밭은 이러한 꽃들이 자라는 공간인 만큼, 낙원이나 이상향과 같은 본향적(本鄉的)인 공간으로도 존재하지만, 무속 제의의 무대로서도 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해 내고 있다. <불도맞이> 제차중, <악심꽃 꺾기>에서는 악심꽃을 꺾기 위해 서천꽃밭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천꽃밭과 주화들은 상호간 필요불가분(必要-不可分)의 관계로서 존재하며, 인간들과 신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한 것이다.

5. 결 론

이 논문은 서천꽃밭의 형상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이 신화적인 공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선, 서천꽃밭의 형상을 고찰해 보았는데 우선, 본고의 자료들에 대한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안락국전>의 경우에는 <이공본풀이>와 서사적 내용이 서로 근접하여 있어 <안락국태자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공본풀이>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천꽃밭의 창조에 있어 <삼승할망본풀이>의 모습과 사라도령과 함께 원강아미, 그리고 한락궁이가 꽃감관인 아버지를 찾아 장자의 집에서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을 살폈다. 본고는 여기에서 이승과 저승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지만, 서천꽃밭은 인간으로서로는 도달하기 힘든 공간이며, 신격(神格)의 존재만이 다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다. 서천꽃밭은 그냥 멀고도 먼 길이며, 그냥 무조건 걸어 들어가다가 보면 되는 곳인 양 그려지고 있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저승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이승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이공본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천꽃밭에 피어있는 각종 주화들의 기능과 쓰임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서천꽃밭의 의미에 대한 모습을 살폈으며, 서천꽃밭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서천꽃밭은 제주도 큰 곳의 여러 제차에도 등장하는 바, 이는 서천꽃밭에 피어있는 주화에 대한 의미가 크므로 주화(呪花)에 대한 고찰로 대신하였다. 주화들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생활의 일부와도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죽고, 또한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오래 살거나, 단명을 하거나, 심지어는 웃고 울고 싸움을 하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모두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주화를 통하여, 근심을 덜어내고 기복(祈福)을 하는 제의의 무대로서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천꽃밭에 있어 중요한

화소인 “꽃”에 관하여는 “꽃피우기 내기”라는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언급하면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서천꽃밭을 살펴 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꽃밭의 의미로, 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에 관계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인 서천꽃밭에서 그 곳의 주화들을 이용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내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의미는 식물과 인간 생명과의 비유를 통한 번식과 무병장수를 비는 과정에서, <이공본>은 멸망악심꽃으로 인한 재난을 막고 환생꽃으로 인한 집안의 번영을 비는 것으로, 결국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은 모든 인간 생명의 근원지로서 인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번식과 넉넉한 생활과 함께 무병장수, 그리고 우환이 있는 가정에는 그것들을 퇴치하기 위한 신비의 머나먼 공간으로서 존재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본고는 주로 여러 자료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여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인 공간을 살핀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서천꽃밭은, 큰 곳 집단의 독자적인 상상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낙원이다. 인간의 일생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 공간에서 주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간이 과연 어떠한 공간이며 어떻게 존재하여 왔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천꽃밭은 작은 부정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서천꽃밭을 보다 맑은 눈으로, 깊은 마음 속의 고향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주로 서천꽃밭에 관련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전개가 이루어 졌으므로 꽃이라는 화소에 대한 원형문제에 대한 연구는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문장 전개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은 가장 큰 결함이며, 이를 아쉬움으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1. 자료집

-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남편, 1972.
- 『風俗巫音(祝祀文)(上·下)』,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4.
- 『제주도 큰 굿 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술실대 중당클굿 자료집」,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1994.
- 『한국고전문학전집 29』, 민족문화연구원, 1995.
-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손진태, 「巫覡의 신가」,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 적송지성·추엽음,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1990.
- 진성기, 『남국의 무가』, 正音社, 1980
- ,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한정섭, 『불교설화대사전』, 1991.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2. 연구논저

-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 연구」, 서강대 박사 논문, 2002.
- 강정식, 「서사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정신문화연구원 석사 논문, 1987.
- 권영국, 「韓國巫俗의 神觀研究」,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 김영일, 「韓國巫俗敍事詩의 敍事構造研究 - “본풀이” 敍事模型과 民譚構造와의 對比를 中心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86.
-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 1991.
- 사재동, 「佛敎系 國文小說의 形成過程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77.
- 서대석, 『서사무가의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8.
- ,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제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0.
- 이수자,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 불도맞이제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민요·무가·탈춤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 이영희, 「화소분석을 통한 이공본풀이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1991.
-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2002.
-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 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조홍윤, 「한국지옥 연구-巫의 저승」,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창간호, 문덕사, 1999.
- 채기원, 「안락국태자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0.
- 최운영, 「구본여행 설화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교육적 의미」,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최재웅, 「안락국 전승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1999.

3. 단행본

- 김열규, 「한국 신화와 무속」,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2003.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손진태, 『한국 민족 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9.
- 이상일, 『변신 이야기』, 밀알, 1994.
-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2000.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시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출판부, 2000.
- 조홍윤, 『한국지옥 연구-巫의 저승』,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창간호, 문덕사, 1999.
- 현용준,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 ,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 홍태한, 『한국 서사무가 연구』, 민속원, 2002.
- 황루시, 『우리 무당 이야기』, 풀빛, 2000.
- , 「한국 무속의 특성」,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2003.

[부록 1]

이 공 본¹⁰⁸⁾

옛날 옛적이 짐정나라 짐정국은 웃녘이 살고 임정나라 임정국은 아랫녘이 살았쑤다.

임정국은 천하 거부제고 짐정국은 가난하게 살았쑤다.

짐정국왕 임정국은 바둑장궐 두명 친하게 살아도 근삼십이 되도록 둘 다 애기가 엇
언 호호 근심이 되었쑤다.

호를낳은 임정국이 짐정국신디

“읍서 우리 서산대산 영급종은 소림당으로 강 수록을 들영 생불이나 봄시다.”

“임정국은 돈이 하난 수록채가 싶주마는 난 수록채가 엇언 못들이쿠다.”

임정국이 말을 호되,

“기영말랑 그 새에 먹을 양속이나 당홉서, 수록채랑 내가 당호쿠다.”

짐정국은 말을 호되,

“고맙쑤다. 이런 황송함이 싶쑤가.”

짐정국이 집일 돌아오고 부인네를 보고

“임정국이 수록을 들영 생불을 타젠 햄쑤다.”

“임정국은 돈이 시난 호주마는 우린 때궐심도 엇이 어멍호영 수록을 들일 수가 싶
쑤가?”

“임정국이 그 새에 먹을 양속함 당호민 수록채 대여주맨 햄쑤다.”

“아이구! 이런 황송함이 시라!”

그날부터 짐정국이 부인네가 이젠, 앞집이 장여지고 뒷집이 월여지고 짐정국왕 임정
국은 수록을 들이젠 금법당에 굴이 들어간 수록을 들연 돌아오명 임정국이 말을 호되,

“내가 딸을 낳나 아들을 낳나, 또, 짐정국이 딸을 낳나 아들을 낳나, 서로 낫바꾸왕
애길 낳건, 우리가 굴이 수록을 들이고 오람시니 굴이 구덕혼술 흡시다.” 호연,

집으로 돌아완은, 임정국은 놈의 수록채궐지 대여주멍 해도 딸을 낳고, 짐정국은 놈
의 수록채로 해도 아들을 낳았쑤다.

짐정국왕 임정국은 굴이 애기를 키우멍 느랑 바둑장궐 두명 지내는구나.

그영호연, 그 애기들이 열다섯 시오세가 되여가난 짐정국이, 이젠 근본 호인 말이
시난

“서로 혼스를 흡시맹.”

궐지 그리와도 임정국은 부제라부난 제가 짚언, 그런 말을 못호고 신디, 호르은 임
정국의 따님애기가

108)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71~82쪽

“아바님, 무사 김정국은 어떠한 집이 바둑두레 왔당도 미신 말을 ㄱ를듯 ㄱ를듯 ㅎ
당도 ㄱ질 안ㅎ연 감쭈광?”

“서룬 얘기야 느 들을 게 엇다.”

“경 흡주마는 아바님이 어느 아들이 싯쭈가 지집즈식이라도 제우 저 ㅎ나매기 신디
죽을 일이 시나 살 일이 시나 절ㄱ라 아니ㄱ릅네까?”

“설룬 얘기야 그런 게 아니여, 김정국광 내가 유린전이 근삼십이 되도록 바둑장궤
두명 친ㅎ게 놀아도 서리가 엇언 수록을 들이젠 ㅎ연 느네드를 넣고, 그때 수록들연
오명서는 김정국이 말을 흡을 서로 ㄴ바꾸왕 즈식을 보전 다른 디 허흔 말앙 사둔을
흡시덴 ㅎ연 ㅅ두난, 이젠 느네가 츄츄 약아가난 나는 돈이 싯고, 김정국은 돈이 엇이
난 제죤언 말을 ㄱ지 못ㅎ연 가는 것 닻다.”

“애이구, 설룬 아바님아 이제 지집즈식 ㅎ나 ㄴᄂ도 아니난 썸 치영 주어븍서 오궂 점
작지얌은 어룬이 왔단 오궂 속이 타명 감쭈강!”

“게건 설룬 얘기야 느 말도 고맙다.”

버금은 김정국이 오라시난 임정국이 선말을 ㅎ연

“어서 혼스흡시다.”

일즈를 받고 혼스를 ㅎ연 챗즈식 생불을 ㅎ진디. 저싱선 서천꽃밭 꽃감관질로 오랜
ㅎ연 가게 되느디, 그 얘기가 돌이 찬 걱정이 태산궤은디.

ㅎ를날은 임정국 ㅸ님얘기가 물질레 나가단 보난 서천꽃밭디서 삼체스가 느리고

“말 ㅎ슬 물으궂다.”

“미신 말이우궂?”

“이 고을에 사라도령이 어디 살암쭈가?”

“저 쪽궂로 돌앙가명 보민 좇아집네다.”

임정국 ㅸ님애긴 지 서방을 심으레 오는 삼체술 멀찌거니 보내여 두언 산 자궂서
되돌아오고,

“애이구 가장님아! 삼체스가 가장님을 돌 쟈 저디 느려싯디다.”

“어디레 갑디가? ㄷ랑 오궂기.”

“저 알 궂목테레 보내여븍엇쭈다.”

“아멩ㅎ민 아니갈 질이우궂?”

“애이구, 이게 미신 말이우궂, 체스님 오민 밥이라도 해여 놓아사 ㅎ쟁 ㅎ민 쏘이라
도 궂어와사 ㅎ게 아니우궂.”

사라도령은 어명신딜 가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저디 ㄴᄂ 심으레 삼체스가 느렸수다.”

“애이구! 설룬 얘기야 이게 미신 말고?”

“어머님아, 이 체스가 오민 밥이라도 혼상 ㅎ여 놓아사 ㅎ 건디 쏘이나 싯건 뒤되만
줍서.”

“애이구, 이 얘기야 쏘이 뒤되랑말앙 혼흡도 엇다.”

이젠 올명 어명국이 하직하고 아방국에 하직하면 집이 돌아오란
 “부인님아 부인님아 내가 저싱 꽃감관으로 강 살게 되민 청홀 거니살암십서.”
 “애이구! 이게 미신 말이우파 나도 혼디 갈쿠다.”
 “가지 못옵네다, 가지 못흐매 살암시민 나만 갈쿠다.”
 “이거 미신 말이? 살아도 곶이 살곡 죽어도 곶이 죽을 거난 난 곶이 갈쿠다.”
 신발단속 하면 곶이 나가는디, 시커림질을 나스난 삼체스가 돌아오고
 “말 물으쿠다.”
 “미신 말이우파?”
 “이 곶에 사라국 사라도령이 어디 살암쭈광?”
 “저가 기우다.”
 “게난 어드레 감쭈광?”
 “아맹하면 아니갈 질이리엔 하면 체스님이 저를 둘레 오람시니 앞이 상 가젠 나감
 쭈다.”
 “이 놈 저 놈 괴썸흔 놈, 집이 가민 징심밥이나 하여 놓아지카부덴 미리 나오람꾸
 나.”
 썩몽둥이로 옷둑짓팡을 내후리난, 사라도령은 그만 좀미치고, 부인 원강암인
 “애이구! 체스님아 살려줍서. 집이 가민 즈낙썰 혼쭈미 엇이난 곶이 가젠 나오람수
 다.”
 원강암인 좀미친 가장네, 붙은 널 때명 숙그락으로 물을 거려놓난 숨이 돌아오난,
 체스님은,
 “게민 불상하구나 곶이 글라.”
 사라도령광 원강암이 부배간은 곶이 나산 가는디, 체스님은 앞에 도올라 가부는구
 나. 사라도령광 원강암이 두 부처는 절을 가단 가단 버천, 중간 꽃가운디서 즈낙 굵은
 진밤을 담어염이서 어욱푸기 하나를 어지하면 쭈를 자게 되는구나. 쭈를 자제하느디,
 밤중 야삼경은 되여가난 사라도령은 무정눈에 쭈이 들고 원강암인 앓안, 발붕물고 애
 긴 잔득 배여놓고 한 쭈를 못잔 하느디, 개가 쿵쿵 주껌.
 “저건 누게짓 개우광?”
 “천년장재칫 만년장재칫 개우다.”
 흑곰 시난 천앙독이 목을 드러 울어,
 “저거 누게짓 독이우광?”
 “천년장재칫 독이우다.”
 호술 시난 독이 놀깁 틀명 울어,
 “저거 누게짓 독이우광?”
 “천년장재칫 독이우다.”
 “저 집이 강 날 종으로 풀아두영 잡서.”
 “거 미신 말이 기영흔 말이 쇠수가?”

“암만이라도 난 질이 버천, 발이 붕물고 갈 수가 엇쭈다.”

“게메 나스지 맏센 아니홉디가.”

“경호주마는 버천 못갈커메 종으로 풀아두엿 갑서.”

“똥이엿 골앙 톱네깁?”

“천년장재첻 먼 올래에 강그네, 앞이망엔 햇님이여 뒤통이망엔 돌님이여 양독지엔 옥새뿔이 오송송이 그린듯 혼 종이나 삼서. 호영 채암 그랑 큰똥애기 나오랑 뿔 아니사키엿 홀 겨우다. 두번 그랑 셋똥애기도 나오랑 뿔 아니사키엿 홀 경다. 삼시번 채엔 말쭈똥이 나와 뿔 살 겨우다.”

그영호연 이젠 그덜 가난 개가 쿵쿵 주꾸는구나.

“앞이망엔 햇님이여 뒤통이망엔 돌님이여 양독지엔 옥새뿔이 오송송이 그린듯 혼 종이나 삼서.”

천년장제칩이선 누게라 못이 엿 갖는 소리가 나난

“큰똥애기 나장 보라.”

큰똥애기 나와 뿔 간,

“어떤 질칸나이 넘어가단 종으로 사렌 호염쭈다마는 상 놔두민 집안 망홉네다.”

또시 개가 쿵쿵 주껴가난

“셋똥애기 나장 보라. 놀이나 상주마.”

“난 마우다. 어떤 질칸나이 상 놔두엇당 집안만 망홉네다.”

경호여도 또로 개가 쿵쿵 주껴,

“말쭈똥애기 나장 보라. 느 믈심에 들건 놀이나 상 주마.”

말쭈똥이 나오란 뿔,

“아바님, 상 놔둬서, 종은 종이라도 가내나 잘 다시럼직 혼 종이우다.”

“호건 불러들이라.”

안으로 불런, 들어오난,

“돈을 얼마나 반앙 풀아불쿠광?”

사라도령은 원강암이광 속으로 의논을 하고,

“배인 애기랑 삼백냥만 주곡, 어시랑 단 백냥만 주엿 삼서.”

호난, 그대로 내여주언, 돈을 돈 반앙 묶어놓고, 원강망이가 마을 호되,

“이 댕 법은 어떻사 혼디, 우리 댕 법은, 종광 한집이 갈라살 땐 식스상을 출려줍네다.”

“게건, 느네 댕 법대로 호라.”

사라도령신딘 백미에 식스상을 출려 들러놓고, 원강암이신딘 쿨락박새기에 보밀 칸 홍압조갱이로 겨려먹으렌 호난, 원강암인 울명 말을 호되,

“이 댕 법은 어떻호는지 몰라도 우리 댕 법은 종광 한집이 갈라살 적인 혼 상에 마주 앓앙 밥을 먹읍네다.”

“게건 느네 댕 법대로 호라.”

원강암인 사라도령광 굴이 간 앓안 밥을 먹젠 흐난 목이 맥현 먹지 못흐연, 이젠, 사라도령은 창웃흐미로 눈물을 썰명 나가난 원강암이는

“이 땃 법은 어떻사 흐는디 우리 땃 법은 종광 한집이 갈라살 적인 먼 정에 나강 대우를 홉네다.”

“그영흐건 느네땃법대로 흐라.”

먼 정에 나가고

“사라도령님아, 이 뻔 애길 낳민 미싱걸로 일흠을 지웁네까?”

“스나이랑 낳건 ‘한락둥이’로 흐곡 지집애기랑 낳건 ‘한락대기’로 일흠을 지우라.” 흐난

“본미본장은 미싱걸 줍네까?”

사라도령은 주멍기쿨 배르씨고 용얼래기 혼착을 벌르고 다림 혼착을 클러놓고 츠씩 혼쥘 반뜨기 그차놓고,

“이것을 낳당 주라.”

이젠 갈라산 나아가명, 원강암이 일흠을 원강댁이로 고젠 지왔구나.

원강댁이 얼굴이 천하일색으로 좋아놓난, 흐톨날은 천년장재가 종방에 들어가난, 원강댁이가 말을 흐되,

“이 땃법은 어떻사 흐는디 우리땃법 종을 사민 집을 사나 짓이나 흐영 올래 백겼딜 살립네다.”

천년장재, 종안티 호심을 사젠, 꺾는대로 올래백겼딜로 살린다. 흐톨 밤에는 천년장재가 철죽대를 짚으고 나아가더니만, 원강댁이가 불을 뵈히고 바농질을 흐는디, 창궁기로 보난 얼굴이 천하일색이난 반흐여 창문낭간데레 올라사가난 원강댁인 몽둥일 준히흐연 뵈단,

“요 개 저 개 지나간 밤도 조반썰 놔두난 먹어선게 또 닐 조반썰 먹으레 왔구나.” 흐명, 창문을 올라제치명 확 후리난,

“나는 개가 아니 천년장재노나.”

“아이구! 상제님은 이게 어떻흔 일이우파, 미신 일로 읍디강?”

“먼 정에 오고보니 느 얼굴이 좋아지난 느 불등판이나 직흐여 주젠 왔노라.”

“아이구, 상제님 이게 미신 말씀이우파, 이땃법은 어떻흐는지 몰라도 우리땃법은 이 뻔 애길 나두어사 몸 허락을 홉네다.”

“계건 경 흐라.”

돌아가불고, 그 애기라 둘이 찬 낳고 흐룻밤은 또 천년장재가 창난간 우티 올라스난 원강댁인,

“요 개 저 개 지나간 밤 조반썰 놔두난 먹고, 또, 닐 조반썰 먹젠 오랴구나.”

문을 올명 몽둥일 내후리난,

“나는 개가 아닌 천년장재노라.”

“미신 일로 오십디가, 상제님아?”

“근본에 느 흐인 말이 엇느냐?”

“상제님아, 이뎃법은 어떻 흐는지, 우리뎃법은 이 얘기가 켜그네 일천서당에 들엉 공부혀가사 몸허락을 홉네다.”

천년장젠 종을 거슬와 놓민 거세기 흐카부텐,

“그영흐렌.”

돌아간다.

그 얘기가 켜 글공볼 흐여가난 따시, 또로, 흐르츠낙은 철죽 쥔으고 창낭간데레 올라사난,

“요 개 저 개 지나간 밤 조반술 먹어선게 또 널 조반술 먹젠 오랴구나.”

흐명, 뭉둥이로 내굴길 때,

“내가 개가 아닌 천년장재노라.”

“미신 일로 오십니까?”

“느가 근본 흐인 말이 엇느냐?”

“상제님아, 이뎃법은 어떻흐는지 우리뎃법은 이 얘기가 켜그네 용쟁길 지영 세경땅에 밧을 갈레 뎡겨가사 몸허락을 홉네다.”

“이 년 저 년 괴썸흔 년, 사름을 쇠기기로만 대여들고, 뎡 번을 사름을 썬겨서, 죽여 불키여. 앞 밧디 장검 걸라 뒷밧디 버텨 걸라 즈강놈을 불르라. 숙적기도 내여걸라.”

흐여가난 말쭈똥애기가

“아바님은 이거 미신 일이우파?”

“애, 그런게 아니라, 이 년이 행실이 나빠서 죽여불키여.”

“미신 일이우파?”

“으라 행에 사름을 썬점따.”

“아바님아, 사름을 죽임광 살림이 맞습네까? 이녀 종이라도 죽이민 살인으로 역작으로 즈각으로 다시립네다.”

“경흐민 어떻흐느니?”

“버력을 시킵서. 흐락둥이 어멍이랑 낮이랑 물맹지 닷동을 매곡 밤이랑 물맹지 석동을 차곡, 한락둥이랑 낮이랑 낭 쉼비리 흐영 오곡 밤이랑 솟기 쉼동 꼬곡, 경 버력을 시킵서.”

천년장젠 원강댁이광 한락둥이신디 경 버력을 시켜놓난, 한락둥이 어멍은 낮인 물맹지 닷동 매곡 밤인 물맹지 석동 차곡, 흐연 내여놓고, 한락둥인 산이 믈쉬 쉼바리 뭇안 간 낭글 흐바리썸 흐여시민 지냥으로 낭 쉼바리가 흐여지영, 낭 쉼바릴 흐여단 바썬곡 밤인 솟기 혼동 꼬당 보민 아흔아홉동은 지대로 꼬아지곡, 흐명, 말이 엇이 살아간다.

흐를날은 비가 오라가난 말쭈똥 흐는 말이,

“아바님아, 저것들 불쌍흐지 아니흐우파? 오늘은 비가 오람시때 쉬랭 홉서.”

“계건 어서 쉬랭 흐라.”

그 날은 심심한 한락동이 어명은 헌웃을 줌고 한락동인 신을 삼단, 낮이 되여가난 한락동이가 어명ㄴ라 말을 하되,

“콩이나 볍아 줍서. 심심한 먹으쿠다.”

“설튼 얘기야 어디 콩이 시니?”

“어머님이 간세로구나. 장제칩이 콩깡막을 털뜨령 볍서 콩 혼섬은 십네다. 팻깡막을 털뜨령 볍서 팻 혼섬은 십네다. 녹디깡막을 털뜨령 볍서 녹디 혼섬은 십네다. 나룩깡막을 털뜨령 볍서 나룩 혼섬은 십네다. 산뒗깡막을 털뜨령 볍서 산뒗 혼섬은 십네다. 조깡매기 털뜨리민 조 혼섬은 십네다. 대죽깡막을 털뜨령 볍서 대죽 혼섬 엇으멍 보리깡막 털뜨리민 보리 혼섬 엇일 배가 엇쭈다.”

이젠, 한락동이 어명은 한집신디 간

“원. 자인 콩을 볍아도랜 하염쭈다게.”

“볶아주어.”

이젠 콩깡막 털뜨리난 콩 혼섬이 시난 서녀되 거련 오란 푸언 브드드하게 볍아가난 한락동인,

“어머님아, 저디 상제님이 불럼쭈게. 재게 나강 볍서.”

하여두언, 배수기랑 곱저불고 어명은 가간 보난 그짓말이난 되돌아오란 콩을 젓젠 배수길 좇앗쭈다.

한락동인,

“콩캄쭈게, 혼정 젓입서.”

“요애야, 이디 배수기 어디 가니?”

한락동인 굴이 좇는 채 하명,

“콩 캄쭈게게 손으로라도 혼정 젓입서.” 들 다올려가난,

한락동이 어명은 어가급절에

손으로 젓일카 하여가난

한락동인 돌려들언

술창테레 어명손을 폭기 놀뜰멍,

“어명, 우리아방 누게우파? 아방 ㄴ라줍서.”

“앗떠벌라, 앓떠벌라, 이 손 내빌라 ㄴ라주마, 저 올래에 정주떡이 느 아방 아니가.”

“정주떡이 우리 아방인우제 무사 나 매날 올멍 가곡 오라도 느 올지말랭 아니홉네 까.”

“게, 천년장재가 느 아방이여.”

“천년장재가 우리 아방인우제 나 무사 양¹⁰⁹⁾ 버력 시김네까?

“애구! 얘기야. 느 성준성펜 사라국 사라도령이 아방국이여. 어시에 펜은 원정나라 원정국, 난 원강암인디, 스실이 이만하고 저만하연 이 집이 사느디 천년장재 말을 안

109) “으”이나, “양”으로 하였음.

들어부난 이츠평 벼력을 시기고, 느네 아방은 서천꽃밭디 꽃감판으로 갔저.”

“게난 본미본장이나 싯쑤가?”

용얼래기 혼착에, 다림 혼착에 춤썰 반가림을 내여주난,

“어머님, 전이 이걸 내여주어시민 우리아방 좇앙 갈꺼 아니우깁. 이젠 난 가불민 어
명은 죽일거우다. 생ㄱ르 닷되에 소곰 닷되 놓왕 떡호여 줍센.” 호연

떡호연 싸놓고 콩볶은 거 놓고 호연 나가명,

“나 나가불민 천년장젠 어떻그라 나 좇아오랭 홀 거우다마는 아맹 죽어지때나 나
간 디랑 궂지 맙서.”

작벨호연 나가분 조곰 후젠 천년장제가

“한락둥아, 므쉬 출 주라.”

대답이 엇이난, 또시,

“신산만산 한락둥아 므쉬 출 주라.”

원강암인, 아들 좇아가난

“인척 출 주레 나갑디다.”

“이 년 저 년 그짓말만 호지. 언제 출 주레 나와시?”

“인척 갑디다게.”

“괴썸호 년, 이 년, 사름을 냉기기로만 호고 이번은 죽여불키여, 이년.”

“천리통아, 신산만산 한락둥일 강 물영 오라 죽여불게.”

천리통은 한락둥이 조름에 조차가단, 한락둥인 떡을 아산 네끼명,

“떡이나 먹으라.”

천리통은 그 촌떡을 먹어놓난 물그리완, 물먹으레 가분 새엔 한락둥인 그딜 넘거가
난, 천리통은 그대로 집이 돌아오란

“상제님아 엇입디다.” 호난

이번은,

“만리통아, 이제사 만리 더가시나, 느가 강 물영오라.”

만리통이 한락둥이 조름에 조차 가난

“아이구, 만리통은 오랐구나. 요 떡이나 먹으라.”

만리통은 촌 거 먹어놓난 물그리완 물먹으레 가부난 그 새엔 또 만리를 넘어가고,
만리통은 그냥 돌아오라시난

천년장젠

“아 그 놈으 즈속 만린 더 가시난 어디를 가신고? 이젠 이 년을 죽이키여. 앞 밭디
강 정검절라. 뒷 밭디 강 벼텅절라. 즈강놈도 불르라. 숙청기도 꼬조우라.”

원강댁일 죽일팔로 둘루명, 성틀에 올려종완 초댁임 와드득기 틀명,

“느 바른 말 해라.”

“예. 바른 말을 ㄱ라도 그 말이우다.”

이댁임을 받아도, 삼댁임을 받아도

“그 말이우덴” 흐난
이젠 애개길 환도레 옷단 확기 끈찬, 몸뚱이멍 대강이멍 문딱 청대왓테레 옷단 드리
쳐부난,
신산만산 한락등인 가단 보난
귀 말이 아래 물이 떠, 또시 넘어가단 보난 질 이워부런, 그디 점쟁이가 앓안
“느 어디레 감디? 한락등이가 아니냐?”
“예. 기우다. 부친님을 좇으레 가는 중이우다.”
“가당 봐라, 독ㄹ립에 물이 뜨리라. 돌아상 브래지말앙 가라. 또 가당 보민 즈금태기
에 물이 뜨리라. 또 가당 보민 존둥이에 몽리 뜨리라.”
점쟁이가 ㄹ리쳐존대로 존둥이에 물이 뜨도록 돌아산 브래지말멍 가단 보난 어떤
외가마귀가 앓안 까옥까옥 울엄선, 그딜 넘어간 보난 청버드낭기 신디 그디 올라간 부
수를 흐단 보난 어떤 예즈가 스답을 흐염선,
“말 물으쿠다.” 흐여도, 문답을 안흐난
상송까락을 촌실로 탁 졸란 버드낭썰에 글을 씨멍 물레레 티와가난,
꽃밭디 물주는 애기들은 쿨락박새기, 차롱착 벌러진 사그마치기를 들르멍 물을 떠단
꽃에 주난 꽃은 점점 울어간다.
꽃감관을 그 가운데 수두된 아흐ㄹ라
“어떠난 이 꽃밭디 물을 주어봐도 꽃이 울엄시니?”
“어떤 청년이 버드낭우티 앓안 부수를 흐염쑈다.”
“강, 들어봐라. 구신이나 생인이냐?”
수두된 아흐가 가고
“구신이우파 생인이우파?”
들으난,
“구신이 이런 고단에 올 특이 시냐, 생인이 올타.”
돌아완,
“생인이 올텐 흠네다.” 흐난
“계건 이레 청발흐라.”
청해 오난, 꽃감관은,
“느 어떤 구신가 생인가? 무사 이런 고단¹¹⁰⁾엘 완 부술을 햅샤?”
“구신이 어멍 이런 고단엘 올 수가 십네까. 생인이 올십네다.”
“경흐민, 느 성조성펜이 어디멍 외조외펜은 어디고? 미신 일로 이런 고단엘 오란디
야?”
“성조성펜은 사라국 사라대왕이고 부친님은 사라도령이우다. 혼디, 부친님을 좇앙왔

110) “곳에, 마을에”라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高壇 - 높은 祭壇 - 이라 사료
됨.

쭈다.”

“경호민, 느 본미본장이나 시냐?”

“예, 싯쭈다.”

이젠, ㄹ전 간 용얼래기, 다림, 썰을 혼디 맞추완 보난 ㅁㅁㅁ ㅁㅁㅁ 붙으로, 승패엇이 맞아진다.

“느가 내 즈식이 분멩흐다.”

꽃감관은 스완을 불르고,

“나 먹단 식스상이나 이리 출려오너라.”

한락동인 말을 흐길

“아방이 받단 식스상을 받으라흐불로 어떻 그 식스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어떻흐난 못받으컷고?”

“금시상 날 적이 아방 독ㄹ립에 앓안 혼번 놀아보도 못흐디 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게건 내 독ㄹ립 우티 올라 앓이라.”

한락동인 사라도령 독ㄹ립에 올라앓안 똥오줌을 싸는 시늉, 벨벨 조세를 댄 흐연 식스상을 받은 후젠,

사라도령은 아들크라

“느가 나고을 때에 귀마리에 물이 안떠냐?”

“뜸니다.”

“거, 너멍 이대김에 눈물이어”

“또시, 오단 존동이에 물이 떠실 건디, 그건 바로 별경혼 물이난, 너멍 스대김에 눈물이어. 또시, 오단 보난 물이 애개기에 떠실 건디, 이 땐 외가마귀가 오란 울지 안햐서냐?”

“예, 울엄십디다.”

“거 보라, 거 너멍 드라간 체스다.”

“경호 줄 알아시민 그눔으 가마궐 돌썰기로 마쳐불궐.”

“체스님을 정 안흐다.”

“올 때 물이 느 애개기에 뜬 제, 어떻흐 예즈가 앓안 스답 안햐서냐?”

“예, 어떻흐 예즈가 스답을 혼엄십디다.”

“거 너멍 혼정이다.”

“혼정이민 무사 말ㄹ라도 대답 안햐줍네까?”

“죽영 맹왕으로 들어스민 혼정으로 대답 아니흐다. 너멍은 이젠 죽연 청대왔디 드리 쳐부난 꺽만 술강흐였저. 저레 나글라 꽃 강 탕 주마.”

사라도령은 한락동일 꽃밭딜 드란 간, 꽃을 탕 주는구나.

꺽오를 꽃, 술오를 꽃, 오장육부 기릴 꽃, 불불을 꽃, 땀망꽃, 부제될 꽃, 하근 꽃들을 댄 탕 주멍, 죽냥 회추리도 흐나 흐영 주는구나.

그영호연 사라도령은 한락동이ㄴ라, 말을 호되,
 “느가 이싱에 넘어가민 천년장제가 늘을 죽이젠 홀건디 청태국 마귀할망신디 들어
 강, 장젯чит 말줄뜰애길 불러줍생 호영, 이 꽃으로 요영저영 호영 너명을 살리라.”
 한락등인 꽃밭을 나오란 마귀할망칩이 들어가난,
 “아이구 애야! 느 무사 오란다. 천년장재칩이선 늘 죽이젠 오죽 햄시냐?”
 “예, 계건 그 집이 말줄뜰애길 이레 불러줍서.”
 불러주난, 말줄뜰애긴 나오란,
 “한락등이야 무사 오란다, 우리 아방은 늘 죽이젠 호염저, 곱아불라. 느네 어명도 우
 리 아방이 죽여불었저.”
 “경흠주마는 천년 만년 장제님을 호번 대호영 말이나 호영 갈쿠다.”
 호명, 집안으로 들어간다.
 천년장제 한락등일 심어놓고
 “이놈 저놈 괴썸흔 놈 그새 어딜 갔단 오랐느냐? 앞밭디 장검걸라. 뒷밭디 버텨걸라.
 즈강놈을 불르라.”
 죽일팔로 둘러간다.
 그영호여가난 한락등인 말을 호되,
 “천년 장제님아.”
 “왜?”
 “역가를 하영 빌언왔쑤다. 저 바당에 튼 테우가 몬 역가 식근 배우다. 돈 하영 빌어
 왔쑤다. 이제 죽을 놈입주마는 저 바당에 튼 인정 역가는 나 아니민 풀 수 엇이난 역
 가나 받아놓왕 나를 죽입서.”
 “오, 느가 돈을 하영 빌어 완디야? 호정 강 ㄴ정오라.”
 “저 돈은 너미 하부난 일가제절 양사둔 육민실 몬딱 매와사 거두와 읍주나 혼채만
 은 못ㄴ정읍네다.”
 “계건 느 ㄴ는냥 몬 매우라.”
 천년장제 한락등이 ㄴ는냥 몬딱 매와놓난 그 앞이서 한락등인 웃음꽃을 내여놓난
 다들 해삭해삭 웃어가난 땀망꽃을 내여놓난 몬딱 땀망호연 죽여불었구나.
 그영호연 한락등인 천년장제чит 큰뜰애긴 가난홀꽃을 주고, 셋뜰애긴 땀망꽃을 주고,
 청태국 마귀할망은 부제될 꽃 주고, 말줄뜰애긴 한락등이ㄴ라
 “상제님아 날 살려줍서. 난 아뭇죄도 엇수다.” 호난
 한락등인,
 “상제님은 느가 상제님이주 내가 상제님이냐? 우리 어명 죽은 딜 ㄴ리치라.”
 ㄴ리치는 딴 청대왓이라.
 청대왓딜 간 보난 어명은 술은 맨딱 녹아불고, 팡만 술그랑 호여시난, ㄴ근ㄴ근 좇
 어놓완, 팡오를 꽃, 술오를 꽃, 오장육부 그릴 꽃, 맨딱 좇어놓완 죽냥회추리로 삼시번
 을 햏 후리난,

“아이구! 설론 얘기야. 난 봄 즈이난 너미 자지었져?”

호명, 일어나난, 한락등인 어명을 모사왔고, 말쑥똥애긴 스완으로 ㄷ란 서천꽃밭디 아방초산 드어간, 꽃밭디 물주는 애기들은 원강암이가 저싱 어명으로 들어산 그늘루고, 또 사라도령은 저싱 아방이 되연, 살림을 호고, 한락등인 아방물림 호연 꽃감관이 되난 그 법으로 금시상에 할으방이 살던 딴 아방이 살고, 아방이 살단 딴 아들이 삼네다.

[구연 :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여무 69세 조홀대 님]

[부록 2]

삼승할망본풀이¹¹¹⁾

공선 공선 간신 공선 인도여
서준남 서준 공서 말씀전 여쭙니다.
동이용궁 말갯뜰아기
흔살찍에 어머니م 첫가심 두두린 죄
두살찍에 아버지 산각수 훑은 죄
시살찍은 나난 널은 날래 허데긴 죄
니살찍은 당허니 빠헌 입성 범을린 죄
다섯살은 나난 델차종자 우 막은 죄
죄를 다 마련하여 무쇠설각 짜 그 안터레 디려놓안
상거슴 통쇄로 절로 싱강 잠가놔 귀양정배
아무데라도 가렌 요왕황저국에 띄와부난
물로 위도 홍당망당 연 3년
물 아래도 홍당망당 연 3년 살암구나.
중간에도 연 3년 홍당망당 살아나
귀양 정배 올 때에 무쇠설갑에 글 삼제를 메기되어
「임보로 임박사시절 당허건 계문계탁」엔 해연
딱허게 박여보난 떠댕기다
청몰래 백몰래왔데 완 걸어진다.
몰래왔데 이시난 임보로 임박사 시절 나난
임박산 차에 몰가 백몰래왔디 돌단 보난
무쇠설갑이 있었고나. 필야곡절한 거엔
간 바래여보난 「임보로 임박사 시절 당허건
계문계탁」이엔 글 삼제 박여시난
이거 필야곡절하다. 강 보저. 상거슴 통쇠
설랑하게 열안보난 꽃같은 아기씨가 있었구나.
「아이고 너는 누구나」
「나는 동해용궁 말제뜰아집네덴」 하난

111) 이정자(1959년생, 부계, 모계에 다 심방이 있었고, 14세에 입무하여 애기심방으로 귀여움을 받았다고 함. 중요무형문화재 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인 김윤수씨 부인. 이 한편은 고대중심방의 누락을 보완 채록한 것임.)씨 구송 - 채록당시(1999년 2월) 49세,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거주.

「어떤 일로 이딴 오셨느냐?」
 「아방 눈에 굴리나고 어멍 눈에 시썸 나난
 귀양정배 보내여부난 이까지엿 오셨읍네다.」
 「너 잘 흐는 것이 멋일러냐?」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마는 시겨봄서,
 허여보쿠덴」 영호난. 「경호전 아직은
 우리 인간에 인간 명진국 할마님이 어시나난
 널란 경하랑 우리집이 강 우리 안부인
 포태(胞胎)나 시겨보라」 「어서 기영 험서」
 임박사 안부인 포태를 시집대다.
 한달 두달 아호열달 준삭되어도
 포태시길 줄은 알아도 해살혈 줄은 몰란
 열달이 넘어가난 아기 어멍도 죽을 스경,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을 스경이 되어가난
 그때엔 임박사가 하도 갑갑하고 답답허난
 임박사가 몸모욕 허여간다. 쟁결터 좋은 들로
 산천영기 보안 좇앙가난 두 일레 열나홀동안
 금바랑소리를 옥황테레 원정을 들어가난
 옥황상저님이 「어명헌 일로 인간에
 칭원하고 원통헌 백성이 있어나
 두 일레 열나홀을 밤낮으로 옥황테레
 금바랑소리로 등장을 들엄시니?」 영호난
 그때 선관도서가 인간에 굶언보난
 임보로 임박사가 옥황테레 금바랑을 올림더라.
 「너 어떤 일로 옥황테레 금바랑소리 올리느냐」
 「아이고 우리집이 안부인 포태되어 해산 못해여
 어멍과 아기에 죽을 사경되엿수다. 아이고
 해산시켜 줄 할마님이나 내보내어 줍센
 옥황상저님이 등장을 들엄수덴」 호난
 선관도서님은 옥황상저님 전에 간
 임박사 ㄱ른대로 여쭙시니
 옥황상저님 곰곰들이 생각호연 보난
 「인간에 간 해산시기쟁 호민 아무나
 강 경 해산도 못시키고 어느 누께
 인간드레 네보내코나」 생각 끝에
 명전대왕 뜯님애기 불러다 「너 인간에 가

해산시켜 두었 오랜」 허난 「아이고 내가
 어찌 그런 엄중한 일을 할 수가 있십네가」
 「이른일곱해 동안 배운 거 어서 강
 해산시켜 두었 오랜」 허난 「아이고 날
 내보내거나 나 곧는양 출려줍서
 남방사주 저고리에 북방사주 말바지 입고
 열두복 대홍대단 홀단치매도 줍서」
 외코 좁은 백농보선 나막창신 둘러신고
 만상족도리 호양미감태 둘러쓰고
 물명지 장옷 열두 단추를 달고
 할머니는 내려사젠 허난 「참실도 혼제 줍서
 은꺾새도 내여줍서, 금주랑 철죽대
 은주랑 말죽대도 줍서」 문득 출려와 주난
 이곳 산으로 내려사난 임보로 임박사네 집에
 날려들어간다. 지동글에 간 마패
 물명지 치매 벗은 걸어두고 북덕자리에 출려놓아
 아기 어떻 상가매 설설 열시번 실어
 아기 어떻 오순이 실어가난 아기 머리에 돌려간다.
 그 때에 아기 어떻 열두 빼 다 문을 열려
 은 꺾새로 아기 코 주둥이 주악 건드리난
 머리 받은 물 시더지영 할머니에서
 아근장석 한 장석 김을 주난 임박사 안부인
 없는 장석 내드른다. 없는 힘이 내숫아
 고운 땀시 고운 기상 그려나 인간 탄생 시집대다.
 그때엔 다시 조친전 내왕 아기왕 어떻광
 갈란 참실로 배똥줄 묶은 은꺾새로
 배똥줄 꿰어 아기 몸모욕시켜 곱 갈라시난
 동이용궁 물젼딸야기 나산 「땡기다 오란 보난
 아이고 해산되었고나. 아이고 내가 포태 준 거
 어느 년이 오라 해산을 시겼느냐」 날려들명
 머리심언 매탁허니 뉘난 명진국 할머니은
 옥황드레 도울란 옥황상저님전에 간
 「아이고 사실이 약하약하 허여 오랐읍네다.」
 옥황상제가 불러간다. 「동이용궁 말재똥도
 불러라. 명전대왕 따님애기도 불러라.
 너네덜 이리 오라 은동이 뉘동이 주서리 남동이에

이레 물을 하나씩 주커메 이 물 알들에 비와그네
 이물을 다시 은동으로 담앙 보라.」 그 물을
 알뜰에 비완 담는게 명전대왕 따님애긴
 그 물을 그릇들에 오뭇 땅땅 부어난
 동이용궁 말젯말아기 비온 물은 어느 동안
 땅 알래레 숨어버린 담을 수가 없고.
 「너네덜 이제랑 꽃씨 한 방울씩 주커메
 이 꽃씨 심거 수돚 주고 물 주어 키와보랜」 허난
 수돚 주고 물 주어 키웁는 것 보난
 명전대왕 따님애기 심근 꽃은 보난
 불리는 외불리에
 가지가지 송애송애 스만오천육백가지
 버리지어 동덜에 벌은 가진 동청록이고
 서더래 벌은 가지 서고냥 서백금이요
 남더래 벌은 가진 남장수
 북더래 벌은 가진 북하수나 되엇, 푼룩푼룩 자라나고
 동이용궁 말젯말아기가 심근 꽃은 보난
 알로 불리만 스만오천육백가지 불리로 벌었구나.
 그 때엔 옥황상제가 둘이 불러다 놓아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명전대왕 따님아기랑
 인간 명진국 할마님으로 들어상
 피인 집안 자손에도 강 포태를 주고
 가난한 집안 자손에도 강 포태 주어
 가지가지 송애송애 벌어지게 시겨주라」
 동이용궁 말젯말애긴 불러다
 「넌라근 저승 구천왕구불법으로 들어사그나
 명진대왕 따님애기 포태주영 나두거든
 석달만이 물로 피를 흘리게 호고 다섯달 어멍
 일곱달 아홉달 만이나 몸천으로 나리게 허며
 법지법 마련허고 넌라그네 아기 나은
 사흘만이 일레만이 백일만이나 아기어멍
 아기 업영 땡겨글랑 삼도전 시커리나
 사도전 니커리나 놀다가 아기 젓냄새 맞차
 딸라들어 토호락징도 불려주고
 밤이 되면 밤 역시 호여 도락해여 울게호고
 낮인 되민 낮 역시 호여 울게 호고

혼사를 급헌매 혼일레 늦은매
 정풍청새 지영 불러주고
 아기 젖은 열다섯 시오세 안의 아기들
 서천꽃밭데레 돌앙가고」 범지범 마련허던
 동이용궁 말젓뜯아기. 명전대왕 뜨님애기
 한달 여섯번 상을 받아 초사흘 초일레
 열사흘 열일레 스무사흘 스무일레.
 이 땐 되민 상 받앙 열다섯 안에
 아기덜 아프민 날도 달도 아니보아
 이날인 강 할마님 상 찰려놓아 빌고
 떡도 디리고 허민 좋고
 구삼싱 상 받는 날은 초아흐레 열아흐레
 스물아흐렛날랑 구삼싱 동이용궁 말젓뜯아기
 상받으렌 범지범을 마련되엿수다.
 그 법으로 이공 서천 도산국 법을 마련호엿수다.
 할마님과 동이용궁 말젓뜯아기
 난산국 본산국 시주 낙향 본이외다.

[부록 3]



<사라수탕화>

출처 :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형부인본풀이」, 서울대출판부, 2000. 부록 자료. 재인용.

“그림의 상단에 한문 金字로 쓴 화기에 따르면, 이 사라수탕은 조선 선조 9년(1576) 7월에 제작되었다. 그 한 달 전 비구니 혜인, 혜월 등이 사라수탕을 보았는데 먼지로 더러워지고 좀먹고 형상이 점점 희미해져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기에 궁중에 권선하여 재물을 얻어 솜씨 좋은 화공을 청해 다시 새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림의 크기는 106.5×57.1cm이며 견본(絹本)에 채색을 하였으며, 25개의 장면이 적당히 배열되어 있다. 대개 구름으로 구분된 각 장면에는 한글로 간략한 설명을 적어 놓았다.

왼쪽 위편에 “광유성인”이라 가로로 써 놓은 곳에 광유성인의 집과 광유성인이 있고, 오른쪽 맨 아래에는 “서

턴국사라슈대왕궁”이라 적은 곳 아래 궁이 자리하고 있다. 광유성인의 집 아래, 그림의 대략 왼쪽 중간쯤에 자현장자의 집이 있다. (중략) 광유성인은 금란가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노선승의 모습을 취하나, 그의 머리 뒤로 두광을 둥글게 그려

부처임을 표시하고 있다. 승열바라문이 도합 12장면, 사라수대왕과 안락국과 원앙 부인이 똑같이 각기 9장면에 걸쳐 등장한다. 원앙부인의 경우 대숲에 죽어 백골로 누워있는 것(그림 오른쪽 가장자리 중간부분) 까지 합하여 그러하다. 사라수대왕은 한결같이 금제 와룡관에 무늬 있는 홍포를 입은 모습인 바, 지고한 신분을 나타낸다. 원앙부인도 어떤 금제관에 화려한 의상으로 대왕에 버금가는 차림이다. 안락국은 설명에 ‘아기’라 하였고 더벅머리에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다. 팔채녀는 3장면에 나오는데, 두 군데는 사라수대왕의 부인들로서 원앙부인의 복식과 같으나, 범마라국에서 꽃밭에 물 길는 장면에는 치마 저고리 모습을 취한다.

물 길는 팔채녀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으며, 사라수대왕은 앞뒤로 물통을 건 막대기를 어깨에 걸어 물을 나른다. 그림 오른쪽 상단, 대왕이 아기를 안고 우는 장면 뒤에 묘한 꽃나무가 한 그루 있다. 달리 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꽃밭을 상징하는 셈이다. 밑동은 탑의 기단부 대석(臺石)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나무에는 이름 모를 아홉 송이 커다란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며 붉고 푸른 여러 보석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중략) 그 아래 펼쳐져 있는 곳은 험한 파도가 넘실대는 강이다. 안락국이 장자집에서 도망 나와 짚동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두광을 두른 아미타불이 원앙부인과 안락국과 함께 용선을 타고 간다. 그 강이 어둡고 침침하게 그려 있다. 이승에서 저승 정토로 넘어가는 강이 음침한 가운데 파도가 험한 곳으로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고 있었던 듯하다. 짚동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 안락국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림에서 용선 아래쪽으로는 용선에 오르기 전의 장면, 즉 세 토막 난 시신이 백골이 된 채 대밭에 누워 있고 안락국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서방에 합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전체에서 보건대 이 장면은 상대적으로 작고 한구석에 처리되어 있으나, 대밭 땅바닥에 허영게 드러난 백골로 인하여 대번에 눈에 띈다. (중략) 여기에 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는 우리 신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아랫부분은 사라수대왕의 궁이 번듯한 가운데 수나무가 울창하고 부유한 느낌을 준다. 중간부분에는 자현장자의 집이 크지만 어둡게 그려 있고 오른쪽의 범마라국으로 가는 강도 음침하다. 안락국에게 원앙부인의 죽음과 그 시신있는 곳을 알려준 소 치는 아이가 타고 있는 소는 우리 나라 소가 아니고 중국 남쪽에서 흔히 보이는 물소다. 원앙부인의 백골이 누워있는 대숲도 대략 그쪽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윗부분은 광유성인이 있고 꽃나무가 있으며 거기에 팔채녀와 사라수대왕이 물을 길어다 주는 범마라국을 나타내고 있다¹¹²⁾.”

112) 조홍윤, 위의 책, 18-20쪽.

ABSTRACT

The study on image & meaning of "Seo-chon flower garden"

Yoo, Hyo-chu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This article is "Seo-chon" flower garden. It is an incantation space. To that place the flowers which have the force of incantation exist. It does to conceive the baby, or It saves the dead person again and it puts out. "Seo-chon" flower gardens the flowers which have like this mysterious one force are enough.

Against the form and a function of the "Seo-chon" flower garden, it researched from this dissertation.

The talk of the "Seo-chon" flower garden, Cheju-island, appears in the Order of sacrificial rite.

<igong-bonpuri> & <samsunghalmang-bonpuri> is shaman rituals in Cheju-island. and In those the "Seo-chon" flower garden is appearing.

"Seo-chon" flower garden is puts in the imagining total of our nation which is particular. But, until currently the research against the "Seo-chon" flower garden is complete in data and it is not advanced. therefore, It is like that data from this dissertation and in the center it developed and it advanced.

It did so and it composed it searched the result which it puts out it accomplished the features of the flower garden and meaning of the flower garden.